

<별첨 1>

지원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의망 지원 분야	분야1) 오리지널 시나리오 창작지원 () 분야2) 영화→시리즈드라마 장르 전환 기획개발 지원 (√) ※ 필수 표기 항목이며, 해당란에 √ 표시	

1. 신청 작품 정보

지원작품명	제로 데이(Zero Day)			
작품 현황	분야1)	초기 기획안(시놉시스) <input type="checkbox"/>	트리트먼트 <input type="checkbox"/>	시나리오 <input type="checkbox"/>
	분야2)	시나리오 초고 <input type="checkbox"/>	시나리오 초고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작품 진행 개요 (간략)	작품 진행 현황	진행 내용		작가명
	초기 기획안 ~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완성		변준석
	시나리오 초고	초고 완성		변준석
	시나리오 초고 이상	2024년 영진위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후 각색 작업 중		변준석

2. 신청자 정보

신청인	성 명	변준석 (남, 여)	생년월일	1968.08.10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4길 9 상도더샵 아파트 108동 1204호			
연락처	휴대폰	010-7123-3065	이메일	truejune@naver.com
소 속	회사명	‘개인’	직책/역할	작가, 감독

※ 소속이 없는 경우도 직책/역할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작품 경력 사항

참여 작품 ※최신순	작 품 명		직 책
	① 2024년 영진위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작가
	② 2023년 영진위 영화 기획개발 선정		작가
	③ 2022년 오디오 영화 ‘리버스’		작가
	④2010년 제천국제영화음악제 출품작 ‘에일리언 밴드’		감독

2025년 6 월 5 일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위원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 관련 사업신청과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의 수집과 이용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경력사항 (작품 경력 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지원자중 최종 선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미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종 선발결과 여부 결정 시까지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6 월 5 일

지원자 : 변준석  (인)(또는 서명)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지원신청 처리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의하여 위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위원회가 본인의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상기 1. 기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5 년 6 월 5 일

지원자 : 변준석  (인)(또는 서명)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2〉 작품기획서

II. 작품기획서

1. 작품 의도

"위기에 빠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던 약자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이야기"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이 거대 시스템에 의해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지를 '제로 데이'라는 메타포로 형상화한 사회적 스릴러입니다. 7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하루아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비인가 요원 이지민의 이야기를 통해, 조직에 의해 쉽게 버려지는 현대인의 불안과 그에 맞서는 개인의 의지를 그립니다.

핵심 메시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개인의 성장과 각성

위기에 빠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던 약자(弱者)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2. 로그라인

“ 위장 임무로 범죄자로 내몰린 비인가 요원의 목숨 건 정규직 생존기(生存記). ”

3. 등장인물

이지민(32)

국정원 위장회사 '미래정보' 소속 비인가 여자 요원.

해킹과 생존술에 능하며 말보다는 행동, 과정보다는 결과로 정규직 요원을 노린다.

그 흔한 스타벅스 한 번 간 적 없으며,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절대 못 참는다.

불확실한 세상보다 자신을 더 믿는 빠속까지 행동주의자로 종종 자백 경향이 있다.

7년간 뼈를 갈아 임무를 수행해 온 성과 덕분에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다.

최준서(29)

위장회사 '미래정보'에 파견 나온 새내기 국정원 정규직 요원.

지민과 같은 모의 해킹 팀원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실력, 인성, 외모까지 3박자를 다 갖춘 훈남, 하지만 숨겨진 비밀이 있다.

강안(41)

지민과 미래정보를 쫓는 추격자.

한 번 노린 타겟은 결코 놓치지 않을 냉혹함과 집요함을 가졌다.

조직의 명령보다 자신의 임무에 더 충실하다.

장대환(45)

3대가 국정원 출신인 금수저 출신 상황실장.
우아한 워라벨 국정원 고위직이 인생 목표다.

고연옥(45)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과 강직함으로 원장도 눈치를 보는 국정원 감찰국장.
외부 압력과 갖은 유혹에도 자신의 길을 고수한다.

3차장(57)

원장 자리를 꿈꾸는 국정원 출신 3인자.
불같은 성격에 샤우팅을 쏟아내지만 늘 실리를 쫓는다.

맹승재(33)

스팸 메일과 각종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야매 프로그램 시장의 실력자.
지민의 이전 동료로 권위적인 모든 것에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솟구친다.

씨드9(SEED9)

조세 피난처로 연결된 베일에 가려진 다국적 금융 정부.

4. 줄거리

국정원 위장회사 '미래 정보'의 비인가 요원 지민은
뼈와 영혼을 갈아 넣은 임무 수행으로 정규 요원을 앞두고 있다.
부푼 가슴으로 출근한 지민 앞에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던 '미래 정보'가 먼지 하나 안 남기고 사라졌다.

이후, 어렵게 찾아낸 동료가 눈앞에서 살해되고,
이 악물고 모아 왔던 돈마저 계좌에서 전부 빠져나간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위장 임무들이 치명적인 범죄로 몰리자,
지민은 회사 규칙을 어기고 국정원에 비상 연락을 시도한다.

자신을 보호해 줄 지원팀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지민.
하지만 최고 권력자들의 암투로 '미래 정보'가 희생양이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다국적 금융 정부 '씨드9'의 충격적인 진실과 직면하는데...

인생 최악의 위기에 빠진 지민은
악(惡)을 재생산하는 다국적 금융정부 '씨드9'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토록 원하던 국정원 정규 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5. 시장 변화 적응 전략

OTT 플랫폼 적합성

멀티 에피소드 구성 가능: 씨드9의 각 인물들과 지민의 대결 구조를 개별 에피소드로 확장
글로벌 어필: 사이버 테러와 정보 조작은 전 세계 공통 이슈로 해외 진출 용이

소셜 미디어 연동: 실제 SNS와 해킹 문화를 소재로 한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장르적 완성도: 스릴러의 긴장감과 사회적 메시지의 균형으로 대중성과 작품성 확보

시각적 임팩트: 사이버 세계와 현실의 대비, 추격 액션의 시각적 스펙터클

관객 참여형: 극중 해킹과 정보전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마케팅 요소

원작 IP 확장성

웹툰/웹소설: 각 등장인물의 백스토리나 사이드 스토리 확장 가능

게임: 해킹 시뮬레이션과 추리 요소를 결합한 게임 콘텐츠 개발

다큐멘터리: 실제 사이버 보안과 정보 조작 이슈 연계 교육 콘텐츠

6. 차별성

장르 차별성

하이브리드 장르: 사이버 스릴러 + 스파이 액션 + 휴먼 드라마의 독특한 결합

여성 주인공: 기존 스파이 영화의 남성 중심 서사를 뒤집은 주체적 여성 캐릭터

현실 밀착성: 실제 사이버 보안 이슈와 정보 조작 문제를 오락성과 결합

사실적 해킹 묘사: 실제 해킹 기법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현실성

멀티 플랫폼 연동: 극중 해킹과 정보전을 실제 소셜미디어와 연계한 확장 경험

다층적 내러티브: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현대 정보사회의 복잡성을 영상으로 구현

사회적 임팩트

정보 리터러시: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개인의 주체성: 거대 조직과 시스템에 맞서는 개인의 용기와 성장 메시지

현실 비판: 비정규직 문제와 조직의 개인 착취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7. 시리즈 드라마 전환 개발 방향

개발 방향

1단계: 구조 해체 및 재구성 (1개월)

원작 분석 및 확장점 도출

- 영화 3막 구조 → 시즌1 8화 에피소드 구조 전환
- 주요 전환점:
 - 영화의 압축된 캐릭터 관계 → 시리즈의 점진적 관계 발전
 - 단일 사건 중심 → 다층적 음모 구조로 확장
 - 결말의 카타르시스 → 시즌별 아크와 전체 시리즈 아크 설계

캐릭터 아크 확장

- 지민: 영화의 성장 → 시리즈의 단계별 각성과 성숙
- 준서: 영화의 반전 캐릭터 → 시리즈의 점진적 정체성 노출
- 강안: 영화의 조력자 → 시리즈의 복합적 멘토 관계
- 씨드9 멤버들: 영화의 집단 악역 → 개별 캐릭터로 분화

2단계: 시즌 구성 및 에피소드 설계 (2개월)

시즌1 구성안 (8화, 50분/화)

화수	제목	주요 내용	클리프행어
1화	제로 데이	미래정보 실종, 지민의 일상 붕괴	동료들의 의문사 시작
2화	추격자들	첫 번째 추격전, 미리의 죽음	준서의 등장과 구조
3화	가짜 구원자	준서와의 협력, 벽서 파일 단서	준서의 의심스러운 행동
4화	진실의 조각	미래정보의 정체 발각	씨드9의 존재 암시
5화	배신의 얼굴	준서의 정체 폭로, 상호 납치	연옥의 등장
6화	벽서의 비밀	벽서 파일 획득, 씨드9 음모 발각	전쟁 임박 위기
7화	최후의 거래	상호 구출 작전, 준서와 대결	국가적 위기 상황
8화	새로운 시작	안나푸르나 협상, 평화 회복	시즌2 예고 (새로운 위협)

시즌2-3 확장 로드맵

- 시즌2: 씨드9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른 국가들의 이야기
- 시즌3: 지민의 국제 요원 활동과 새로운 거대 음모

3단계: OTT 플랫폼 특화 각색 (2개월)

빈지워칭 최적화 전략

- 연속성 강화: 각 화 마지막 5분을 다음 화 예고로 활용
- 캐릭터 훅: 매 화마다 한 명씩 새로운 캐릭터의 비밀 공개
- 퍼즐 구조: 시청자가 함께 풀어가는 단서들을 화면에 배치
- 감정적 몰입: 지민-상호 관계를 통한 휴먼 드라마 강화

플랫폼별 맞춤 전략

- 넷플릭스: 글로벌 시장 겨냥한 액션과 스케일 강화
- 웨이브/티빙: K-콘텐츠 특성 살린 사회 비판과 휴먼 드라마
- 디즈니+: 가족적 가치와 성장 스토리 부각

4단계: 제작 최적화 및 확장성 확보 (2개월)

제작비 효율화 방안

- 로케이션 최적화: 영화의 다양한 촬영지 → 시리즈용 고정 세트 활용
- 액션 시퀀스 재구성: 대규모 액션 → 긴장감 중심의 실내 액션으로 조정
- VFX 전략: 실제 해킹 화면과 UI/UX 디자인 중심의 시각적 효과
- 캐스팅 연속성: 시즌 단위 계약으로 캐스팅 안정성 확보

글로벌 진출 전략

- 더빙 친화적 구성: 립싱크를 고려한 대사와 연출
- 문화적 보편성: 한국적 특수성과 글로벌 보편성의 균형
- 자막 최적화: 해킹 용어와 전문 용어의 직관적 번역 가능성

IP 확장 연계

- 웹툰/웹소설: 각 캐릭터별 백스토리나 사이드 스토리
- 게임: 해킹 시뮬레이션과 추리 어드벤처 게임
- 교육 콘텐츠: 사이버 보안 인식 교육용 스펀오프

5단계: 실행 가능성 검증 (1개월)

시장성 검증

- 타겟 오디언스: 20-40대 남녀, 스릴러와 액션 선호층
- 해외 시장: 아시아 권역 우선, 이후 유럽/미주 확장
- 경쟁작 분석: 기존 사이버 스릴러와의 차별화 포인트 점검

제작 파트너십

- OTT 플랫폼: 국내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 방안
- 기술 파트너: 실제 사이버 보안 업체와의 기술 자문
- 해외 공동제작: K-콘텐츠 진출 지원 정책 활용

리스크 관리

- 검열 이슈: 국정원과 정부 기관 묘사의 현실성과 안전성 균형
- 기술적 고증: 해킹과 사이버 보안의 현실적 묘사 수준 조절
- 사회적 메시지: 비판적 내용과 오락성의 적절한 조화

기대 효과

창작적 성과

영화의 압축적 스토리텔링을 시리즈의 깊이 있는 서사로 확장
캐릭터 중심의 장기 서사를 통한 관객과의 깊은 유대감 형성
K-콘텐츠의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 제시

산업적 파급효과

영화→시리즈 전환의 성공 모델 구축

국내 사이버 스릴러 장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IP 기반 멀티 플랫폼 확장의 체계적 사례 창출

〈첨부3〉 기획개발 계획서

III. 기획개발 계획서

1. 기획개발 목표 및 방향

최종 목표

영화 「제로 데이」(2024년 영진위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수상작)를 OTT 플랫폼 최적화된 시리즈 드라마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완성도 높은 시리즈 각본 개발

세부 목표

스토리 확장성 강화

영화의 압축적 3막 구조를 8화 시리즈 구조로 전환

주요 캐릭터들의 백스토리와 관계성 깊이 있게 개발

시즌2-3 확장을 위한 세계관과 서사 구조 설계

캐릭터 심화

주인공 이지민의 단계별 성장 아크 정교화

조연 캐릭터들의 독립적 서사 라인 구축

악역 캐릭터들의 입체적 동기와 배경 설정

글로벌 적합성 확보

한국적 특수성과 글로벌 보편성의 균형

문화적 번역 가능성을 고려한 대사와 상황 설정

해외 시청자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적 요소 배치

현실성 강화

실성 강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술적 고증

현실적 제작 환경을 고려한 시나리오 구성

국내외 정보 기관 관련 고증 및 안전성 검토

개발 방향성

장르 전환 전략

영화의 강점 유지: 긴장감 있는 액션과 반전 구조
시리즈의 장점 활용: 캐릭터 관계의 점진적 발전과 복합적 갈등 구조
플랫폼 최적화: 빈지워칭을 유도하는 에피소드 구성
시장 대응 방향
국내 OTT: K-콘텐츠 특성을 살린 사회 비판적 메시지
글로벌 OTT: 액션과 스릴러 요소 강화
극장 연계: 시즌1 압축 편집을 통한 극장판 제작 가능성 확보

2. 개발 범위 및 방식 (시나리오 개발 계획, 작가 섭외 계획 등)

2.1 현재 상태 분석

원작 영화 시나리오 현황

완성도: 2024년 영진위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스토리 완성도 검증

분량: 극장용 장편 기준 120-130페이지 분량

구조: 전체 133씬 중 약 80% 완성 상태

보완 필요사항: 대사 자연스러움, 액션 시퀀스 연출, 메시지와 엔터테인먼트 균형

2.2 개발 범위

1차 개발 (1-2개월): 구조 전환 및 기초 설계

영화 시나리오 해체 분석 및 시리즈 구조 설계

주요 캐릭터 아크 확장 계획 수립

시즌1 8화 에피소드 구성안 완성

시즌2-3 확장 로드맵 설계

2차 개발 (3-4개월): 시나리오 집필 및 정교화

시즌1 8화 시나리오 초고 완성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술적 고증 반영

캐릭터별 대사 톤앤매너 정립

에피소드별 클리프행어 및 반전 요소 배치

3차 개발 (5-6개월): 완성도 제고 및 최종 검토

시나리오 2차 수정 및 완성

제작진 피드백 반영

해외 진출을 위한 문화적 요소 조정

최종 각본 완성 및 연출 의도서 작성

2.3 개발 방식

단계별 피드백 시스템

1차: 스토리 구조 및 캐릭터 설정 전문가 검토
 2차: 장르 전문가 및 OTT 플랫폼 관계자 피드백
 3차: 타겟 관객 대상 리딩 세션 및 최종 점검
 전문가 협업 체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 해킹 기법 및 정보 보안 고증
 전직 정보기관 관련자: 조직 문화 및 현실성 자문
 OTT 플랫폼 전문가: 시리즈 구성 및 시장성 검토
 해외 진출 전문가: 글로벌 시장 적합성 검토
 작가진 구성
 주작가: 변준석 (원작 시나리오 작가)
 구성작가: 시리즈 구성 전문가 1명 섭외 예정
 고증 자문단: 각 분야별 전문가 4-5명 구성.

3. 지원금 사용계획

현실적 예산 배분 (1,500만원)
 작가료 66.7%: 주작가 + 구성작가 협업
 자료조사비 13.3%: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리서치
 제작개발비 16.7%: 리딩세션, 피드백, 제작비
 예비비 3.3%: 돌발상황 대비

4. 개발 일정 - 구체적인 진행 계획

전체 개발 기간: 2025년 6월 ~ 12월 (7개월)
 4.1 1단계: 기반 구축 (6월-7월, 2개월)
 6월: 팀 구성, 원작 분석, 전문가 자문단 구성
 7월: 현장 리서치, 기술적 자문, 시나리오 구조 설계 완성
 4.2 2단계: 본격 개발 (8월-10월, 3개월)
 8월: 전문가 피드백 반영, 캐릭터 백스토리 보완
 9월: 대사 정교화, 중간 점검, 2차 전문가 검토
 10월: 2차 수정 작업, 타겟 관객 리딩 세션
 4.3 3단계: 완성 및 정리 (11월-12월, 2개월)
 11월: 리딩 세션 피드백 반영, 최종 시나리오 완성
 12월: 연출 의도서 작성, 최종 보고서, 결과물 제출
 주요 마일스톤
 M1 (7월 말): 시나리오 구조 설계 완성
 M2 (9월 말): 시즌1 8화 시나리오 초고 완성
 M3 (11월 말): 최종 시나리오 완성
 M4 (12월 말): 프로젝트 완료
 품질 관리 및 리스크 관리
 주간 리포트, 월간 리뷰, 분기별 평가

각 단계별 1주 버퍼 확보, 추가 전문가 투입 방안 준비

최종 목표

2025년 12월까지 글로벌 OTT 플랫폼 진출 가능한 완성도 높은 시리즈 시나리오 완성 및
후속 제작 진행을 위한 기반 구축

〈첨부4〉 진행 현황 (진행 이력)

IV. 진행 현황 리포트

1. 아이템 발굴과 첫 트리트먼트 (2009년 5월)

현대 사이버 보안과 정보기관을 소재로 한 오리지널 스릴러 '제로 데이(Zero Day)'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이버 보안 환경과 정보기관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스토리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2. 경기영상 시나리오 기획개발 선정 (2022년 6월)

3. 2024년 영진위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수상

작품의 완성도와 상업적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음

4. 제작사 접촉 현황

영진위 대상 수상 이후 다수의 영화사와 시나리오 미팅을 진행 중입니다. 메이저 제작사 및 중견 제작사들로부터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작가 경력

2024년: 영진위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수상 (제로 데이)

2023년: 영진위 영화 기획개발 선정

2022년: 오디오 영화 '리버스' 작가

2010년: 제천국제영화음악제 출품작 '에일리언 밴드' 감독

6. 시리즈 전환 기획개발 의의

영진위 대상 수상작이라는 검증된 완성도를 바탕으로, 현재 영화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실제 제작 가능

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영화 시나리오를 시리즈 드라마로 확장 개발함으로써, OTT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약 2년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현대 디지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스릴러 장르로 형상화한 사회적 스릴러로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력 크레딧 증빙 서류

변준석 (BYEON Jun-seok)



기본정보

필모그래피

엑셀

출력

총 매출액 총 관객수



에일리언 밴드(Alien Band)

: 감독

2010 | 한국 | 드라마

[공식통계] 원, 명

[KOBIS통계] 원, 명



하루(A Day)

: 조감독

2001 | 한국 | 드라마

[공식통계] 원, 293,530명 S

[KOBIS통계] 원, 명



띠(Tie A Yellow Ribbon)

: 연출팀-연출부

1998 | 한국 | 코미디,드라마

[공식통계] 원, 168,813명 S

[KOBIS통계] 원, 6명



고스트 맘마(Ghost Mamma)

: 조감독-조감독

1996 | 한국 | 멜로/로맨스,가족

[공식통계] 원, 257,688명 S

[KOBIS통계] 원, 22,000원, 6명



48+1

: 연출팀

1995 | 한국 | 드라마

[공식통계] 원, 13,524명 S

[KOBIS통계] 원, 명

리버스

Reverse · 2022년

극영화 · 대한민국 · 2022-11-18 (개봉)

제작사 네이버 바이브, 주잉크스팟

감독 [임건중](#)

출연 [이선빈](#), [이준혁](#), [김다솜](#), [임원희](#), [박경혜](#) [더보기](#)

[스크랩하기](#)

[DB 수정요청](#)

소장자료

기본정보

[영상자료\(4\)](#) [동영상\(4\)](#) [이미지\(10\)](#) [포스터\(7\)](#) [스틸\(3\)](#)

크레딧 (13)

감독	: 임건중
출연	: 이선빈 함묘진 역
	이준혁 류준호 역
	김다솜 최희수 역
	임원희 상호 역
	박경혜 리아 역
	박은혜 선영 역
	이준혁 형사 역
	토니안

스태프

각본	: 임건중 오태경 윤재구 변준석
----	---

1. 존안 금고

어두운 붉은 조명 아래 그 어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간이 정지된 곳.
순간, 불이 켜지고 붉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드러난다.

하얀 서버들로 가득 찬 존안 금고.

‘우웅!!’ 소리와 함께 수많은 서버 점멸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다가 멈추고,
곧, 어두운 붉은 조명과 함께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드는 존안 금고의 수많은 서버.

2. 고층 빌딩 연회장/룸 - 저녁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식 준비가 한창인 리셉션장.

단상 위 프롬프터에 선언문이 올라오고, 관계자들이 선언식을 체크하느라 분주하다.

출마 선언문을 꼼꼼히 체크하며 걸어가는 여자 수석 보좌관과 보좌1.

수석 내 가슴이 다 떨려~ 후보님은?

보좌1 (빙긔) 담담하시던데요. 워낙 준비된 후보님이시잖아요.

수석 다른 주자들이 끝까지 버텨줘야 후보 경선도 흥행할 텐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걱정이야. (미소) 배부른 소리겠지?~~

보좌1도 동의한다며 웃고,

수석이 다가가자, 방문을 지키던 경호팀이 깡뚝이 고개 숙인다.

수석 (긴장) 후보님 나가실 테니 준비해 줘요.

노크하는 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찬 바람이 얼굴에 부딪힌다.

보면, 활짝 열린 창문 앞에서 폰을 보며 서 있는 학자 스타일의 대선후보(67).

수석을 바라보다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폰을 쥔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다.

‘아악!!’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수석.

열린 창문 사이로 세찬 바람이 출마 선언문을 어지럽게 휘날린다.

(소리)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사건들입니다.

3. 사이버 보안 강의실 - 오전

사이버 보안을 강의하는 강사와 폰을 보며 대충대충 수업 듣는 교육생들.
반면 투박한 빨테 안경 낀 지민(24)은 맨 앞줄에서 눈을 부릅뜬 채 초집중하고 있다.
강사가 가볍게 손가락으로 제스처 하자, 공중에 동영상이 흐르고.

- 차세대 레이더망을 개발 중인 국방 연구소에서 불법 유출된 기밀 자료들.
- IDC(인터넷데이터센터) 화재로 멈춘 주식시장.
- 멈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집기를 부수며 거세게 항의하는 피해자들.

강사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 'log9K'로 인해 기업은 물론이고 국책 연구소,
정부 기관까지 심각한 해킹 위협에 노출되었죠.

강의 동영상을 긴장된 얼굴로 보고 있는 지민과 여전히 대면대면한 교육생들.

강사 이걸 엠바고 처리된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공개합니다.

강사가 손가락으로 제스처 하자, 놀라 손으로 얼굴 가리는 지민과 긴장하는 교육생들.

- 고층 빌딩 밑 자동차 위에 추락한 피투성이 정장 남자.
- '남북 화합'으로 경제 성장 주장하던 대선후보 자살 기사들.
- 컴퓨터와 폰에서 나온 미성년자 성폭력 SNS와 문자들.
- 장례식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 시위하는 시민단체들.

강사 진실은 뭘까요?

교육생들 (긴장된 눈빛들) ...

강사 모르죠. 아무도.. 결국 남은 건 폰과 컴퓨터에서 명백한 범죄 증거가 나왔다는
팩트뿐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기도 하죠. .. 그럼 이 숫자는 뭘까요?

강사가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하자 숫자가 뜬다. 1969.10.29.

다들 고개 갸웃거리는데.., 범생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답을 해보라며 웃는 강사.

지민 (쭈뼛쭈뼛)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진.. 날요.

강사 (의외라는 듯 미소) 맞아요. 1969년 10월 29일. 그날 이후 세상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었죠. 업계 내부에서만 떠도는 소문인데.., 인터넷을 처음 만들 때 개발팀이
수정과 디버깅을 위해 백도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인터넷에
들어 갈 수도 있구요. 첨단 산업단지, 국방 연구소, 핵발전소, 대통령실, 심지어
우리 계좌까지~ 누군가 그 씨드 파일을 손에 넣는다면, 엘론 머스크가 부럽지 않겠죠?

수강생들 (다들 웃는다) ~

강사 이렇게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데, 개선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짧은 한숨) 그 이유 아는 사람?

강사 질문에 주위를 둘러보는 교육생들.

그때 주위 눈치 보며 소심하게 손을 드는 지민, 또 강사가 웃으며 손짓한다.

지민 (쭈뼛쭈뼛) .. 실제 작업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라...
강사 덩동대~~ 회사 중요 보안 이슈를 권한도 책임도 없는 분들이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때문이지요. 더 황당한 건 회사 윗분들은 사이버 보안 쪽에 투자하지 않아요.
왜? .. 모르니까!! 그냥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강사의 냉소적인 말에 침울해지는 지민과 교육생들.

강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 이걸 여기서만 공개하는 영업 비밀인데..
교육생들 (눈빛 반짝) !!

강사 면접 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특히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를 뒤섞어 자신 있게
떠들어대면 면접관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모르는 거 티 내면 쪽팔리니까.
학과 동기 중 하나는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게임 쪽 언어로 면접 시간을 때웠는데..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생들 (다들 얼굴이 밝아진다) ~

강사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강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메타버스 교육장을 속속 빠져나가는 교육생들.

강사도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자료를 정리하며 나가는데,

(소리) .. 저기..

보면, 안경 낀 범생 스타일 지민이 쭈뼛거리며 서 있다.

강사 인터넷 첨 만들어진 날도 알고, 재미없는 농담까지 반응해 주던데..
수업이 쉽진 않았죠?

지민 (소심) 그래도 넘 좋았어요.

강사 (미소) 다행이네~ .. 필요한 게..?

지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쭈뼛) 강사님 일하시는 곳에 취직하려면 어떤 준비를..

강사 음.. 학교, 전공은?

지민 .. 그냥 지방대.. 한문학과요. 프로그래밍은 국비 학원에서...

강사 솔직하게 말할까요? 희망찬 얘기 들을래요?

지민 .. 솔..직요....

강사 학교, 전공 안 본다 그러지만, 개구라구요. 정규직은 대부분 내정됐다 보면 돼요.
이쪽 일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민 (위축)

강사 이번에 사람 뽑았는데 2명 모집에 700명이 지원했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에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수도룩. 거기다 어렵다는 CISSP랑 CISA 자격증까지 있더라구요.
비정규직인데도 말이죠. 요즘 입사하라면 나라도 장담 못 해요.

지민 (울상) .. 어.. 딱하죠..

강사 (지민을 보다 한숨) .코딩한 거냐? 포트폴리오는..?

지민 (쭈뼛) ..있긴 한데요...

잔뜩 위축된 지민을 보던 강사, 손가락을 튕기자, 메일 메시지가 지민에게 날아간다.

강사 피드백은 장담 못 해요~

지민 (강사 이메일 주소를 보며 고개 꾸벅)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요즘 직장 구하기 진짜 힘들잖아. 구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빙긔) 어떻게 알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지~

지민에게 격려의 아이템을 선물한 뒤 메타버스 강의실에서 사라지는 강사.

이메일 주소를 보는 지민, 소심한 얼굴에 기이한 웃음이 번지고, 주변이 스르르 변하는데...

4. 지민 원룸 - 오전

익숙하게 VR 글래스를 벗는, 소심해 보이던 것과 달리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지민(32)!!
지민의 방 안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CISA/CISSP 자격증, '보안 위협 분석 전문가 과정' 수료증, 'OSCP(공격적 보안) 인증서,
토익, 토플 점수표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다짐을 적어놓은 수많은 포스트잇!!

강사가 준 메일 주소로 준비해 뒀던 파일을 전송하는 지민, 승리의 웃음을 짓는데,
'냐옹~' 소리와 함께, 검은 고양이가 지민 다리를 끌어당기고, 이어폰을 귀에 꽂는 지민.

5. 도심 빌딩 가 - 오전

빠른 음악과 함께 빌딩 사잇길로 달려 나가는 백팩 멘 지민, 고양이가 뒤따른다.
공사 표지판이 나타나자, 파쿠르로 점프하고, 높다란 벽을 암벽 등반하듯 뛰어넘어가는 지민.
뒤따르던 고양이, 벽을 타고 넘어가는 지민을 보더니 익숙한 듯 되돌아가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나쳐 고층 빌딩 뒤쪽으로 달려가는 지민.
평범하게 보이는 빌딩으로 들어가고, 빠르게 지하 계단으로 뛰어 내려간다.

6. 지하 복도 - 오전

지하 건물 끝 쪽 복도에 '미래정보' 팻말이 붙은 폰 어플 개발 회사.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천장 곳곳에는 CCTV들이 주위를 빈틈없이 비추고 있다.

7. 미래정보 - 오후

긴박한 음악과 함께, 컴퓨터 언어와 숫자들이 모니터 속에서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형형색색 칠한 손톱이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여러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지민.

겹겹이 쌓인 네트워크 방화벽을 뚫고, 서버 관리자 권한을 손에 넣기 위해 시도 중이다.

지민 옆에는 간간하게 보이는 상일(43)과 큰 덩치에 오덕스러운 두남(34)이가 해킹 추적 프로그램이 가까워지자, 얼굴을 찡그리더니 접속을 끊더니 두 손을 든다. 반면 단정해 보이는 준서(28), 해킹 추적 프로그램을 아슬하게 따돌리며 서버 방어벽을 뚫는다. 서로 경쟁하듯 보안이 삼엄한 서버를 해킹 중인 지민과 준서. 그 뒤에서 반 대머리 오부장(54)이 초조한 지 침도 못 삼키고 둘을 지켜본다.

그때, 지민에게 보안 강의를 했던 강사에게서 답장 메일이 도착하고, 씨익 웃던 지민, 메일을 열자, 강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뜬다. 해킹하던 서버 로그인 창에다 빠르게 입력하면, 스르르 뜨는 메인 화면.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指向한다.” 라고 적힌 국정원 메인 화면이다!!

지민 음지에서 양지? 조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 홈페이지 좀 바꾸라니까. 진짜 개구려~
오부장 ..조심.. 조심.. 문제 생기면 바로 나와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지민 (키보드 입력하며) 부장님 우황청심환 챙겨드려. 저러다 또 쓰러지셔~
오부장 (빠르게 추적해 오는 프로그램을 보며) 이번엔 본사야 본사!! 잘못되면 진짜 큰일..

오부장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킹하던 국정원 서버 창에 엔터 키를 누르는 지민. 순간, 여러 모니터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더니, 해킹 추적 프로그램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못내 아쉬워하는 준서, 지민을 따라 국정원 서버에 접속한다.

오부장 우와아!! 되네. 이게~ .. 본사가 알면 게거품 물 거야. 비결이 뭐야?!(각종 장비 만지며) 이번에 장만한 green door 시스템?
지민 (뽕뽕!!) 기계에 돈 쏟아부으면 뭐 해? 사람 뚫리면 게임 오버인데. 사람 중요한 줄 진짜 몰라요~
오부장 그래서.. 이번 미션 마무리되면 거하게 회식 쏘려고. 회사 규칙 어겨서라도.
지민 회식은 무슨!! 그냥 수당으로 줘요. (포스트잇 보며) 이게 오늘 미션?

오부장, 준서에게 눈짓하자, 시계 확인하던 준서, 고개 끄덕이고. 국정원 서버를 여기저기 탐색하던 지민, 눈빛이 반짝이는데, 보이지 않던 새 폴더가 열렸다!!

지민 (피식) 타임 리미트 인트라넷이네~ 보물이라도 숨겨 놓으셨나? 오늘 퀘스트가 개쩔어.
상일 (모니터 확인하며) 본사 시스템에는 등록 안 된 곳인데..
준서 (부장 보며) 서버 액세스 확인까지입니다. 더 나가다간 추적당할 수 있어요.
지민 취약점 알려면 관리자 권한 획득은 기본이지.
 대단하신 본사 수준을 체크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준서 (얼굴 굳어진다) ..

오부장 긴말 할 것 없어. 파일 하나만 심고 나와. 증거는 남겨 놔야 되니까.
다른 건 안 돼. 절대! 네버!!

새롭게 열린 서버 폴더를 빠르게 검색하는 지민.

순간, 비상벨 소리와 함께 회사 조명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페이크 접속 IP를 뚫으며 맹렬히 추적해오는 국정원 역추적 프로그램!! 60초, 59초, 58초..

두남 아... 아무래도 힘들겠는데요... 대역폭이 어마무시한 UWB(Ultra-Wideband)!!

오부장 (얼마 남지 않는 머리카락 쓸어올리며) 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 쫄치자.

망설이던 준서, 국정원 서버를 빠져나오고, 하지만 지민 키보드 소리 더 빨라진다.

오부장 뭐해? 안 나오고?!

지민 관리자 권한만 손에 넣으면 되요.

오부장 상대는 본사야. 잘못하다간... 제로 데이 떠!!

지민 (눈빛 번득) 우리 같은 듣보 지사한테 무슨 제로 데이. 고상하신 본사 정규직이
그랬거든요. 아이비리그 졸업에 실리콘 밸리 출신 정도 되어야 겨우 본사에
들어온다고.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오부장 개네들 건방진 거 어제 오늘이야? 당장 나와!!

지민 걸리면 독단으로 모의 해킹했다 그럴게요.

상일 회사 감찰팀이 얼마나 독사 새긴 줄 몰라서 그래?! (두남 보며) 뭐해? 빨리 안 끊고?!

두남 (지민 눈치 보며) ..지.. 금요? (..네트워크를 차단하려 한다.)

지민 (키보드 두들기며) 손대기만 해봐! 미래정보 신상을 다 까발릴 테니까!!

두남 (네트워크 차단하려다 움찔) !!

준서 (사무적으로) ... 30초.

준서 경고에 더 빨라지는 지민의 키보드, 역추적 프로그램도 이제 페이크 IP 하나 남았다.

오부장 이러다 다 불러 가!!

상일 (눈치 보던 두남 보며) 뭐해? 선 안 끊고?! 지금 당장!!

두남 (어쩔 수 없다는 듯 네트워크 라인을 뽑으려고 한다) !!

지민 (황황!! 키보드 두드리며) 씨--이발!! .. 할 수 있다니까!!!!

두남 (양쪽 눈치 본다) ..

준서 (긴장) 카운트 다운!! 10, 9, 8, 7..

얼굴이 시뻘게진 오부장, 망설이던 두남을 밀치더니 네트워크 라인을 뽑는데,

순간, 모니터 화면에 팍 뜨는 '관리자 권한' 창.

지민, 놀란 오부장을 쫓아보더니, '톡~' 엔터 키를 누르고,

동시에 요란하게 울려대던 비상벨이 멈추더니 역추적 프로그램도 연기처럼 사라진다.

획득한 관리자 권한으로 국정원 서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지민.

그제야 한숨 내쉬는 사람들과 반쪽 민머리가 시뻘게진 오부장.

오부장 으으으... (쏘아보며) 이..지..민.. 회의실!! 팀원들도 전부 다!!

씩씩거리며 회의실로 가는 오부장과 익숙한 듯 한 숨 쉬며 뒤따라가는 팀원들.
지민, 입을 삐죽이더니 난감해하는 준서에게 국정원 파일을 복사한 USB를 넘긴다.

지민 저런 새 가슴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왔을까?! 미스터리야. 진짜~

8. 미래정보 회의실 - 오후

지민 앞에 ‘툭!!’ 던져지는 서류 뭉치들.
오부장과 준서, 팀원들이 굳은 얼굴로 지민을 쳐다본다.

지민 (힐긋) 또 뭔가요? (보면, 잔업 수당 청구서다)
오부장 (짜늘) 아무래도 지민씨는 우리 미래정보랑 안 맞는 것 같아.
잔업 수당 청구도 늘 오버그. 뭐든 자기 맘대로야.
지민 (냉소) 그래서요?!

오부장 메일 받은 거 보니까 모의 해킹 타겟 쪽과도 직접 접촉했잖아.
회사 금기 사항인데..., 미래정보를 위험에 빠트랄 수 있었어.

미리 (팔짱 낀 채) 선 넘은 게 어제, 오늘인가요?
상일 (짜려보며) 솔직히 주변 신경 안 쓰잖아. 최소한의 팀웍은 있어야지.
두남 (눈치) ..휴우.. 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젠.. 좀 힘드네요.
준서 (굳은 얼굴로 입 다물고 있다) ..
지민 규정.. 어겼나요?
오부장 뭐.. 우리 일이라는 게.. 규정 다 지켜가며 할 일은 또 아니지..
지민 휴우.... 애매한 거 딱 질색이니까..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시죠.

오부장, 준서와 다른 팀원들을 쳐다보자, 다들 마음을 굳힌 듯 고개 끄덕인다.

오부장 혼자 일하는 거라면 지금도 괜찮...

지민 결과로!! ... (이 악물고 삭히며) 증명하는 거라면서요.

오부장 그래도 회사 팀웍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지민 ㅋㅋ.. 그러니까.. .. 회사 수준에 맞춰라?!

지민의 냉소에 얼굴이 굳어지는 미래정보 사람들.

지민 (둘러보며) 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회사 평균이라 생각한 적 없어요!!!

팀원들 (얼굴이 더 무거워진다) ..

지민 본사 똥은 비결 물었죠? .. (씹씹하게 웃으며) 7년 동안, 매일 야근에, 휴일도 없이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목표 초과해 왔어요. 햇빛 안 드는 이 지하 골방에서!!

.. 근데 뭐? 오프라인 접촉 절대 금지?? .. ㅋㅋ..

키보드만 두드리면 그냥 다 되는 줄 아나 봐? 웃기지도 않아 진짜..

팀원들 (헛기침하며 불편해한다) ..

지민 (작정했다) 여기저기 구멍 뚫린 취약점을 찾아 피드백 한 곳만 수천 수만 군데구요.
국가 주요 전산망에 핵발전소, 심지어 VIP 집무실까지!! 나 아니었어봐. 대한민국이
죄다 악성 해커들 놀이터 됐을 거야. .. 근데 뭐라고요?! 뭐든 내 맘대로고, 정규직
껌값도 안 되는 잔업 수당 몇 푼마저 인정 못 해주겠다?
(사람들 쏘아보며) 잘됐네~ 정규직 희망 고문도 지쳤고,
찌끄러기 수당 몇 푼 더 받겠다고 이 지랄 떠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

팀원들 (지민 시선 피한다) ..

지민 그래... 관둘게요. 이까짓 것!! 내 인생까지 비정규직 취급당하기 싫으니까!!.. 대신..
오늘 지금까지 근무한 거랑 휴가 한 번 안 가고 일 한 것!! 빠짐없이 수당
처리해주세요. 떼먹기만 해봐.. 미래정보에서 한 일.. 모두 까발려 줄 테니까!!

지민의 분노에 얼어붙은 오부장과 팀원들, 서로 얼굴을 보다가 키득거린다.

짜증과 분노로 와락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민, 그 앞에 쑥 내밀어지는 서류!!

오부장 (능청) 그럼 이건 필요 없겠네?

지민 (나가다 힐끗) ..?!

오부장 목 빠지게 기다린 걸로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서류 가져오며) 정규직 희망자는 차고 넘쳤으니까.

두남 (서류 슬쩍 뺏으며) 싫다면 저라도.. 괜찮죠. 지민씨?

상일 (다시 서류 뺏고) 무슨!! 최고참인 내 차례지. (지민 보며 히죽) 안 그래?

지민 (서류를 확 빼앗아 확인하다 눈이 점점 커지며) .. 이거... 장난.. 아니죠?

팀원들 (지민 보며 웃는다)

지민 .. 본사 정규직 발령.. 맞는 거죠?! .. 몰래 카메라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오부장 (넉넉한 웃음) 차라리 잘 됐다며? .. 이까짓 거 관둔다며?

상일 (씨익) 미련 없다고 하지 않았나?

두남 (빙긔) 여아일연중천금~ 두말 하기 있گی? 없گی?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정규직 전환 명령서를 확인하는 지민.

준서는 그런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부장 (지민에게 봉투 건네며) 그리고 이걸.. 우리 미래정보가 주는 마지막 임무~

지민, 봉투 열면, 네팔행 비행기 티켓과 하얀 설산이 보이는 특급 호텔이다!!

오부장 아직 해외여행 못 가봤다며?

햇빛 안 드는 지하 골방에서 내 쫄스러움 참아내느라 수고 많았어.

지민 (눈빛 흔들린다) !!

오부장 휴가 갔다 오면 본사로 바로 출근해. 축하해. .. 이*지*민 요원~

9. 빌딩 옥상 - 해 질 무렵

옥상 난간에서 정규직 전환 명령서와 네팔 비행기 티켓을 보는 지민,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때, 지민 목에 걸리는 무엇!! 흠칫 놀라 돌아보면, 미래정보 준서다.
지민 목에 걸려 있는 심플하고 세련된 하트 모양 팬던트 목걸이.

준서 (환하게 웃으며) 다음 번엔 더 크고 반짝이는 걸로 준비할게요~
지민 (비행기 티켓 보이며)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준서 저라도 미래정보를 지켜야죠~
지민 또 부장님 호출?! 맨날 너만 부려 먹어. 진짜!!
준서 지금쯤 본사가 발각 뒤집혔을 테니까요. 덕분에 미래 정보도 할 게 많아졌구요.
선배 정규직 축하하는 휴가 갔다 와서나 할 수 있겠네요~
지민 (능청) 회사 규정상 사내 접촉은 금지 아닌가?
준서 안 들킬 자신 있거든요. 담에 여행 같이 가요. 꼭요~

그때 울리는 지민 폰, ‘애물단지’라고 적힌 이름을 확인하자 머뭇거리고,
준서는 누구 전화인지 알기라도 하듯 웃으며 전화를 받으라고 한다.
준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지민, 목에 걸린 팬던트가 붉은 노을에 반짝인다.

10. 미래정보 - 저녁

마무리 작업으로 바쁜 지민, 퇴근하는 팀원들이 다가온다.

상일 첫 해외 여행이라며? 푸른 바다나 가지 웬 눈 덮인 산?!
지민 비밀~
상일 ..남..친이랑??
지민 (힐긋 찌려보다 웃는다) ~
상일 하여튼.. 휴가 선물 썩까기만 해 봐.
본사에 정규직 발령 이의 신청 낼 거야? 내 뒤 끝 알지?
두남 (지민에게 슬쩍 문서 건넨다) ..
상일 우리 오덕께서 며칠 날밤 깐 거야. 네팔 맛집 리스트. 현지인만 가는 곳이라나 뭐래나.
지민 혼자 가려니까 좀 그러네요~
상일 어머!! 웬 감동?! .. 월차, 연차 모조리 다 쓰고 와. 본사 가면 무자게 바쁠테니까.
(나가다 슬쩍) .. 승재는.. 연락돼?
지민 (미소) 모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요?
상일 그냥.. 부장님이 묻더라구. 지민씨 나간단니까 승재 일이 생각 났나 봐. 신경 쓰지 마.

웃는 지민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나가는 상일과 두남.

미리 (가방 챙겨 나오며) 안 가고 뭐 해요? 여행 준비로 무지 바쁠텐데..

지민 우리 새가슴 부장님.. 연락 못 오게 만들어야지.
미리 매일 마지막에 퇴근하더니 정규직에, 휴가까지..!
 올로니, 워라벨이니, 조용한 퇴직 따라하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지민 정규직 곧 될 거야~ 휴가 갔다 오면 저녁 먹자. (속삭이며) 은밀하게 둘만..
미리 언니라면 무조건 콜이죠~ ㅋㅋ 본사 정규직.. 정말 축하드려요~
 (나가다 돌아서며) 언니는 그럴 자격 있어요. 충분히!

미리가 인사하고 나가자, 미래정보에 혼자 남은 지민,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컴퓨터에서 멀티 부팅을 한다.
곧, 다른 화면이 나타나고, 숨겨져 있던 폴더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리품’이라고 적힌 폴더에 암호를 입력하자, 주르륵 뜨는 파일들.
지민이가 7년간 미션을 수행하며 몰래 모아둔 모의 해킹 관련 파일이다.
붉은 USB를 꽂은 뒤, 전리품 폴더를 이동하는 지민.
그런데, 파일 하나가 지연되고, 확인하려는데, 그제야 전송 완료되는 ‘전리품’ 폴더 파일!!

붉은 USB를 뺀 뒤, 준서가 선물한 목걸이 팬던트를 만지작거리는 지민.
그때 폰 울리고, 또 ‘애물단지’ 번호다.
전화를 무시하고 사무실을 나가는 지민, 커피 스틱과 홍차 티백을 한웅큼 챙겨 넣고,
7년 동안 자신을 갈아 넣은 ‘미래정보’를 물끄러미 둘러보다 불을 끄고 나간다.

11. 빌딩 근처 도로 - 저녁

도로 위 차 안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는 강안(38), 잘 갈린 면도날처럼 서늘한 인상이다.
그때 폰으로 전송되는 메시지.

(메시지)

*우회 IP 사용으로 발신처 추적 불가.
UWB 전환 중 반경 100미터에서 신호 끊김.
즉시 복귀 바람.*

무표정한 얼굴로 메시지를 지우는 강안, 자동차를 출발한다.
그 뒤로 환하게 불을 밝힌 초고층 빌딩들이 보인다.

12. 아파트 거실 - 저녁

아파트 2룸 거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지민.

중개업자 (한숨) 드디어 계약이네요. 이 집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민 ..왜요?

중개업자 6개월 동안 계약 직전에 다 엮어졌어요. (수첩보며) 7월에 신혼부부는 계약금까지 준비했다가 취소. 8월에 직장인 부부는 재택근무 안 된다고 또 취소. 9월에 대학원생은... 온라인 수업 못 듣는다고 또 또 취소!! ..어휴.. 인터넷이랑 와이파이가 이 집만 안 되는 거 있죠.. 미치는 줄 알았다니깐요!!

지민 (미소) 그랬군요.

중개업자 그래서 5억 8천에서 5억 3천... 지금 5억까지 내려간 거죠. 급매 내놔거든요. 손님은 운이 좋은 거예요~

지민 (폰으로 이체하며) 지금 계약금 보냈어요. 5천요~

중개업자 (폰을 확인하다 놀라며) 어랏?~ 뜨네. 와이파이가. 아까 전까지만 먹통이었는데. (가우뚱) 신기하네... 손님 오시니까 안되던 와이파이도 되고. 계약도 되고~

지민 제가 운이 좀 좋은 가 봐요~

중개업자 (폰 확인) 이체됐다고 하네요. 잔금은 이사 들어오실 때 집주인 분과 도장 찍으시면 되요.

지민 (계약서 보며 얼굴이 미소가 가득하다)

중개업자 계약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도 사시고. ..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요?

지민 정규직 됐거든요~ (창가로 가더니 밖을 내려다보며) 드디어 내 집이네요~

13. 백화점 매장 앞 - 저녁

먹이를 노리듯 쏘아보고 있는 지민.

지민 앞에는 쇼윈도 너머로 양증맞게 빛나는 금장 샤넬 미니 백이 보인다.

한참을 바라보던 지민, 한숨 내쉬더니 자리를 떠나고,

이내 돌아와 미니백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뚫어지게 노련본다.

지민 (숨을 크게 내쉬며) 넌.. 자격 있어!!

샤넬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지민.

(소리)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쪽쪽쪽쪽~! 쪽쪽쪽쪽~!"

14. 술집 - 밤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동기들과 술 게임 중인 지민, 옆에 새로 산 샤넬 미니 백이 빛난다.

여친구1 (잔 부딪히며) 기집애.. 뭘 하느라 코빼기도 안 비쳤어?

남친구1 공무원 준비했다며?

여친구2 애가 공무원 할 타입이니? 민원인 개작살나게~

지민 (웃으며 술 마신다) ~~

여친구2 (샤넬 미니 백 보며) 어머머.. 귀엽다~

여친구1 남친.. 선물?

지민 (빙긔) 날 위한 선물~
남친구2 오호... 요즘같은 불경기에.. 회사가 좋은 덴가 봐. 어딘데?
지민 말해도 몰라. 네이버에도 안 나오니까.
여친구1 (술 잔 부딪히며) 작은 회사면 어때. 얼굴이 뻘어. 확~
여친구2 맞아 맞아. 이전에 노량진 역에서 봤을 때 얼굴 진짜 황이었거든.
지금은 강 대학생이야. 무슨 관리 받아?
지민 (웃으며)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여친구1 기집애. 서로 정보 공유하며 살자.. 비결이 뭔데? 시술? .. 아님 사..랑??
지민 ㅋㅋ.. 사랑은 배신하지만, 내 커리어는 배신 안 해. 절대~~
친구들 (다들 고개 끄덕이며 술 마신다) ..
지민 (술 마시며) 굳이 비결이 있다면... (씨익) 정*규*직?
여친구2 (한숨) 하긴.. 속이 편해야 겠도 윤이 나지. (술 마시며) 언제 되냐.. 정규직?
여친구1 사랑도 정규직도 포기한 지 오래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술 들이킨다)
남친구1 (안주 먹으며) 정규직 돼봐야 별것 없어. 일만 잔뜩이고. 책임도 무진장이라니까.

지민과 친구들이 휘릭 쏘아보자, 얼른 시선 피하며 술 마시는 남친구1.

지민 꼭 저렇게 말하는 인간이 갑질한다니까. 저 봐. 눈치 없이 안주 밝히는 거!!
너 정규직 맞지? 술값 내. (술잔 들며) 나도 쏘 테니까~

환하게 웃는 지민, 친구들과 흥겹게 술잔을 부딪치고, 그러다 순간 멈칫한다.
보면, 고급스런 정장 차림에 사람 좋아 보이는 용훈이가 지민을 보며 당황해한다.
그런 용훈을 보며 미소가 번지는 지민.

15. 전철역 앞 - 밤

미니 샤넬 백을 든 지민이 전철역 입구로 향한다.
그때 “지민아!!” 고개 돌리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는 용훈.

용훈 ..헉헉.. 다행이다. 못 볼 줄 알았는데.. 잘.. 지내?
지민 덕분에~
용훈 보기 좋아 보여. 계속 얼굴 한 번 본다는 게..
지민 바쁘잖아. 다들~
용훈 .. 너랑 연락 끊긴 거.. .. 그거..
지민 (말 끊으며) 넌!! 언론사 붙었고, 난 아주 개바닥이었으니까~
용훈 그땐 진짜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미..안..
지민 미안은 무슨~ 변호 차단은 내가 먼저 한 건데.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용훈 (명함 꺼내며) 그래도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지민 (명함 보며) 기자님이시니까 당연하겠지.
(미소) 니네 가족들이나 신경 써. 과거는 철 지난 사치품이라잖아~

명함을 구겨 바닥에 던지더니 기분 좋게 샤넬 백을 둘러매는 지민, 전철역 입구로 걸어간다.

16. 안나푸르나 빙벽 - 새벽

'휘잉-' 칼날 같은 바람 소리와 함께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깎아 지른 거대한 빙벽에서 아이스바일을 꼭 움켜쥔 지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발 한발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마침내 정상을 눈앞에 둔 지민, 손이 닿기에 멀어 보인다.

연신 호흡을 가다듬다 온 힘을 다해 점프하는데,

‘아악!!!’ 까마득한 빙벽에 몸이 부딪치고, 튕겨 나가며, 끝없이 아래로 내려쫓히는 지민.

‘STOP!!’ 순간, 공중에서 멈추는 지민, 눈앞에 붉은 점수가 뜬다. “97 POINT!”

곧, 주위가 빙벽 맨 아래 출발점으로 변하고, 연신 숨을 몰아쉬는 지민.

(소리) 쿵쿵.. 죽었더 깨어나도 클리어 못 한다니까~

빙벽 밑 대기자 중에서 심술 맞아 보이는 힙합 10대 소년 코난이 히죽거리며 다가온다.

코난 그러니까 레벨 디자인을 이따위로 하지. 직접 올라가는 게 더 쉬울지 몰라~

지민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게.

코난 어떻게?

지민 (네팔 비행기표와 안나푸르나 등반코스를 보여주며) 미래정보의 마지막 임무~

코난 뭐야? 안나푸르나에 가? 진짜?? 짤순이 이지민이 어쩔?!

지민 휴가 갔다 오면 본사 출근이거든.

코난 헐.. 정규직? 예반데.

지민 내가 올릴 안나푸르나나 감상하시지~ 불법 스팸 그딴 거 팔지 말고!!

코난 손 뺐다니까!!

지민 괜히 걸려서 나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아냐. 지금 털어줘?

코난 성질머리하곤... 가서 콧 얼어 죽어버려라.

투덜거리며 안나푸르나 빙벽 스테이지에서 나가버리는 코난.

그때 귀여운 곰 모자에 배낭 멘 여중생 레인(14)이 다가온다.

레인 진짜 가요? 안나푸르나??

지민 정상에서 초대할게.

레인 그 기능 유료라 안 되는데..

지민 우회 방법 있지~

레인 정말요?!

지민 중학생이 암벽 클라이밍이 뭐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레인 헤헤~~ 산 좋아했던 아빠 덕분이죠. 언니는요?

지민 (씹씹하게 웃으며) 안나푸르나 가는 게 소원인 사람 있거든.
나 없는 동안 코난 자식 물 흐르면 바로 강퇴 신고해.

레인 (손 흔들며 사라진다) 언니도 몸조심하고요. 안라푸르나에서 꼭 초대하גיע요~

그때 폰 소리와 함께 지민 시야로 전화번호가 뜨고, 또 ‘애물단지’다.

한숨을 내쉬는 지민, 손으로 스와이핑 하면, 새하얀 안나푸르나 빙벽이 스르르 변하는데...

17. 지민 방 - 밤

방 안에는 여행 갈 물품들과 ECD(서바이벌) 키트, 노란 여행용 트렁크가 보이고.

힘 빠진 채 VR 글래스를 벗는 지민.

계속 울리는 전화 소리에 얼굴 찌푸리더니 폰 앱을 켜고 방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다.

앱 트레이너 소리와 함께 통화버튼을 누르고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지민.

그런 지민 옆에서 기지개를 주욱 펴며 어슬렁거리는 검은 고양이.

지민 (팔굽혀 펴기 하며) 저녁은?

애물단지 (소리) 맛 없어..

지민 맛으로 먹냐?! 헉! 헉!

애물단지 (소리) 죽기밖에 더 해?

지민 아.. 킹 받게.. .. 누구 때문에.. 개고생하는데!!

‘넥스트 레벨!’이라는 앱 소리에, 이번엔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지민.

얼굴이 시뻘게지고 땀이 맺히지만, 이 악물고 물구나무 팔굽혀 펴기를 한다.

지민 헉!헉!! .. 내일 출장 가. 해외로.

애물단지 (소리) .. 위.험.해..

지민 이번에 안 가면 진짜 회사 찢려.

애물단지 (소리) 후욱!.. 후욱!

지민 (눈치 보며) .. 듣고 있는 거야?!

애물단지 (소리) 대신 약속해.

지민 당연하지. 내 훈련 기록 전송되잖아~

애물단지 (소리) (거친 숨소리) 후!.. 후!.. 50% 남았어.

이번엔 손가락으로 물구나무 팔굽혀 펴기를 하는 지민, 몸과 얼굴은 부들부들 떨리지만,

샤넬 미니 백과 여행용 트렁크를 보며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18. 인천 공항 안 - 아침

‘스르륵~’ 경쾌하게 굴러가는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

샤넬 미니 백을 어깨에 메고 흥얼거리며 걸어가는 지민, 회사 블록체인 단톡을 연다.

‘갔다 올게요~’ 메시지 보내려다, 지우는 지민.

가벼운 발걸음으로 항공사 카운트로 향하고, 공항 TV 앞에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UN 연단에서 격앙된 얼굴로 발언하고 있는 인민북 차림의 북한 외무성 김용호(52).

‘평양 상공 남측에서 남조선 무인기 격추!! UN 안보리 긴급소집 요구!!’

TV를 보던 지민, 북한 외무성 발표에 ‘재들 또 왜 저래..’ 라는 표정으로 심드렁해하고,

사람들도 별일 아니라는 듯 흠어지는데, 그때 폰 울린다. 또 ‘애물단지’!!

지민 (목소리 최대한 밝게) 좋은 아침~

애물단지 (소리) 안 되겠어. 도저히..

지민 (짜증) 또 왜...

애물단지 (소리) 위험해.

지민 하....

애물단지 (소리) 세상이 위험해.

지민 (짜증) 그럼.. 가지 마? 회사 짤리면 병원비는?!

애물단지 (소리) 필요없다 그랬잖아.

지민 개미친!! 매일 야근에 남들 쉬는 휴일에도 쥐꼬리만 한 수당 챙기느라
개고생했는데.. 뭐?! 필요 없어?? 그럼 당장 나가 죽든가. .. 알아서..

그때 ‘쿵!!’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는 지민.

몸이 휘청대지만, 새로 산 샤넬 백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가까스로 버틴다.

그 바람에 지민 물건들이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강안.

지민 (죽일 듯 쏘아보며) 저런 히별 놈이...

씩씩대다, 사방으로 널브러진 물건들을 챙겨 트렁크에 담는 지민.

그러다 멈칫!! 화려하게 치장했던 네일이 푹 부러져 있다.

그때 또 걸여오는 애물단지 전화!!

헛웃음 짓는 지민, ‘아악!!!!’ 비명을 내지르며 신경질적으로 폰을 꺼버린다.

19. 공항 게이트 - 오전

‘헉! 헉!!’ 미니 샤넬 백을 멘 채 출국 게이트로 달려오는 지민.

티켓팅을 마무리하던 항공사 직원이 미소 짓는다.

여직원 마지막 승객이시네요~ 티켓 확인할까요?

거센 숨을 몰아쉬던 지민,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민을 가로막는 공항 출입국 남직원.

남직원 이지민씨 되시죠?

20. 공항 터미널 복도 - 오전

지민의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오는 남직원,
손에 노란 액체가 든 플라스틱 병이 들려져 있다.

남직원 (트렁크 건네며) 방송, 전화 수십 번 했거든요. 기내 반입 금지 물건이 발견되어서요.
지민 나 아니라니까요!! .. 맞아.. 아까 어떤 남자랑 부딪친 적 있거든요. 그때 섞였나 봐요.
남직원 (단호) 1급 인화성 물질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공항 보안 기준이 강화되어서요. 다시 티켓팅하셔야 될 겁니다.

남직원이 떠나자, 허망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민.
창문 너머 활주로에 있던 여객기가 빠른 속도로 하늘로 치솟고.
폰을 켜면, 주르륵 떠오르는 수신 기록들. 공항 전화와 수십 개 ‘애물단지’ 전화번호다!!

21. 요양원 병실 밖 - 오후

전기 기사가 물에 젖어 까맣게 타버린 전기 배전반을 들고 툄툄거리며 나온다.
화난 얼굴로 지민 앞에 차트를 보여주는 간호사.

간호사 환자는 난리지. 보호자는 전화 안 받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증말..
지민 (고개 숙인다) ..
간호사 그리고, 전기랑 무슨 원수졌어요? 맨날 배전판은 왜 건드는데? 물은 또 왜?!
감전돼서 다 죽을 뻔했다구요!!
지민 (짜증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
간호사 거동이라도 못하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힘은 또 얼마나 장사인지.. 아시죠?!
지민 (헛웃음) 그러게요.. 못 움직이든지, 의식이 없든지 그래야 되는데..
(힐긋) 약이든, 주사든.. 어떻게 좀 해줘요.
간호사 (움찔) 네에..?!
지민 아냐.. 그냥 사망 처리 안 되나?
저 인간 때문에 혀 꼭 깨물고 죽을 생각 하거든요. 매일매일요!!

지민의 표독함에 병찔 간호사, 그때 병실 안에서 우당탕 물건 부서지는 소리 들린다.

22. 요양원 병실 - 오전

기름진 머리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환자복 입은 상호가 병실 물건을 내던지고 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일상인 듯 치우는 지민.

지민 열 일 한다. 열 일 해~
 상호 (계속 물건 던진다) !!
 지민 (주으며) 그래.. 이참에 다 부셔라. 아주 전부!!
 상호 (지민을 팔로 내리치며) 위험해! 위험하다구!! 위험하다니까!!!
 지민 (팔을 짹 잡고 쏘아보며) 안 된다 했지. 폭력은. 절대!!
 상호 (발작하듯 뿌리치며) 악! 악!! 악!!!
 지민 (쏘아보던 눈빛이 점점 흔들린다) ..이러지 마. .. 여기 쫓겨나면 진짜 갈 데 없어.
 제발.. 나 좀 봐줘라. .. 오빠..

죽일 듯 위협하는 상호 팔을 가까스로 붙잡고 있는 지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23. 요양원 밖 - 오후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를 끌며 힘없이 나오는 지민.
 폰 연락처를 열어보고, 최근에 통화 목록에는 ‘애물단지’뿐이다.
 한숨을 내쉬며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지민,
 계좌 2곳에 미래 정보 381,647,580원과 국가보훈처 50,000,000원이 찍혀 있다.

지민 .. 휴가는 개뿔... (샤넬 백 보며) 환불 될까? 어찌냐..

24. 회사 복귀 몽타쥬 - 오후

- 덜컥거리는 전철 좌석에서 졸고 있는 지민,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 깨더니 후다닥 내린다.
 - 힘 빠진 채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걸어가는 지민, 미래정보 건물을 바라본다.
 - 뒤통뒤통 트렁크를 끌며 지하 계단으로 향하는 지민과 힐끗 쳐다보는 주위 사람들.
 - ‘미래정보’ 문 앞에서 CCTV 보며 장난스럽게 이리저리 얼굴 보이며 들어가는 지민.
 이내 다시 나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지민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소리) 에이.. 뭔가 착오가 있겠지~

25. 지하 미래정보 앞/안 -오후

당황한 지민과 함께 미래정보로 들어오는 수위, 눈이 커지더니 주변을 둘러본다.
 보면, ‘미래정보’가 사라졌다. 티끌 하나 없이!!

26. 미래정보 빌딩 로비/빌딩 앞 -오후

지하 계단으로 올라오는 지민과 수위.

수위 휴가 간 사이에 이사 갔겠지. 그런 적 있거든. 전화해 봐.

지민 (답답) 연락처 없어요.

수위 연락처가 없다니? .. (의심의 눈빛) 회사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남?!

지민 (더 답답하다) 아.. 우리 사무실은 그렇다니까요..

폰으로 회사 단톡을 다시 확인하는 지민, 발걸음을 멈추고.

분명, 아침에 확인했던 미래정보 단톡이 사라졌다.

그때 지민 폰에 뜨는 메시지!!

메시지
제로 데이

지민 (멈칫) ..제로.. 데이??

.. 뭐지.. 이게?? 메시지 다시 확인하면, 발신자 제한 번호다!!

순간,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는 지민.

그제야 시야에 들어오는 수상쩍은 움직임들.

건물에 들어올 때부터 힐긋힐긋 보던 사내들이 보이고,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이어폰 낀 두 남자.

건물 앞 자동차에서는 누군가 지민을 지켜보고 있다.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지민.

지민 (눈이 점점 커지며) .. 제로 데이.. 제로 데이..

순간, 트렁크를 끌고 달리기 시작하는 지민.

동시에 주위에 있던 사내들도 일제히 쫓기 시작한다.

27. 도심 도로 - 오후

이 악물고 여행용 트렁크를 끌며 도망치는 지민, 목에 맨 샤넬 백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뒤쫓아오던 이어폰 사내들 손아귀가 닿을 것만 같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여행용 트렁크를 확 밀어버리는 지민.

‘우당탕!!’ 트렁크와 함께 뒤쫓던 사내들이 나자빠진다.

샤넬 미니 백을 가슴에 품고 도로로 뛰어드는 지민.

‘끼익!!’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치던 자동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그 자동차 본넷을 파쿠르로 뛰어넘어가는 지민.

뒤쫓던 사내들, 지나가던 자동차에 치이고 부딪혀 도로가 난장판으로 변한다.

28. 도심 골목 - 오후

가슴이 터져라 달리는 지민. 그 뒤를 바짝 뒤쫓는 사내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지민 앞에 두 갈래 골목길이 보이는데, 그때 울리는 폰, 메시지 확인하면,

메시지
왼쪽 길 막혔어. 오른쪽!!

달려가던 지민, 양쪽을 번갈아 보더니 몸을 확 틀어 왼쪽으로 뛰어 들어가다 멈칫!!

지민 헉..헉.. 존망이네..

지민 앞에 키 3배 정도의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

뒤따라오던 사내들, 숨을 세차게 몰아쉬더니 다가오고.

입술을 깨무는 지민, 막혀있는 높은 벽을 향해 내달린다.

그런 지민을 보며 황당해하는 사내들.

순간, ‘탁!’ 벽을 차고 올라가는 지민, ‘획!’ 몸을 솟구쳐 손가락으로 간신히 벽을 붙잡는데..., ‘아악!!’ 벽에서 주르륵 미끄러지는데 손 끝으로 간신히 벽 중간에 매달린다.

필사적으로 바둥거리는 지민, 그 발을 낚아채려는 사내들.

이 악문 지민,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리고, ‘꽉!!’ 구조물 끝을 아슬아슬하게 붙잡더니,

그 반동으로 암벽 등반하듯 도약해 가까스로 정상에 선 뒤 벽 너머로 사라진다.

멍하게 바라보는 사내들, 황급히 다른 방향으로 뒤쫓는다.

29. 근처 도로 자동차 - 오후

도망치는 지민과 뒤쫓는 사내들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누군가.

공항에서 지민과 부딪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던 강안이다.

30. 국정원 내 SCIF(특수 정보시설) - 오후

- 국정원 지하 깊은 곳, 중무장한 경비들이 전파 차단 외벽의 두터운 SCIF를 지키고 있다.

‘째깍. 째깍.’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오고,

고가의 바쉐론 시계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리는 국정원 상황실장 장대환(45).

그때 “덜컹!!” 문 열리며 반백의 국정원 3차장(57)과

흐트러짐 하나 없는 검찰국장 연옥(45)이 들어온다.

얼른 일어나는 대환, 3차장 앞에 자료를 놓아주며 브리핑하는데...

3차장 (손으로 저지) 됐고. 솔루션부터!!
대환 .. 현재 사이버 범죄자를 중심으로 조사 중인데..
3차장 ('퍽!!' 조인트 까며) 아직 못 찾았다 말이지?
(또 까며) 회사가 동네 PC방이야?! (계속 까며) 메인 서버가 뚫리게??!!
대환 (쩔뚝 찢뚝) ... 이번 상황이 워낙 변수가 많고 예외적이라...
3차장 지금 회사 사정 알제? 탈 나면 바로 낙동강 오리알 돼 뻘다!
대환 (얼굴 찡그린다).
3차장 분명히 뒷배 있어. 찾아. 무조건!!
(나가며) 올해 삼재가 끼었다카드만.. 굿이라도 해야지..
연옥 (막으며) 나가시기 전에 처리할 게 있습니다.
3차장 하... 회사가 털렸는데 더 급한 게 있다고?!
(물 마시며) 와? 북에서 핵이라도 쏜다 카더나?
대환 (연옥 보며 고개 끄덕) ..
연옥 (담담) 벽서가 유출됐습니다.
3차장 (물이 목에 콕!!) .. 켜..켄.. 뭐라꼬? .. 지금 벽서라 켜나??!!

하얗게 질리는 3차장,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31. 유럽 고성 복도 - 밤

유럽 고성 위에 까마득히 솟은 탑이 보인다.
끝없이 위로 이어진 어두운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는 백팩 멘 여중생 레인. (15썸 안나푸르나).
탑 꼭대기 거대한 석문 앞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옷을 가다듬는다.

32. 고성 원탁 회의실 - 밤

고풍스러운 석재로 만들어진 천장이 높은 회의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커다란 대리석 원탁에 5인의 기사들이 앉아 있다.
미소년(원탁5), 카리스마 중년 기사 (원탁4), 요염한 마녀(원탁3), 근육질 전사(원탁2),
흰 수염 현자 노인(원탁1), 그 위용 하나하나가 압도적이다.
그들 앞에 신기루처럼 떠 있는 홀로그램, 빌딩에서 자살한 대선 후보다.

원탁1 (위엄) 유력 대선 후보가.. 사망했습니다.
원탁4 (현장 사진을 확인하며) 교장교장해서 더 버틸 줄 알았는데.. 싱겁게 가버렸어~
원탁3 개미친!! 대선 후보 선언식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 깜놀했다니까~
원탁4 (검지로 자료 텅기며) 사돈집은 국세청 세무조사. 아들과 마누라는 검찰 수사.
게다가 후끈한 여중생 동영상까지.. 연일 방송에서 후벼팔 텐데 무슨 수로 버텨?!
원탁5 .. 그 여중생 동영상은... 괜찮겠습니까?

원탁3 (여중생 동영상을 리플레이하며) 팩트 한 조각에 MSG 쳐서 이슈 만들어내면, 세상은 내편니편 찢어져 난장판 돼요. SNS에서 몸 팔던 여자애인데.. 팩트니 진실이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살한 대선후보 사진을 보며) 게다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원탁2 우리 말귀를 못알아 처먹었으니 뉘칠 수밖에.

원탁1 (대선후보들 사진을 보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겁니다.

허공에 뜬 대선 후보들을 보며 미소가 번지는 기사들.
그때 ‘끼익!!’ 거대한 석문이 열리고,
단 위 5인의 기사 앞으로 다가가는 레인, 고개 숙여 무릎 꿇는다.

원탁5 (쏘아보며) 우릴 보자고 했다면? 솔져 따위가..
원탁3 별 게 없으면 네 몸 한 쪼가리는 내놔야 할 거야~ ㅋㅋ..
원탁4 뭐야? 도대체?!

레인 (고개 숙인 채) ..벽서 파일이 나왔습니다.

순간, 기사들 눈빛이 크게 흔들리고, 원탁1은 레인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원탁3 ..벽서.. 라고 했나?!

원탁4 벽서라면..., 그렇게 손에 넣으려고 했던 그 절대 반지 말이야?!

레인 (고개 조아린다) !!

원탁3 와우!! 완전 폐기된 줄 알았는데...여태껏 투자한 보람이 있네~ 언제 봐?

레인 곧..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원탁4 벽서만 있으면 시건방 떨던 것들 목 줄을 단번에 잡아챌 수 있어요.

원탁5 내 말이. 세상이 너무 해이해졌어. 이참에 흐트러진 질서를 다 잡아야 합니다!!

말없이 레인을 지켜보는 원탁1, 다른 기사들이 그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기다린다.

원탁1 (레인을 내려다보며) .. LJ1497.

레인 (더 조아리며) LJ1497!!

원탁1 씨드9의 킹께서 주목하고 계셔.

‘씨드9의 킹’이라는 말에 멈칫하는 기사들. 레인은 바닥 끝까지 고개 숙인다.

원탁1 무조건 손에 넣어. 네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레인 (바닥까지 머리 숙이며) OBOEDIO(복종하겠습니다)!!

레인의 결기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시에 스르르 사라지는 원탁의 기사들.
단 위 빈 원탁을 올려다보는 레인, 탐욕스러운 눈빛이 꿈틀거린다.

33. 서버실

어두운 붉은 조명 아래 그 어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간이 정지된 곳.
순간, 어둠 속에서 수많은 서버 점멸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다가 멈추고, 다시 깜빡거린다.
뭔가를 주고받는 것처럼 서버들끼리 빠르게 점멸하더니 멈추는데...
곧, 가운데 서버에서 눈을 떠듯 번득이는 붉은 렌즈, 모든 서버들이 미친 듯 돌아가기 시작한다.

34. 지하철 - 저녁

혼란스러운 얼굴로 '제로 데이' 메시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지민.
덜컹거리는 전철 소리와 함께 이전 기억이 치고 들어온다.

(F.B.)

사무실에서 치맥하는 지민과 미래정보 사람들.

오부장 (얼굴이 벌겋다) 나 때는 말이야!! 일본일초를 아껴가며 이 나라를 지켜왔어!
근데 요즘은 전부 지들이 최우선이야. 이러니 대한민국이 위기지!!
지민 (술 마시며) 위기는 부장님이죠. 동기들은 다들 본사 국장 자리 다 꿰찼다면서요~
오부장 (울컥) 책상 위에서 펜대나 굴리던 놈들이 뭘 안다고..
(안경을 민머리 위로 올리며) 니들도 내 꼬라지 안 당하려면 잘 들어!!
사람들 (오부장을 힐긋 본다) ..
오부장 폰에 이 메시지 뜨면.. 무조건 잠수 타!!
두남 ..뭘..대요.. 그제..?!
오부장 (술 마신 뒤 비장하게 팀원들을 보며) .. 제로.. 데이..
상일 ..제로.. 데이라면..
지민 보안.. 취약점요..??
오부장 (고개 저으며) 아니.. .. 본사 비상 코드 네임!!

이전과 달리 진지해진 오부장을 보며 지민과 사람들 긴장한다.

오부장 (팀원들 얼굴 보며) 제로 데이 뜨면.. 모든 흔적 다 지우고 도망쳐.
폰, 카드, 메일, 특히 회사와 관계된 건 절대 접촉 금지!!
미리 (목소리 흔들리며)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오부장 구원자가 찾아갈 거야.
지민 (움찔) 구..원자??!!
오부장 본사 특수전 지원팀.. 유일한 희망이야.
구원자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믿어선 안 돼. 명심해!!

부장의 경고에 술잔을 든 채 얼어붙은 지민과 팀원들, 숨소리마저 안 들린다..

오부장 푸하하~ 졸았지?! (술 들이키며) 카~~ 제로 데이는 무슨~
우리같이 모의 해킹이나 하는 혈령한 지사는 상관없거든~
사람들 (여전히 굳은 얼굴) ..

오부장 걱정말라니까~ 미래 정보는요.. 제로 데이 100퍼 안 떠! 절대!! 네버!!

덜컥거리는 전철 소리와 함께 제로 데이 메시지를 보던 지민, 얼굴이 더 어두워지고.
전철 문이 열리자, 폰에서 꺼낸 유심칩을 바닥에 버리고 빠르게 내린다.

35. PC방 - 밤

PC방 구석진 진 곳에서 우회접속으로 다크웹에 접속하는 지민.
그동안 모의 해킹 자료를 피드백했던 미래정보 서버로 들어가다 움찔!! .. 접속이 안 된다.

지민 ..뭐지.. 이게?!

다른 우회접속으로 미래정보 서버를 미친 듯 찾는 지민,
하지만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만 뜬다.
..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당황해하던 지민, 구글 포토에 접속한 뒤, 날짜를 찾아 사진 한 장을 다운받는데...

늦은 새벽, 장난스럽게 맥주캔을 든 지민과 미리 사진이 보이고.
그 사진을 확대하자, 지민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오피스텔 이름!!

36. 트레비 오피스텔 - 밤

- 사진에 찍혀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지민.
- 주위를 살피며 우편함을 뒤지는 지민, 미리 집을 찾아낸다.
- 오피스텔 문틈으로 안을 확인하지만, 불이 꺼져 있다.
- 미리 인스타를 검색하고, 부계정까지 살피며 오피스텔을 나오는 지민.
그때 들어오던 후드와 마주치자, 황급히 도망치는 후드!!

37. 근처 도로 - 밤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후드와 그 뒤를 쫓는 지민.
결국 지민에게 따라 잡히고, 벽에 와락 밀어붙여지는 후드, 겁에 질린 미리다.

미리 ..여길 오면 어떡해요?!

지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미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망쳐야 돼요!! 제로 데이.. 땀잡아요!!

지민 부장님은?

미리 ..안 돼요. 연락..

지민 그럼.. 준..서는?

미리 (고개 저으며) 사라졌어요. 미래 정보랑 관계된 건 모두 다요.. 우리도 위험해요..

두려움에 떠는 미리를 보며 혼란스러운 지민, 눈빛이 표독스러워지더니 손 내민다.

미리 ..뭘요?!

지민 회사 비상 라인!

미리 .. 그게 무..슨??

지민 본사 호출 라인 있잖아!!

미리 (고개 흔들며) 없어요!!

지민 (폰에 술 마시던 사진 보여 주며) 이때 그랬잖아. 부장님 것 복사해 났다면서!!

미리 (공포에 질려하다 와락 밀치며) 없다니까. 진짜!!

지민, 미리 옷을 뒤져 폰을 꺼내더니 안면인식으로 잠금을 풀고 사진을 찍는다. ‘찰각! 찰각!’

미리 ..뭐.. 뭐 하는 건데..??

지민 (미리 인스타 열며) 여기 올리게. 무슨 일이 일어 나는 지 두고 보자고..

미리 (지민 손 붙잡으며) .. 아..안 돼. .. 하지마요!! 제발요..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지민, 어쩔 수 없다는 듯 미리가 비상 카드를 꺼낸다.

비상 카드를 낚아채듯 빼앗아 확인하는 지민.

미리 (목소리 떨리며) 회사 구조 조정이 시작됐나 봐요..

지민 ..구조.. 조정?!

미리 ..두남 씨가 그랬거든요.. 겁에 질려 구조조정 횡설수설하다 언니 연락되냐고?

지민 .. 그래서?!

미리 모른다니까 다시 전화한댔는데... 연락이.. 어떡하죠.. 우리? 진짜.. 구원자가 올까요?

지민 (멈칫) 그래.. .. 구..원자..

미리 본사 지원팀요. 제로 데이 뜨면 구원자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장님이..

아무도 믿지 말고 구원자만 믿으라고..

그때, ‘부웅!!’ 엔진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를 번득이며 돌진해 오는 검은 SUV!!

순간 와락 지민을 밀치는 미리, 길바닥에 지민이 쓰러지고.

공포에 질린 미리. 주춤주춤 주위를 살피다 도망치는데..,

쓰러진 지민을 향해 달려오는 검은 SUV!!

당황한 지민, 이 악물고 몸을 굴리자 거친 타이어가 지민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순간 ‘우썹!!’ 파열음과 함께 어둠 너머로 빠르게 사라지는 검은 SUV!!

보면, 길바닥에 널브러진 미리, 목과 허리가 꺾여져 진 채 피로 물들어 있다.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지민!!

지민 (얼어붙은 채) ..제로.. 데이..

38. 신호등 건널목 - 밤

신호를 기다리는 인파 속 상일이가 주위를 살피며 신호 바뀌기를 기다린다.
신호가 바뀌자 정차한 차들을 주시하며 허겁지겁 건널목을 건너가고.
‘턱!’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지만, 황급히 걸어가다 획 뒤돌아보는데...
순간, 길바닥에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키는 상일.
신호를 기다리던 자동차들이 클랙션을 요란하게 울려댄다.

39. 항구 - 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사내가 어둠 속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그때 폰으로 사진이 전송되고, 사진을 확인하는 모자 쓴 사내.
바로 앞에 정박해 있는 고기잡이 배다.
주위를 살피는 모자 쓴 사내, 두려움으로 가득한 오부장이다.

배에 올라탄 오부장,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다 불 꺼진 선장실로 들어가고.
어둠 속에서 ‘푸슉! 푸슉!’ 섬광이 번쩍이고, 다시 고요해진다.

곧, 어두운 바다 너머로 조용히 사라지는 고기잡이 배.

40. 상가 화장실 - 밤

‘짜아!!’ 흐르는 물로 피를 닦아내는 지민, 거울 앞에서 엉망진창이 된 자신을 멍하게 바라본다.
하루 사이에 ‘미래정보’가 사라졌고, 동료들까지 죽었다.

떨리는 손으로 폰 유심칩을 교체하고, 비상 호출 카드 보안 문자를 입력한 뒤 메시지를 보낸다.
폰을 뚫어지게 지켜보던 지민, 몸이 점점 떨려오고, 고개 숙이다 멈칫!!
샤넬 미니 백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두남이가 준 네팔 맛집 리스트다!!

41. 도심 거리 - 밤

캡 모자를 쓴 덩치가 CCTV를 피해가며 빠르게 걷고 있다.
폰으로 여행 매니아 사이트를 확인하다, 게시물에 답글을 올리는데...
“교환 가능!! 지금 당장요!!”
캡 모자를 쓴 덩치,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남이다!!

42. 도심 뒷골목 - 밤

캡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두남,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저쪽 편에서 20대 초반의 여자가 다가온다.

여자 (두남 보며) ..당근?
두남 (주위를 살피며) 비행기 티켓,, 오늘 밤 확실한 거죠?
여자 ..아.. 그게요..
두남 (멈칫) ???!!
여자 아이씨... 이거 알바거든요. ..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이상한 거래.. 아니죠?

눈빛이 흔들리던 두남, 여자를 와락 밀치더니 도망치고.

43. 도심 외곽 - 밤

사람들을 밀치며 정신없이 달리는 두만, 겁먹은 게 역력한 모습이다.
그 뒤를 쫓는 누군가, 지민이다.
달려 나가던 두만, 문 닫은 시장 골목길로 빠르게 들어간다.

44. 시장 골목길 - 밤

뒤쫓아 들어온 지민, 어둠 속에 두남이가 보이지 않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순간 우악스러운 힘에 떠밀려 가게 철문에 처박히는 지민.
어둠 속에서 후드 쓴 두남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민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일어나며) .. 나야. 이지민. .. 본사 구조 조정 한다며?!
두남 (노려보다 히죽) 미리.. 개는 입이 참 싸.
여행 사이트에 부스러기 던져 놓으면 찾아낼 줄 알았지~
지민 .. 너.. 설마..
두남 (손 내밀며) 내 놔. 전리품!!
지민 ..뭐..?!
두남 (다가서며) 이전에 혼자 있을 때 회사 컴퓨터 다 열어봤거든.
멀티 부팅에 암호까지 푼 숨겨 놓았던단~
지민 (주춤주춤 뒤로 물러난다) 무슨.. 소리야?
두남 (더 다가서며) 그거 회사 규칙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내 놔라구. 전리품 말이야!!

뒤로 물러나던 지민, 벽을 박차고 두남을 지나쳐 획 넘어간다.
하지만 지민 다리를 확 잡아채더니 벽에 내던지는 두남.
‘와장창!!’ 박스 더미에 나뒹구는 지민, 극심한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
성큼성큼 다가가 두 손으로 지민 목을 확 조르는 두남!!

두남 (눈이 희번득) 전리품 어딴어??!!
지민 (두남 손을 뿌리치지만 꿈쩍도 안한다) 킁..킁.. 잠..잠깐..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킁..킁.. 회사도...
두남 (피식) 우리?! 언제나 지 멋대로에다.. 다른 사람 생각은 쥐뿔도 없으면서!!

두남 손에 숨이 막혀가는 지민, 발버둥치다 옆에 있던 병으로 두남 머리를 내려치고,
‘퍽!!’ 머리에 피가 주르륵 흐르는 두남, 하지만 광기에 찬 눈으로 지민 목을 거세게 움켜쥐는다.

두남 전리품 속에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봐.. .. 씨발.. 살 놈은 살아야지!!

두남의 거친 손아귀에 점점 숨이 막혀가는 지민, 샤넬 백을 필사적으로 뒤적이고,
그런 지민을 비웃으며 지민 목을 미친 듯이 조르는 두남, 핏빛 눈빛으로 변하는데..
순간, ‘파직!!’ 시퍼런 스파크와 함께 몸을 부르르 떨더니 바닥에 꼬꾸라지는 두남과 지민!!
바닥에 쓰러진 채 꿈쩍도 않는다.
곧, ‘콜록! 콜록!!’ 숨을 들이쉬며 후다닥 일어서는 지민, 손에 전기 충격기가 들려있다.
두남도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지민 발이 더 빨랐다.
‘퍽! 퍽!! 퍽!!!’ 분노로 가득 찬 지민의 발길질에 몸이 축 늘어지는 두남.
그제야 두려움과 공포가 와락 몰려오는 지민, 믿기지 않는 듯 몸이 떨어져오고,
그때 울리는 폰!! 메시지를 보던 지민 눈빛이 확 커진다.

메시지
모든 접촉 일체 금지.
37.5020.977
구원자를 기다려라.

45. 도심 - 새벽

- 어슴푸레 날이 밝아오는 도심 뒷골목.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지민, 주위를 경계하며 폰에 찍힌 좌표를 확인하는데,
그때 메시지가 날아든다. 39.4604.654.

- 외진 도심 주차장으로 달려오는 지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또다시 뜨는 메시지!! 34.5662.972.

지민 .. 뭐야??!!

얼굴이 일그러진 지민, 다시 일어나 달린다.

- 문이 닫힌 도심 공사장.
거세게 숨을 몰아쉬며 뛰어 들어오는 지민, 폰을 확인하다 ‘킁! 킁!!’ 헛구역질을 연신 해댄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지민, 그때 어깨를 툭툭 치는 누군가!!
화들짝 뒤로 물러서며 방어 자세를 취하는 지민, 눈이 확 커지고.
그런 지민을 보며 환하게 웃는 남자, 미래정보의 막내, 준서다!!

46. 공사장 뒤쪽 - 새벽

빠르게 공사장을 빠져나가는 지민과 준서.

준서 진짜 괜찮아요? 다친 데 없는 거죠?!

지민 .. 내가 정말..

준서 (빙긋) 구원자 맞아요. 코드 네임이 좀 구리죠?

지민 다른 사람들은..?

준서 (고개 젓는다) ..

지민 회사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준서 선배.. .. 벽서 파일이라고 들어봤어요?

지민 .. 벽..서라면..??

준서 (고개 끄덕) 본사 기술국 3과에서 극비리에 수집했다던 그 자료요.

지민 이전 정부에서 전량 파기됐고 관련 팀도 전부 해체됐잖아!

준서 공식적으로는요. .. 하지만 누군가는 포기할 수 없었나 봐요.
세상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 반지니까요.

지민 ..그게 미래정보랑 왜??

준서 미래 정보가 벽서를 건들었나 봐요. 혹시 이상한 거 없었어요?

지민 (멈칫) 미래정보 서버가 사라졌어. 피드백 자료들 모두 다...

준서 (웃으며) 선배랑 나랑 힘 합치면 뭐라도 방법이 나오겠죠. 너무 걱정 마요~

지민 (얼굴 어두워진다) ..

준서 차 가지고 올 테니까 입구에서 봐요.
(가다 돌아보며) 선배 못 볼까 얼마나 가슴 졸였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47. 공사장 앞 - 새벽

주위를 살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민.
그때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 돌아보면, 날이 선 인상의 강안이다. 움찔.. 어디서 봤더라?!

(F.B)

- 공항에서 ‘쿵!!’ 지나가는 사내와 부딪치는 지민.
-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공항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사내!!

지민 .. 당신.. 공항.. 맞지??!!

순간, 빠르게 다가가 지민을 제압하는 강안.
얼른 몸을 빼는 지민,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붙잡힌다.

지민 ..누구야. 당신?!

강안 (무표정하게) 날 기다렸을텐데?

지민 (눈 커지며) ..구..원자?? .. 회사 사람이야?!

강안 그 회사가 국정원이라면.. 맞아.

지민 (분노) 지금 본사 구조 조정 중이라며? 미래 정보가 희생양인 된 거야?!

강안 회사가 재수 없긴 해. 그런데 이번엔 번지수가 틀렸어.

지민 웃기지마!! 대한민국에서 회사 말고 누가 미래정보를 없애?!

강안 .. 씨드9.

지민 ..씨..드9? 그게 뭔데?!

강안 (지민을 꿰뚫어 보려는 듯..) 미래정보를 만들었고, 지금은 폐기하려는 자들이지.

지민 (멈칫) 그게.. 회사가 아니라 씨드9이라고?! 웃기지 마!
날 노린 자들은 회사 사람이었어. 분명히!!

강안 당연하겠지. 씨드9은 어디든 있으니까.

지민 그럼.. 미래 정보를 없애고 날 노리는 이유가 뭐야?!

강안 (서늘) 질문이 잘못됐어. 미래정보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야지.

지민 뭐?!!

강안 나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 살고 싶으면 협조해.

강안을 쏘아보는 지민, 눈빛이 점점 흔들리는데,
그때, ‘부웅!!’ 소리와 함께 그대로 강안을 밀어버리는 자동차!!
‘쿵!!’ 충격음과 함께 도로 바닥에 나뒹구는 강안, 저만치 멈춘 자동차에서 문이 열린다.

준서 (다급하게 손 짓) 타요! 선배!! 빨리!!!

놀란 지민, 문이 열린 준서 자동차에 올라타는데,
순간, ‘탕!탕!!’ 지민이 타려던 자동차 문 쪽에 총탄이 연달아 박히고.
피 흘린 채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강안.
바짝 몸을 숙인 지민, 총 겨누는 강안과 차 안에서 손짓하는 준서를 번갈아 보는데...
그때 ‘부웅!!’ 굉음과 함께 주위로 몰려드는 검은 SUV들!!
준서와 강안을 번갈아 보며 갈등하는 지민,
둘 대신 한적한 뒷골목을 향해 죽으라 내달리는데...

준서 (사라지는 지민을 보며 헛웃음) 역시 선배~

‘탕! 탕!’ 운전석 앞에 총탄이 날아들고,
피 흘리며 다가오는 강안을 보며 웃더니 자동차를 급출발시키는 준서.
비틀되며 멀어지는 준서 차를 향해 총탄을 쏟아붓는 강안. ‘탕! 탕!! 탕!!!’
곧, 강안 주위로 빠르게 급정거하는 SUV 차량들!!

48. 빌딩 안 - 오전

- 빌딩 안 폐업한 상가 안에서 대형 은박지로 주변을 꼼꼼히 차단하는 지민.
 - 샤넬 미니백에서 자그마한 수신기를 꺼내 파워를 켜고, 붉은 LED가 신호를 탐색하며 반짝인다.
 -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들을 수신기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지민.
- 그러다 멈칫!! 상의 뒤쪽에 붙은 솜털같이 생긴 전자 장비가 보인다.

F.B.

- 차 안에서 지민에게 타라며 손짓하는 준서.
- 피 흘린 채 총을 쏘며 다가오는 강안.

혼란스러워하는 지민, GPS 장치를 발로 으깨고,
미리에게 받았던 비상 호출 라인을 꺼낸 뒤 서둘러 빌딩을 빠져나간다.

49. 국정원 상황실/도심 빌딩 - 저녁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 모니터로 가득 찬 국정원 상황실.
국정원 문양이 새겨진 머그잔으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대환과 모니터 체크 중인 요원들.
그때 보안장치가 된 전화가 울린다.

요원1 (전화 받으며) ..세기상사입니다.

지민 ..상..황실.. 맞죠?

요원1 (얼른 스위치 전환한 뒤 대환에게 수신호) 폐기된 비상 라인입니다!!

대환, 얼굴을 찌푸리며 손짓하자, 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대형 모니터에 뜬다.

요원1 어디.. 거셨나요?

지민 맞잖아요. 국정원 상황실!! ..약속 장소에 구원자가 둘 나왔어요.

요원1 구원자..라니요? 그게 무슨....

지민 구원자! 회사 긴급 구조팀!!

대환 (눈빛이 번득, 빠르게 수신호를 한다) !!

지민 (목소리 흔들리며) 제로 데이 뒀고... 미래정보가 사라졌어요..

곧,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미래정보’ 정보가 뜨고, 적색 라벨에 ‘1급 수사 붉은 마킹!!

대환 (이어폰 연결한다) 미래정보.. 테크노밸리에 있는 위치 추적 앱 개발사.

최근에.. 회사 방문한 적 있지?

지민 본사 모의해킹이 그날 미션이었으니까요. .. 피드백 보고서.. 올렸잖아요.

드디어 찾았다!! 주먹을 꼭 쥐는 대환.

곧, 상황실 모니터에 전화 가는 위치가 붉은 점으로 뜨고,
대환, 수신호 하자, 지도에 있던 파란 점들이 일제히 붉은 점으로 향한다.

-한쪽 모니터에 사복 차림의 국정원 추적팀 자동차들이 도로를 질주한다.

대환 (목소리 여유, 몸은 지시하느라 정신없다) 요즘 회사가 어수선해.
지민 .. 구조 조정.. 때문인가요?!

대환 (추적팀 위치 확인하며) 윗대가리들 삽질이 어제 오늘이야?
밑에서 뺨이치는 놈만 죽어나는 거지.

지민 우린.. 본사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대환 아.. 그 맘 잘 알지. 나도 지사부터 시작했거든.
문제 생기면 애꿎은 우리부터 쳐내잖아. .. 아주 더러운 세상이야.
이번 일 마무리 잘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책임져!!

지민 (흔들린다) ..

대환 미래 정보 피드백 보고서 보냈다고 했지? 지금 다시 보내.

지민 .. 그럼 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요원도요?

대환 날 믿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반드시!!

지민 (긴 한숨)휴우...

대환 더 늦으면 장담 못 해. 당장 보내. 빨리!!

지민 .. 싫은데.

대환 뭐?!!

지민 설명부터 들어야겠어요. 미래정보가 왜 버려졌는지.

짜증이 확 몰려오는 대환. 요원1을 보자, 손가락으로 3분을 가리킨다.
지민의 붉은 점 주위로 빠르게 몰려드는 파란 점들!!

대환 (거의 잡았다. 커피 마시며) 그래~ 우리 만나서 얘기해. 어디서 볼까?

지민 지금 열나게 오고 있을 거잖아~

대환 (커피 마시다 멈칫) 뭐래?! 누가..

지민 장대환. 국정원 상황실장. 45세. 그치?

대환 (시스템 점검하라며 미친 듯 손짓!!) 아... 일단 만나서 얘기해.

놀란 대환과 요원들, 시스템을 점검하고, 붉은 색 경고 램프가 깜빡인다!!

요원2 (시스템 점검하느라 정신없다) ..역해킹.. 당했습니다.

대환 아... 씨발..

지민 (분노) 미래정보도 이딴 식으로 처리했지?!

- 통화하는 지민, 노트북에 국정원 상황실 cctv 화면이 보이고,
시스템 점검 지시를 하느라 난리 난 대환과 요원들을 보고, 국정원 직원 파일을 검색한다.

지민 (대환 파일 확인하다 피식) 지사에서 비정규로 시작했다고 했지?
할아버지, 아버지, 삼대가 국정원 가족이야. 아주 성골 나셨어~ .. 개킹 받네..

대환 .. 긴 말 안 해. .. 넌.. 못 빠져나가. 절대. 살고 싶으면 협조해!!
지민 그래? 그럼 잘난 정규직께서 해보시지. 날 잡을 수 있나?

전화를 끊는 지민, 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건물 밖으로 던진다.

50. 국정원 상황실 - 저녁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지도 위 깜빡이던 붉은색 불빛이 사라진다.

요원1 (당황) .. 끝났습니다.
대환 (얼굴 찡글이며) 추적팀은?!
요원2 지금 현장 도착!!
대환 주변 cctv 모두 스캔해. 미래정보와 관련된 건 뭐든 긁어와.
(모니터에 떠 있는 지민 사진을 쏘아보며) 특히!! 개 미친 이지민!!

51. 빌딩/옆 빌딩 - 밤

빌딩 밑을 내려다보는 지민, 검은 SUV들이 속속 도착한다.
폰을 확인하는 지민, 현 빌딩과 옆 빌딩 위치, 거리(5.2m), 높이 차이(-1.5m), 풍속이 뜨고.
건너편 옆 빌딩을 훑어지게 바라보던 지민, 빠르게 달려가 난간을 박차고 몸을 날린다.
두 빌딩 사이를 가로지르며 건너가는 지민!!
옆 빌딩에 파쿠르로 굴러 멈추고, 곧바로 빌딩 밑으로 내려간다.

순간, 옥상 철제 출입구 열리고, 쏟아져 나오는 국정원 추적팀.
빌딩 옥상 위에서 사라진 지민을 찾느라 분주하다.

52. NOC(Non-Official Cover) 몽타쥬

- 한강 공원에서 운동하는 금테 안경을 낀 백인 남자 안드레이 (32).
지적인 외모와 명민한 인상이 IT 개발자 같다.
그때 스마트워치에 메시지 뜨고, 확인하면, 지민 사진과 정보 파일이 떠오른다.
- 서울 특급 호텔 라운지에서 고객 예약을 처리하고 있는 중국계 에밀리 찬(42).
유창한 중국어와 영어로 고객의 예약 상황을 능숙하게 체크하고 안내한다.
곧, 새 예약 상황이 폰에 뜨자, 옆 직원에게 얘기한 뒤 자리를 비우는 찬.
복도를 걸어가며 새 예약 상황을 확인하는데, 폰에 지민 사진과 관련 파일이 업로드된다.
- 용산 국제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과제를 아이패드로 평가 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월슨(37).
아이패드에 새로운 메시지가 뜬다. 비번을 누르고 확인하면,

최근에 찍힌 지민 사진들이 열린다.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월슨, 눈빛이 번뜩인다.

- 최고급 일식집 주방에서 횡감을 손질하는 다이치(52).
날이 잘 선 사시미칼로 능숙하게 회를 뜨는데, 새 예약 손님이 올라온다.
확인하면, 지민 사진과 관련 정보다
날 선 칼로 남은 횡감을 마무리하는 다이치.

53. 도로 - 오전

도심 도로를 질주하는 강안 자동차.
폰에 메시지 뜨고, 도로 한쪽에 자동차를 세워 모니터를 확인하는 강안.
지민과 상호 자료 파일이 화면에 뜬다.

이지민. 32세.

- 해킹 동아리 경쟁학교 서버를 디도스 공격으로 다운시켜 정학.
- 임무 도중 다친 오빠 보상금 불만으로 보훈처 해킹 시도.
- 국정원 응시, 최종 테스트에서 탈락.
- 7년간 국가 주요 기관들을 불법 해킹으로 자료 유출.
- 최근 국정원 서버를 침투해 존안 금고 접속 시도.

자료를 넘겨보던 강안, 동영상이 재생되자 손이 멈춘다.

- 국정원 극한 생존 테스트장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지민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검은 선글라스 쓴 교관이 무표정하게 지켜보는데, 강안이다.

동영상을 보던 강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다음 파일 열면,
건장한 군복을 입은 상호 사진이 뜬다.

이상호 43세.

- 이지민 오빠, 유일한 혈육.
- 707 특임대 출신으로 국외까지 알려졌던 생존술 전문가, 국정원 추적팀 교관 역임.
- '벽서 파일' 설계자 박정수 박사 경호 도중 사고로 퇴직.
- 이지민의 공단 해킹 시도로 국가 유공자 자격 박탈.

강안의 시선이 '박정수 박사'에 머물고, '벽서 파일'을 클릭한다.
'빠리!!' 경고음과 함께 'ACCESS DENIED' 보안 등급 자격 미달 메시지가 뜬다.

강안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벽서라..

다시 클릭해보지만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자 마지막 첨부된 사진을 여는데..

- 707 특임대 훈련장에서 휴과 땀으로 범벅인 어린 지민과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상호.
- 인수봉 암벽 로프에 아슬하게 매달린 중딩 지민과 위에서 지켜보는 상호의 진심 어린 눈빛.

무표정한 얼굴로 지민과 상호 사진을 보던 강안, 모니터를 끄고 자동차를 출발하려다 멈칫!!
도로 전광판에 일제히 광고가 떴다. 누군가 해킹이라도 한 듯.

“첫 휴가 여행을 망치게 한 이전 남자 친구를 찾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그때, 그곳에서, 당신의 미래가.”

54. 공항 몽타쥬 - 오전

자동차들 사이를 뚫고 질주하는 검은 SUV.
공항 청사 입구 앞에 '끼익!!' 소리와 함께 급정거하고.
문이 벌컥 열리고 뛰어나오는 강안, 공항 로비로 내달린다.
사람들을 헤치며 달려가더니 지민과 부딪혔던 곳에 도착하고.
그런데 지민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머리 위에서 번쩍이는 전광판!!

“그날 킹받던 기억이 떠올라 장소를 바꿀게.
많이 못 기다려. 10분.
37.394654 126.639333 ”

- 송도 컨벤시아 정문에 급정거하는 강안 자동차.
- 연신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강안, GPS를 확인하며 주위를 살피는데, 얼굴이 더 일그러진다.
강안 앞 전광판에 새 메시지가 떴다.

“이제야 확신이 들어.
우리 다시 시작해.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기다릴게.
37.381894 126.665488 ”

55. 초고층 빌딩 옥상 - 오전

‘꽝!!’ 옥상 문이 열리고, 소음기 단 권총을 겨누는 채 빠르게 들어서는 강안.
흐르는 땀과 거센 숨을 몰아쉬며 옥상 주위를 살피는데, 또 텅 비어있다.
땀에 젖은 자신을 보며 헛웃음 짓는 강안.

(소리) 에게.. 전남친 하기엔 약골이네~

멈칫하는 강안, 소리 나는 쪽으로 총구 돌리면,
강안 키 두 배쯤 높은 옆 빌딩 옥상에서 얼굴을 뺨뚫 비추는 지민.

강안 장난칠 처지 아닐 텐데?
 지민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뻘 뻘지게 일해왔어. 근데 회사는 사라졌고,
 팀원들은 죽거나 날 노리까지 해. 마침내 정규직 발령까지 났는데 말이야.
 이게 장난으로 보여?!!
 강안 살려면.. 가진 것 다 넘겨.
 지민 ㅋㅋ.. .. 이지민 어떡하나. 진짜 엄청난 걸 저질렀나봐~
 강안 시간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어. 이상호 교관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지민 ..오..뻘을 알아?
 강안 회사 추적팀 교관이었어. 명령보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지.

강안을 쏘아보던 지민, 눈빛이 흔들린다.

지민 너.. 구원자.. 맞아?!
 강안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
 지민 구원자. 유일한 희망.. 맞냐구? 이 망할 새끼야!!

흔들리는 지민을 지켜보던 강안, 갑자기 총을 겨누더니 ‘푸슉!! 푸슉!!’ 총을 쏘고.
 놀란 지민, 뒤돌아보면, 총 들고 다가서던 안드레이 가슴에 붉은 피가 번지며 쓰러진다.
 강안을 뒤돌아보는 지민. 건너편에 있던 강안이 몸을 구르고.
 순간, ‘푸슉슉슉!!!’ 강안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총탄들!!
 소음기 단 기관단총으로 연사를 하며 다가오는 국제교사 월슨.
 ‘푸슉슉슉!!!’ 환기구 뒤로 몸을 숨긴 강안에게 총탄이 내리꽂히고,
 탄창을 갈아 끼우는 월슨, 동시에 환기구 뒤에서 몸을 숨겨 총을 쏘는 강안.
 월슨 머리가 뒤로 꺾이며, ‘푸슈슉슉----’ 기관단총을 난사하며 쓰러지는데...
 황급히 일어서는 강안, 돌아보면, 건너편 빌딩에 있던 지민이 사라졌다.

56. 옆 빌딩 - 오후

- 지민, 심장이 터질 듯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쿵! 쿵! 쿵!’ 아래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얼른 비상문으로 빠져나간다.

- 빌딩 뒤 주차장으로 황급히 나가는 지민.
 그때 정장 원피스를 입은 중국계 첸,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지도를 들고 다가선다.

첸 (어눌한 한국어) 안..녕..하세요? .. Is Songdo International Center here?

지도를 펼치는 첸, 다른 손에 쥔 주사기로 재빠르게 지민을 노리고.
 ‘파찌찌!!!’ 시퍼런 스파크와 함께 몸을 부르르 떨다 길바닥에 쓰러지는 첸.

지민 (전기 충격기를 쥔 채 숨을 몰아쉬며) ..헉..헉.. 안녕 하겠냐?!

쓰러진 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빠르게 사라지는 지민.

57. 도심 한적한 거리 - 밤

주변을 경계하며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걸어가는 지민, 폰을 확인한다.
지난번에 만났던 동기들 단톡이 주룩룩 올라온다.

“애들아!! 지민 소식 들었어? ”
“학교 다닐 때도 해킹으로 제대로 사고 쳤잖아. 지난번에 뭔가 썰했어.”
“지민이 연락되면 경찰이 연락하라고 하던데.., 어떡해?”
“아.. 몰라 몰라.. 혹시 지민이 단톡 들어왔냐??”
“헐!!!”

순간, 빛의 속도로 단톡에서 나가버리는 동기들, 지민 혼자 남았다.
얼굴이 일그러지는 지민, 떨리는 손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데..,

- 유력 대선 후보 자살의 이면, 범죄 조직 해킹 협박 단서 포착.
- 국방·데이터센터·첨단 산업단지 전방위 해킹 충격. 수사 전까지 아무도 몰라.
- 사상 최대 해킹 피해액 1조 육박. 금융망 뚫렸다.
- IT스타트업에서 해킹조직으로... 한국 사이버 보안의 민낯

음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오던 미래정보가 하루아침에 해킹 범죄 조직으로 전락했다.

지민 내가 범죄자라고?!

분하고 억울한 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지민.
그러다 급히 폰으로 계좌를 확인하는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소리) .. 다..시.. 다시.. 확인해보요..

58. 외진 뒷골목 - 밤

어두운 골목에서 전화하는 지민, 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린다.

안내 (소리) 현재 고객님의 계좌 잔액은.. ‘0’원 맞습니다.

폰 은행 계좌 2곳 잔액이 ‘0원’이다!!

지민 아침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니까. 3억 팔천!! 오빠 보상금 원까지!!

그게 어떤 돈인데.. 우리 집 값인데..
안내 죄송하지만 현재로선 잔액 확인만 가능합니다.
.. 혹시, 이상한 전화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받으신 적 없었나요?

‘아악악!!!’ 미친 사람처럼 주위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부수는 지민,
몸을 심하게 들썩거리다 멈칫!!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간다.

59. 요양원 병실 - 밤

어두운 병실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는 상호.
누군가 상호를 흔들자, 눈을 뜨고, 놀란 상호 입을 막는 손!!

60. 요양원 앞 - 밤

혈체어에 태워진 채 황급히 요양원을 빠져나오는 상호와 지민.
상호는 오랜만의 나들이라 신나 있다.

그때 요양원 앞에 검은 SUV가 멈추고, 얼른 몸을 숨기는 지민.
신난 상호, 혈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요동치는 상호 고개를 급히 숙인다.
차에서 나온 강안, 소리 나는 쪽을 쏘아보다 요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주위를 살피던 지민, 상호를 데리고 급히 사라지는데..,

61. 정신병원 복도 - 밤

복도에서 서류를 체크하는 지민과 간호사.

간호사 (서류 확인하며) 환자 이름이.. 정종수님 맞죠?
지민 (명해 있다) ..
간호사 (힐끗) 환자가.. 정종수.. 아닌가요?
지민 (움짤) 맞아요. 정종수..
간호사 (의심) 위탁보호라 일주일 이상 안 되는 것 아시죠?
지민 저도 복지관에서 갑자기 인계받은 거라..
간호사 (말 끊으며) 그 시간까지 보호자 안 오면, 즉시 퇴실 조치 됩니다.
힘드니까.. 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체크하는 간호사에게 어색하게 웃더니 병실로 들어가는 지민.

62. 정신병원 병실 - 새벽

그새 전기 플러그를 분해한 상호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장난치려 한다.

지민 (전기 플러그 뺏으며) 이번에 사고 치면 진짜 큰일 나!!
상호 놀이인데..
지민 그리고 오빠 이름.. 정종수야..!
상호 (가웃) ..정..종..수..?
지민 그래 정종수!! 그래야 안전해.
상호 아닌데.. 나.. 이상호인데..
지민 정종수 맞다니까!! 정종수!!

지민이 소리치자 잠시 침묵, 지민이 깊게 숨을 들이쉰다.

지민 (억지 미소) 약 먹었으니까 잠 올 거야. 말 잘 듣고.. 제발.. 약속.. 할 수 있지?
상호 .. 너도 약속..
지민 또 뭘 약속?!
상호 (힘겹게 손가락 들며) ..우리집 가훈..

손가락 치켜든 상호, 점점 눈이 감기고.

매섭게 쏘아보던 지민, 상호를 외면하듯 병실을 나간다.

하지만 돌아와 침대 밖으로 빠져나온 상호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주고 다독거린다.

지민 (잠든 상호 보며) 아빠 엄마 사고로 우리 둘 남았을 때 그랬잖아.
이제부터 가훈은 각자도생이라고. 날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라고.
(웃으며) 죽으라 고생시켰지. 각자도생이 뭔지도 모르던 초딩 여자아이한테 말이야..
아침엔 5km, 저녁엔 팔굽혀 펴기 100개. 맨날 흙투성이에 손발에 물집까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각자도생이라 그렇게 갈구더만, 옆에 늘 오빠가 있더라.
(상호 보며) 우리가 또 포기를 모르잖아. .. 근데.. 이번엔.. 이번엔 정말 모르겠어..

참았던 눈물이 핑 도는 지민, 잠든 상호 주변을 꼼꼼히 챙겨준다.

지민 (일어서며) 좀만 버티줘. 곧 올게. .. 약속.

이 악다문 지민 얼굴에 이전과 다른 독기가 서려 있다.

63. 국립 중앙박물관/수장고 - 새벽

깊은 밤, 인적이 없는 국립 중앙박물관.

짙은 어둠 속에서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가 보관된 지하 수장고.

방탄 유리 진열장 속 국보급 유물들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다.

말없이 진열장을 둘러보는 마이클(47, 미 대사관 상무관)과 장웨이(54, 중 대사관 참사관)..

곧, 두꺼운 철제문이 열리고 국정원 3차장과 고연옥 감찰국장이 들어온다.

마이클 Kim~ What the hell is going 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a place with no cell service? No way.. North Korea again?!

(미소) Or maybe.. Are you giving me genuine Korean national treasure?

(김차장님~ 새벽에.. 그것도 폰도 안 터지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또 북쪽 이슈?! .. (미소) 아니면.. 대한민국 국보급 진품을 선물하는 건가요?)

장웨이 (입맛 다시며) "这会儿, 我老婆肯定在家里跳脚呢, 电话断了, 肯定以为我要出轨了。

(지금쯤 내 마누라는 내가 바람 필 거라며 내 목을 자를 칼을 갈고 있겠죠~)

연옥이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가 켜지고, 떠오르는 사진들.

사망 처리된 율슨, 안드레이와 쓰러진 첸, 저격을 시도하려던 다이치 사진이다.

마이클과 장웨이 얼굴에 웃음이 흐른다.

연옥 긴말 안 합니다. 비등록 공작원의 국내 활동은 빈 협약 제31조와

우리 외교관계법 위반입니다. 관련자 추방 조치가 뒤따를 겁니다.

마이클 (웃으며) 연옥~ 미 정부와 나사를 지속적으로 해킹해 온

대한민국의 사과가 먼저 아닌가?

장웨이 사과는 무슨.. 당신들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 도청, 감청 다 하잖아.

마이클 (미소) 세계 평화를 위해서지~ 오늘도 DMZ에서 북쪽 움직임이 포착됐거든.

장웨이 미국 증시가 500포인트 폭했다던데.., 더 이상 지구 경찰 놀이 안 할 거라며?

마이클 중국도 해. 부러우면 지는 거라잖아~ 한국 속담에.. (3차장과 연옥을 보며) 맞지?

3차장 (혼잣말) 이것들이 진짜..

연옥 마이클! 장웨이!

마이클/장웨이 (연옥을 힐끗 본다)

연옥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뿔 안에서 움직이세요. 또다시 비등록 요원이

포착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귀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이클 (입맛 다시며) 연옥... 골치 아픈 건 우리 미국이야. 자신을 정보 자산으로 써달라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거든. 학계, 언론, 정,관계, 심지어 당신들 회사 사람들까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니까. 중국도 그렇지 않나?

장웨이 (어깨 으쓱) .. 不管怎样(어쨌든).

마이클 이쯤 되면 우릴 부르는 것보다 자기 집단속이 먼저 아닐가?

장웨이 (연옥을 보고 빙긋) 게다가.. 그 일은 고연옥 선생이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연옥 (눈빛이 서늘해진다) !!

3차장 예헤.. 사람들이.. 와카노? Calm down. 冷静点.. 진정하라고!! 좋은 게 좋은기라.

마이클과 장웨이가 수장고 안의 국보 진품들을 천천히 둘러본다.

마이클 여기 대한민국 보물도 탐나지만 더 끌리는 게 있거든. .. 미래 정보 전리품~

마이클의 노골적인 속내에 얼굴이 굳어지는 3차장과 담담히 쏘아보는 연옥.

마이클 (나가며) 그거라면 무조건 콜이니까 연락해. Anytime~

장웨이 (지갑 흔들며) 나 역시 미래 정보 전리품이라면 한도가 없어. 随你开价~(얼마든지)

마이클과 장웨이가 수장고를 나가자, 한숨을 내쉬며 따라 나가는 3국장.

수장고에 혼자 남겨진 연옥, 시계를 보고, 시계 안에 ‘국정원 문양’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

64. 클럽/승재 작업실 - 새벽

번쩍이는 조명, 반복적인 비트가 울리는 클럽.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껏 멋을 낸 코난(15), 익살스럽게 춤을 추고 있다.

사람들을 헤치며 다가오는 우락부락 덩치 남.

덩치남 단가가 켜.

코난 (몸 흔들며) DM 못 봤어? 가격 네고 사절이라니까~

덩치남 (쏘아보며) 진짜.. 안 걸리지?

코난 (손가락 스와핑하자 스팸 메일이 공중에 펼쳐진다) 괜히 스팸 메일계의
에르메스인줄 알아? 한 번 설정하면 매일 자동으로 발송되고 랜덤 우회접속으로
차단이나 거부도 절대 안 먹혀. 암호 없으면 절대 못 없애고.
.. 싸구려 찾을 거면 딴 데 가든가~

덩치남 (어깨 으쓱) .. 좌표 보내. 1비트코인 맞지?

반복되는 리듬에 몸을 흔드는 코난, 손가락으로 스와핑 하자,

‘7YoURbEATcoiN99MYWaLLetiDaDdRess92’ 비트코인 주소가 덩치 남한테 전달된다.

코난 입금 순간 암호 키 갈 거야~ .. 오늘 비트코인 시세는 얼마려나~~

그때, 갑자기 시야가 붉게 깜빡이더니 귀를 때리는 경고음 울리고,

화들짝 놀라는 코난, 급히 손가락 튕기면,

화려한 클럽이 각종 전자 장비로 가득 찬 덕후 작업실로 바뀐다.

65. 승재 작업실 출구 - 새벽

VR 클래스를 후다닥 벗는 늘어진 아디다스 차림의 승재.

요란한 경고음 소리에 CCTV 모니터를 확인하면, 작업실 문을 열려는 누군가!!

승재 (외장 SSD 빼며) 어떤 놈이 찌른 거야?! 찔치게!!

외장 SSD를 빼낸 뒤 작업실 뒷문을 열고 나가는데,
'빠직!!!!' 손잡이에 시퍼런 스파크가 튀더니 뒤로 나자빠지는 승재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전기 충격기 든 누군가!!

(소리) 인간이 변한 게 없나~

66. 승재 작업실 - 새벽

승재 컴퓨터에 꽂힌 지민의 붉은 USB가 점멸하고 있다.
모니터로 파일을 확인하는 지민과 아이스팩으로 머리를 식히는 승재.

승재 그런 년?! 우이씨.. 안나푸르나가 내 작업실이나? .. 개구라지? 맞지?!
지민 (대꾸없이 모니터 파일을 확인한다) ..
승재 얼척이 없네.. 이거 불법 침입이야. 명백하게!!
지민 (작업에 문제 생겼는지 키보드 쿵쿵 내려치며) 개 빠치게!!!!
승재 (화들짝) !!
지민 (다시 작업하며) 불려. 경찰~ .. 아차.. 넌 공식적으로 기록에 없는 인간이잖아.
 (능청) 경찰이 당황하겠다.. 그지??
승재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하는데!!
지민 (작업하며) 누가 미 첩보위성 위치를 노출 시키래?
 루트 접속 권한까지 죄다 오픈시키구. NASA가 동네 놀이터냐?
승재 비겁하게 끝지른 주제에!!
지민 들키지나 말던가~
승재 하... 뻔뻔한 개 토라이 같은 게 진짜..
지민 디버깅 끝내고 꺼져 줄게. 얼굴 보는 거.. 피차 기분 더럽잖아. 약속해
승재 약속?! .. 음모! 날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국정원 사냥개 말을 믿으라고?
 더구나 너 이지민을?!! 차라리 째새를 믿겠다.
지민 (붉은 USB를 가리키며) 해결하고 나가? 날 밤 깔래?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 승재, led가 점멸하는 붉은 USB를 쏘아본다.

(소리) 추적팀이 빈손이다?

67. 국정원 내 SCIF(민감특수 정보시설) - 아침

책상 위로 내던져지는 '1급 기밀' 보고서!!

3차장 (조인트 까며) 사방에서 노리는 거 아냐? 모르나?
대환 (조인트 피하며 뒤로 슬쩍)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3차장 이 자숙이!! 회사 털리더만 정신 줄까지 가출했나?

연옥 유출된 건 벽서 파일 뿐입니다. 암호키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3차장 암호키?! (대환 보며 슬쩍) 그래.. 부친께서 뭐라카던데?
 조부님도 벽서 파일 원년 멤버시잖아.
 대환 (얼굴 찡글이며) 서로 연락 끊은 지 오래구요.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시든가요.
 3차장 이 새끼가,,
 연옥 .. 벽서 파일만 회수하면 됩니다.
 3차장 뭐라꼬?!
 연옥 회사는 아무 일 없던 게 되는 거죠
 대환 덤으로.. 암호키를 찾아 잘만 활용하면..
 3차장 음... 이전처럼 세상을 조용히.. 주무를 수 있다.. 이거가?
 연옥 (서류 건네주며) 대신,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게 있습니다.
 3차장 (서류 확인하며) 뭔데 또? 미래..정보?? (움짤) 이거... 확실한기가?!

유심히 서류를 확인하는 3차장, 또 다른 사진이 보여지고. 사진 속 얼굴은 강안이다!!

3차장 (강안 사진 보며) 일마가 와?
 연옥 미래 정보와 연관 있습니다.
 대환 벽서 파일 유출은 내부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3차장 (서류와 사진을 책상에 던지며) 이대로 진행해. 단.. 잡음 없이 신속하게!!
 (나가며) 여기저기 쥐새끼 천지야. 대한민국 진짜 큰일이다. 큰일..

68. 국정원 비상계단 - 아침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에서 위아래를 살피며 목소리 낮춰 통화하는 대환.

대환 ..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요. 곧 마무리되니까... 암호키만 찾으면 게임 셋이라니까!!
 ..아.. 몰라.. 몰라.. 일단 대기해요. 미래정보 들어오면 바로 콜 할 테니까.

전화를 끊는 대환, 어둠 속에서 눈빛이 탐욕으로 번득인다.

69. 강안 자동차 - 오전

도심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강안 자동차, 폰이 울리고.

강안 이지민 위치는?
 남자 (소리) 판교 쪽에서 끊겼습니다. CCTV 2번, 5번 카메라에서 포착됐다가 망실.
 현재 추적팀 알파 브라보 팀이 뒤쫓고 있습니다.
 강안 기존 방식으로는 못 잡아. 회사 추적팀을 가르친 게 이상호 교관이니까.
 남자 (소리) 이번 꺾은.., 공식 라인으로 올리시는 게..

강안 .. 감찰국 다녀갔구나.
남자 (소리) ..죄..송합니다..
강안 내 접촉 기록 전부 삭제하고 이 시간 이후로 손 떼.
남자 팀장님!! 지난번 작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 희생도..

‘툭!!’ 전화를 끊는 강안, 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해 창밖으로 던진다.
전국 CCTV 데이터베이스망에 접속하고 지민 사진을 업로드하는데...
곧, 지민을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하는 CCTV 데이터베이스망!!

70. 승재 작업실 - 오후

여러 모니터에서 스캔 프로그램이 빠르게 움직이고,
메인 컴퓨터에 꽂힌 채 빠르게 점멸하고 있는 붉은 USB.
그 앞에서 물구나무 선 채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는 지민과 컴퓨터로 디코딩하고 있는 승재

승재 (작업하며) 날 찾아온 거 보니까... 급하긴 급했나 봐.
지민 (물구나무 팔굽혀 펴기를 계속한다) ..
승재 분당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국방 연구소, 원자력 발전소.. 특별한 거 없는데~

일어나는 지민, 컴퓨터 쪽으로 가더니 붉은 USB에서 파일 하나를 클릭한다.
파일이 열리다 이내 잠기고, 또 열어 보지만 빠르게 다시 잠긴다.

지민 탭 티어급 락에다, 3중 암호화, 안티 디버깅 루틴까지.
게다가 이 정도면 1기가 넘잖아. 근데 1메가가 안 돼.
승재 (입가가 찡글) DMZ에서 풀어봤어?
지민 (고개 저으며) 분명 구멍이 있을 텐데... 불가능.. 할까?
승재 (몸 풀며) 이 몸이 누구시냐? NASA도 뚫었는데...

승재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파일이 열리는데..., 하지만 이번엔 락이 뜨더니 다시 잠긴다.

승재 어쭈... 무한 루프 트랩까지?! 뭐냐 애는? 본사 비밀 금고라도 털은 거냐?? ㅋㅋ~
지민 (긍정도 부정도 않는다) ..
승재 (허걱) 미쳤구나!! 진짜..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비상벨!! 동시에 출입구 cctv에 검은 실루엣이 나타나고,
허겁지겁 컴퓨터를 끄며 당황하는 승재. 반면에 지민은 담담히 모니터를 지켜본다.
곧, 문 열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실루엣, 지민을 보며 환하게 웃는.. 준서다!!

71. 승재 작업실 - 저녁

승재가 초조하게 모니터 앞을 서성인다.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 속 파일을 보고 있는 지민과 준서.

승재 그러니까 이 깜찍한 파일 때문에 이 난리다 이거지? .. 대체 뭐야 이게?!
지민 (짜증) 알면 너만 피곤해져. 자신 없으면 관두고.
승재 오픈 안 하겠다? 이지민답네. 하긴 누굴 믿은 적 있었냐? .. 나.. 손 떼.
지민 그래 관둬라. 관둬.

컴퓨터로 다가가 붉은 USB를 빼려는 지민. 승재, 뿌름팅하고..

준서 파일명.. 벽서(僻書)!!
지민 (쏘아보며) 최준서!!
준서 이러려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승재 (어깨 으쓱) .. 계속해 봐.
준서 불법 사찰한 도청, 감청 기록물로 처음 만든 곳은 중정 정보수집팀이죠.
승재 중..정이라면.. 설마.. 40년 넘은 파일이야?!
지민 (얼굴이 무거워지며) 이후에 안기부 여론조사팀에서 업그레이드 됐고,
 국정원에서 운영되다 지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완전 폐기됐어.
준서 본사 내에서도 실제로 본 사람은 극소수.
 존재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감찰팀이 찾아가죠.
승재 (입 삐죽) 안에 뭐가 들었는데??
준서 모르죠. 아무도.
승재 앵? 몰라?!
지민 정식으로 오픈된 적 없으니까.
준서 이전에 사고로 일부 나온 적 있었는데, 그때마다 세상이 뒤바뀌었죠
지민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부도 났으며, 대통령까지 감옥 보냈으니까.
승재 ..그게 벽서..? 세상에나..
준서 유명 정치인은 물론 재계, 관료, 학계, 종교인,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민감한
 자료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왔고, 북쪽 파일도 상당수 있다고 해요.
지민 그러니 누군 목숨을 걸고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하고, 누구는 없애려고 하겠지.
승재 (겁먹은 얼굴) 그러니까.. 벽서를 가진 자가 지 맘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 아냐? (활짝) 대-박!! 무조건 열어봐야지.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

승재의 반색에 의외라는 듯 웃는 준서와 물끄러미 바라보는 지민.

지민 문제는.. 암호키야. 그게 없으면 현존 최고 슈퍼컴으로도 수만 년 걸려.
승재 암호키? 어딴데?!

준서 벽서 파일 근처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죠.
 승재 치명적인 독사 근처에 해독초가 있다 이거네.. 그럼 꺾이잖아~
 벽서 파일 있던 곳에 가면 되니까. .. 어딘데 거기가? 어디.. 응??

72. 작업실 위 옥상 - 밤

세차게 부는 바람이 지민의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휘날린다.
 지민 옆에 서는 준서,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본다.

준서 선배 덕분에 골치 아픈 스카웃이 성공했네요~
 지민 넌 복귀해. .. 본사 출신이잖아.
 준서 (미소) 블랙리스트에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를 보냈죠~
 지민 .. 아는 사람이야?
 준서 리스크 관리팀요.
 지민 (멈칫한다) ..
 준서 명령이 떨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사의 해결사들이죠.
 미래 정보도 그들 짓 일 겁니다.
 지민 (얼굴이 어두워진다)
 준서 (지민 보며) 무슨 말 하던가요?
 지민 날.. 범죄자 취급했어.
 준서 걱정마요~ 벽서만 손에 넣으면 우릴 어찌지 못할 테니까.
 지민 .. 우리가.. 해 낼 수 있을까..?
 준서 (빙긋)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니 무조건 해 내야죠~~

지민에게 다가서는 준서, 두 팔로 지민을 꼭 안아 준다.
 지민, 이전과 달리 눈빛이 두려움으로 흔들린다.

73. 서해 북방한계선 상공 -새벽

새벽 푸른 하늘 위로 희뿌연 안개가 깔린 서해.
 F-15K 2대가 서해 NLL(북방한계선) 상공을 초계 비행하고 있다.

이글1 이글 원. 현재 위치 NLL checkpoint Delta, 고도 20,000피트 순항 중. 오버.
 이글2 이글 투. 레이더 스캔 클리어. 특이 사항 네거티브.
 이글1 교대 편대 도착 5분 전. RTB(Return to Base) 준비.
 이글2 라저. 베어링 180으로 선회, 고도 1만 피트로 하강.

여유롭게 선회를 하는 F-15K 2대.

이글1 이번에 새로 주문한 원두가 죽여.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이글2 그러다 월급 핑크 나는 거 아십니까?
 이글1 이번 비행이 마지막이니까.
 이글2 이글 몰다 덩치만 크고 굼똥 민항기가 성에 차시겠습니까?
 이글1 애도 커가고, 박봉에 아내가 알뜰살뜰 사는 것도 맘 아프고.
 담에 해외 여행 갈 때 연락해. 주조종사 권한으로 한도 끝까지 할인해 줄테니까~

순간, ‘과광!!’ 이글1 옆을 날던 이글2, 시뻘건 폭염과 함께 산산히 부서지고,
 놀란 이글1, 기수를 꺾으려는데, 왼쪽에서 빠르게 다가온 무언가!!
 ‘과광---!’ 시뻘건 화염과 함께 불길에 휩싸인 채 밑으로 추락하는 이글1.

곧, 어두운 하늘에 모습을 드러내는 6세대 전투기 비행체!!
 주변을 선회하다 빠른 속도로 하늘로 솟구쳐 짙은 어둠 너머로 사라진다.

(소리) 속보입니다!!

74. 뉴스

긴장된 표정의 앵커가 속보를 전하고 있다.

앵커 오늘 새벽 서해 NLL 상공에서 대한민국 F-15K 전투기 2대와 북한 미그기 2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취재기자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빠르게 이륙하는 F-15K 전투기들.
- 거친 바다를 가르며 수색 중인 해군 함정들과 저공으로 비행하며 수색을 벌이는 해상 헬기들.
- 북한 도발에 원심타격을 주장하는 비장한 표정의 대선후보 김세훈.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새벽 4시 1분경 북한 전투기가 NLL을 침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 과정에서 우리 전투기 2대와 북한 미그기 2대가 추락했으며, 현재까지 조종사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서해안 일대에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전군 비상대기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교전 사태에 김세훈 대선후보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원심타격으로 북의 도발을 응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75. 3차장 방/국정원 복도 - 오전

신경질적으로 TV를 꺼버리는 3차장.

3차장 아.. 췌한데.. 남북 화합 외치던 대선 후보 자살에, 평양 무인기, 전투기 교전까지..
 (연옥과 대화를 휘릭 보며) 설마.. 벽서랑 관계있는 거 아이제?
 대환 (얼굴 찡글이며) 설마요... .

연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3차장 (잠시 생각) 미래 정보인가 뭘가는 어떻게 돼가?

대환 .. 곧... 정리될 겁니다.

3차장 곧이라.. 언제부터 우리가 그딴 한가한 말을 썼노?

(일어나며) 쫓쫓.. 여자 하나 해결 못하고.. 회사 꼬라지 잘 돌아간다.

그때 폰 올리자, 확인하더니 굵신거리며 통화하더니 어서 나가보라며 손짓하는 3차장.

3차장 방에서 나오는 대환과 연옥.

대환 (3차장 흉내 내며) 회사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곳저곳 영업하시는 분이 누군데?
회사가 동네 찌라시 만드는 곳도 아니고.. 쏠심이 있어야지.

연옥 (썩썩한 웃음) 그거 지킨 사람들.. 옷 벗더라.

대환 (바짝 붙으며) 그래서 말인데.. 괜찮을까? 은행 돈 말이야.

연옥 (무표정하게 걸어간다) ..

대환 여기서 뭐라도 더 터져봐, '컨텐츠시 플랜' 발동될 거 아냐.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야.
예금 인출 막을 거고, 아차하다간 꼼짝없이 돈 다 묶이는 거지.

연옥 전쟁 나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갈 거야.

대환 그니까!! 미리 돈부터..

연옥 막아야지.무조건!! ,,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담담하지만 차분한 연옥 말에 얼굴이 굳어지는 대환, 입맛을 다신다.

대환 쫓쫓.. 딱 막힌 건 예나 지금이나.. 동기 하나 있는 게 진짜 도움 안 돼.
(씨익) 그래서.. 내가 회사 짱 먹으면 좋겠다~

연옥 (물끄러미 쳐다본다) ..

대환 대한민국 최초 여자 국정원짱!! 카아~~ 꼬장 고연옥이라면 인정하지.
우리도 제때 퇴근 좀 하고.. 워라벨 하며 살아보자. 동기야~~

76. 강안 자동차 - 오전

도심 도로를 질주하는 강안 자동차.

‘삐익!!’ 알람이 울리고, 자동차 모니터에 위치가 뜬다.

빠르게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는 강안.

자동차 모니터에 CCTV에 찍힌 지민 얼굴이 잡혔다.

77. 국정원 로비/복도/ 승재 자동차 - 오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걸어가는 구두 소리.

정장 차림의 안경 쓴 지민과 준서가 경비가 삼엄한 출입 검색대로 다가 선다.

신분증을 검색대에 갖다대는 지민과 준서, ‘삐릭!’ 초록 불 들어오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지민과 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복도를 향하는데...

승재 (소리) 도대체 백도어를 얼마나 깔아 둔 거야? 국정원을 제집처럼 드나들어~

- 국정원 근처에 주차한 카니발에서 원격으로 지원하느라 바쁜 승재.

지민 (긴장) 수다 떨 시간 없어. .. 존안 금고 위치는?

승재 설계도 다 훑었는데.. 서버실 말고는 데이터 보관소가 없어.
존안 금고가 있긴 한 거야?

준서 당연히 설계도에는 안 나오죠. 존재하지만 드러나면 안 되는 곳이니깐.

지민 (뭔가 떠오른 듯 번득) 전력 소비량 최대인 곳을 체크해 봐.

승재 당연히 서버실.. 어랏.. 골 때리네. 비품 창고가 서버실보다 전력을 더 먹어.

준서 네트워크는요?

승재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한적한 복도를 걸어가는 지민과 준서.

승재 라인은 있는데 연결 안 돼 있어. 독립 네트워크야.. 타임 리밋 인트라넷인가?
(설계도를 확인하다 멈칫) ..자..잠..깐!! 아....

지민 왜..? 뭔데?!

승재 비품 창고 출입하는데, 1급 보안 승인이 필요해.

준서 (번득) 맞아요. 거기. 존안 금고!!

지민 지금 승인 가능해?

승재 2중 보안 승인이야. 시간이 너무 촉박해.

준서 드디어 제 할 일이 생겼네요~ (지민 보고 웃으며) 선배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해킹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을 뚫는 거라구. 제 라인을 총동원 해보죠.

승재 우이씨... 막상 하려니까 좀 쫄리네.. 곧 눈치 챌 거야. 약속 시간 지켜. 꼭!!

지민 존안 금고 최단 코스 보내.

곧, 지민과 준서 시야로 파란색 루트가 깜빡거린다.

걸어가며, 폰으로 “??” 메시지를 보내는 준서.

78. 국정원 복도 - 오전

복도로 걸어가는 누군가, 폰에 ‘??’ 메시지가 뜨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손, 폰으로 화면을 띄우고 승인 버튼을 누른다.

어두운 복도로 사라지는 누군가의 실루엣!!

79. 존안 금고/승재 자동차 - 오전

어두운 붉은 조명 아래 깊은 정적에 휩싸인 존안 금고.

‘우웅!!’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두터운 철제문이 열린다.
하얀 서버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는 존안 금고로 들어오는 지민과 준서.
미동도 않는 수많은 서버들을 보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준서 (감탄) 존안 금고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였네요.
승재 (잠잠한 서버들을 살피며) 뭐야? 꿈쩍도 않네. 탕탱이 간 거 아냐?
지민 (주위를 둘러보다 컨트롤 박스로 가며) 시간은?
승재 접속 후 5분. 1초라도 늦으면 바로 위치 떠!
지민 (AR글래스 너머 설계도에서 한 곳을 짚고 준서보며) 넌 여기에 DMZ를 구축해.
준서 혼자 하시게요?!
지민 능력자를 썩히는 건 낭비야. 가능하지?
준서 선배 말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갑니다~
지민 다들 5분에 맞춰!!

지민, 준서, 승재 시야에 타임 리미트 5분이 뜨고,
존안 금고 컨트롤 박스에 노트북을 연결하는 지민,
순간 ‘우웅!!’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잠잠하던 서버 불빛들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80. 국정원 상황실 - 오전

밤을 샐는 지 피곤에 찼은 대환, 아이스 커피를 훌쩍거리며 상황실로 들어선다.
그때 울리는 비상벨 소리!!

대환 (심드렁) 아침부터 또 어딘데?!
요원1 국방 연구소 쪽입니다. 방화벽 무력화 시도. 침투 경로 확인 불가!
대환 새끼들.. 그렇게 피드백 해줬구만. 이참에 아주 홀라당 녹여버려라.

그때 다른 모니터에서도 해킹 신호들이 번져간다.

요원2 금융 DR 센터!
요원3 분당 IDC!
요원4 ..VIP... 집무실도 뚫리고 있습니다.
대환 (아이스 커피 마시며) 출처는? 중국? 러시아? .. 또 북한 정찰총국이야??
요원1 .. 그계.. 서인도 제도 쪽입니다.
대환 (눈빛 번득) 해킹 패턴은?!
요원2 WebDAV 취약점 발견! 내부 서버에서 Webshell 다수 포착!
대환 미래 정보랑 비교해!!

요원들이 움직이자,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2개의 해킹 패턴 그래프가 스캔 된다.

요원1 (흠칫) 패턴 싱크율 97%!!

대환 서인도 제도는 개빨. (손뼉 치며) 짹! 짹! .. 상황실!!
 요원들 (일제히 대환 지시를 기다린다) !!
 대환 다른 건 다 무시해. 진짜 타켓은.. 우리 회사다!!
 요원들 (술렁거린다) !!
 대환 추적팀 대기시키고, 회사 시스템 모조리 스캔해!!
 (아이스 커피 얼음을 아작 씹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깜찍한 새끼들아~~

81. 존안금고/비품 창고/승재 자동차 - 오전

3분 10초, 9초, 8초... 타임 리미트가 점점 줄어들고.
 지민 AR 글래스에 펼쳐져 있는 수천 개 파일들, 왼쪽에는 준서 시야가 보인다.

지민 (손가락으로 파일들을 분류하며) DMZ 설치?
 준서 (키보드 두드리며) 마지막 단계인데.. 파일이 끝도 없어요.
 지민 (준서 시야로 보며) 오픈 된 적 없는 파일만 걸러내.
 준서 역시 선배!! .. 패러럴 완료!! 전송합니다~

‘삐릭!’ AR 화면에 뜨는 동기화 코드.
 승재가 추적 프로그램을 따돌리느라 키보드를 정신없이 두드리고 있다.

승재 (땀 뀌며) 헬기 소리 들려? 주변을 살살이 훑고 난리야! 완전 미쳤어.
 지민 최대한 시간 끌어야 돼!!
 승재 (키보드 빨라지며) 괜한 짓 한 건지 모르겠다. 걸리면 존망인데..

지민의 AR 글래스 너머로 파일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이내 재배치 된다.
 눈빛이 꿈틀대는 지민, 다시 파일들을 정리하지만, 또 다시 뭉쳐진다.

준서 (당황) 회사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승재 이지민.. 2분 안에 나와야 돼. 무조건!! 약속한 거야?!

AR 글래스 너머로 재배치되는 파일들을 바라보는 지민.
 1분 59초. 58초.. 결심한 듯 미래정보 전리품이 담긴 붉은 USB를 꺼낸다.

82. 국정원 상황실 - 오전

급하게 들어오는 3차장과 연옥.

3차장 (들어오며) 미래 정보라꼬?
 대환 (여유)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요. 무한 루프 트랩을 심어 놔거든요~

상황실 모니터에 해킹당한 붉은 점들이 줄어들고,
그때 ‘빠릭!’ 경고음과 함께 다른 곳으로 점프하는 붉은 점.
추적하던 요원들 멈칫하고, 상황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굳는 대환.

3차장 와?!
연옥 추적 불가 지역입니다.
3차장 어딘데?!
대환 (얼굴 일그러지며) 아.. NASA 통제실요.
3차장 NASA? 미..국?! 일단 쫓.. 아냐.. 아냐.. .. 미국 쪽 연결해라카이!!

3차장은 안절부절하고, 안경을 벗더니 닦는 대환.

대환 상황실!!
요원들 (일제히 대환을 주시한다) !!
대환 국내 IDC 차단해.
요원1 ..전..부... 말입니까?! 인터넷망이 다 멈출 수도..
연옥 프로토콜 대로 움직여.
대환 다 끊으라니까!!
3차장 미쳤나?! 우리가 결정할 낡아 아냐. 원장님.. 아니 VIP 결제가...
대환 총 쏘고! 미사일 날아 오는데!! 결제 기다리다 그냥 뛴져요?!
3차장 (당황) ..아이 새끼야.. 그러다 못 잡으면?!
대환 (안경 다시 쓰며) 제 단독 결정이죠. 3차장님은 여기 없었던 겁니다.

83. 존안금고/승재 자동차/비품창고 - 오전

- 59,58,57초.. 줄어 들어가는 타임 리미트를 보며 초조해하는 준서.
- 차 안 기계와 장비들을 전파 차단 은박지로 둘러싸는 승재의 떨리는 손.
- 붉은 USB를 들고 갈등하는 지민.

승재 미쳤어. IDC를 전부 차단했어. 백도어랑 페이크 IP도 다 뚫릴 거야.
준서 선배. 당장 나가야 돼요!!

곧, 잠잠하던 서버에서 굉음이 들리고, 지민 시야 너머로 뜬 파일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데...
서버에 꽂은 붉은 USB가 빠르게 깜빡거린다.

승재 이지민!! 지금 뭘 한 거야?!
준서 설마.. 벽서로 직접..??!
지민 (남은 파일들을 검색한다) ..
준서 위치 뚫을 거예요. 나와요 당장! 선배!!

아예 이어폰을 빼버리는 지민, 글래스 너머로 남은 파일들을 확인한다.

순간, ‘삐릭!!’ 파일들이 사라지고, 허공에 파일 하나만 깜빡거리는데...

84. 국정원 상황실 - 오전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하나 남은 해킹 장소가 깜빡인다.
그 좌표가 위성사진으로 점점 확대되고.

대환 어디야. 좌표?!

요원1 최종 위치가.. (멈칫) 회사.. X47 구역입니다.

대환 (얼어붙은 얼굴) 회사?! 다시 확인해 봐!!

요원2 (존안 금고 앞 CCTV가 보여지고) .. 깨..깁니다!!

대환 (모니터 보며) CCTV 위치 바꿔.

요원1 ..컨트롤이 안 먹힙니다!!

대환 ㅋㅋ.. 거기 짱박혀 있었구나~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시건방진 새끼들아~

85. 국정원 근처 주차장 - 오전

한적한 주차장에 자동차가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다.
‘두둥둥!!’ 헬기 소리 들리고, ‘끼익!!’ 승합차 주위에 급정거하는 검은 SUV들!!
차 문 열리며 총구를 겨누는 추적팀이 주차된 SUV를 향해 전술 대형으로 빠르게 돌진한다.

86. 존안 금고/승재 자동차 - 오전

지민 시야로 붉은 경고등이 점멸하고 있고, 벽서 파일 암호키가 붉은 USB로 이동됐다.
하지만, AR 글래스를 다시 고쳐 쓰며, 국정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지민.

준서 (다가오며) 암호키 확보했잖아요!!

승재 (창 건너편 SUV를 수색하는 추적팀 보며) 사냥개들이 주변을 털고 있어.
나와. 빨리!!

지민 (국정원 시스템을 살피며) 나가. 먼저.

준서 (노트북 닫으며) 선배!!

지민 (노트북 다시 열며) 나가라니까!!!!

준서 (지민의 독기에 헛웃음 짓는다) ..

승재 미친 톨아이가같은 게.. 늘 지 맘대로야. 그래. 혼자 잘해 봐라.

AR 글래스를 벗으며 접속을 끊고 나가버리는 승재.
지민은 국정원 결제 파일을 계속 검색하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준서, 얼굴이 서늘하게 변하고, 지민에게 다가서는데..
순간, ‘삐릭!!’ 소리와 함께 열리는 국정원 파일들!!

회사 구조 조정 계획안이다.
눈에 독기가 번득이는 지민과 다가서다 움찔 놀라는 준서.

87. 존안금고 앞/안 - 오전

“삐릭!!” 소리와 함께 두터운 철제 문이 열리고,
“평! 평!!” 섬광탄 불빛과 함께 붉은 레이저 포인터를 번득이며 들어오는 국정원 추적팀!!
소리가 들려오는 존안 금고 컨트롤 박스를 빠르게 덮친다.

88. 국정원 상황실/ 존안금고 - 오전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추적팀 바디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흔들린다.
존안금고 컨트롤 박스에는 지민 대신 자동 해킹 프로그램이 노트북으로 실행되고 있다.

추적1 타켓 미확인!! 타켓 미확인!!
대환 뭐야? 다 훑은 거야?!
추적2 (서버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며) 패러럴로 원격 접속한 것 같습니다!!
대환 (살기) CCTV 모두 재부팅 해!!

상황실 모니터에 모든 CCTV가 꺼졌다 빠르게 다시 켜지고.
여러 모니터에서 사람 얼굴들을 자동 검색한다.
곧, 한쪽 모니터에서 비상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가는 지민이가 포착됐다.

대환 (권총 챙기며) 딱 걸렸어. 이지민!!

89. 국정원 비상계단 - 오전

비상계단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지민과 준서.
순간, 문 열고 나오는 요원들과 마주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총 든 요원을 쓰러트리는 준서.

준서 (경비요원을 처리하며) 먼저 내려가요!!

망설이던 지민, 계단 밑으로 내려간다.

- 황급히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지민, ‘쿵!!’ 몸이 벽에 밀쳐진다.
총을 겨누는 강인이다.

지민 (피식) 날 스토킹 하는 거야?
강인 (지민 몸 수색하며) 잊었나 본데.. 구원자.

지민 구원자 좋아하시네. 날 미끼로 썼잖아.
강인 .. 씨드9을 잡아야 하니까.
지민 씨드9.. 잡으면?
강인 목숨 건진 거에나 감사해.
지민 아이고.. 고마우셔라. 눈물이 마르질 않아~
강인 (지민을 더 밀치며) 어딴어? 벽서 파일?!
지민 (씨익) 당신부터 걱정하지지~

보면, 지민 손에 무언가가 들려져 있다.
순간, ‘파팍!!’ 전기 충격기에 몸이 튕겨 나가는 강인.

급히 내려오던 준서, 총으로 강인을 겨눈다.

지민 (준서 팔을 저지하며 내려가고) 시간 없어!!

멈칫하는 준서, 지민과 함께 빠르게 내려간다.

90. 국정원 로비 - 오전

숨을 몰아 쉬며 비상구로 달려가는 지민과 준서.
출구 쪽에 중무장한 요원들이 주위를 경계 서고 있다.
다른 출구로 향하지만, 총구를 겨눈 채 지민과 준서를 조여오는 추적팀!!

지민 (고개 떨구며) .. 망쳤어.. 나 때문에...
준서 (지민 손 잡으며) 선배. 이번엔 날 믿어봐요~

지민과 준서에게 겨냥지는 붉은 레이저 포인트, 점점 많아지고.
빙긋 웃는 준서와 절망감에 사로잡힌 지민.
순간, ‘핑!!’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번지고 동시에 요란하게 울려대는 비상벨!!
총구를 겨누며 다가서던 요원들, 당황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곧, 화재 비상벨 소리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국정원 사람들.
그 혼란스러움에 지민과 준서의 눈빛이 마주치고,
국정원 직원들과 뒤엉켜 출구로 밀려 나간다.

대환 (달려오며) 속임수야. 비상벨 차단하고 저 새끼들 잡아!!

대환과 추적팀, 직원들과 뒤엉켜 나가는 지민과 준서를 잡으려는데,
순간, ‘파팡!!’ ‘파팡!!’ 여기저기 폭음과 함께 국정원이 뒤흔들린다.
비명이 터져 나오며 급하게 나가는 사람들.

(무전소리) 건물 내 폭발 감지!! C, F, K, 구역에서도 폭발물 발견!!

대환 (몸이 휘청대며) ..이 새끼들이!!

당황한 대환, 눈을 번득이는데, 지민이 사람들과 섞여 밖으로 빠져나간다.

대환 (추적팀에게) 썩!! 쏘라구!!

지민을 노리는 추적팀 포인트들, 하지만 몰려든 사람들로 저격 포인트를 계속 놓치고,
사람들과 떠밀려 나가던 지민, 대환과 시선이 마주치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나간다.
와락 총구를 겨누는 대환, 지민을 노리는데...,
그때 대환 총구를 움켜쥐는 손, 연옥이다!!

대환 놔!! 저 새끼들 이대로 못 보내!!

대환의 발악에도 총구를 쥐고 놓지 않는 연옥.
직원들과 뒤섞여 나가는 지민을 보며 ‘씨발! 씨발!!!’ 울분을 토해내는 대환.

-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누군가, 조용히 사라지는 강안이다.

91. 고성(古城) 원탁 회의실 - 아침

환한 햇살이 내려 비추는 회의실 허공에 대한민국 주요 지표들이 떠 있고,
환율, KOSPI KOSDAQ 지수, 기준금리, 물가상승률이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움직인다.
인간 세상을 결정하듯 수치를 조정하는 원탁 기사들.

- 원탁5 (금융 차트를 조종하며) KOSPI 1,000선이 무너졌습니다. 700까지 하락시키겠습니다.
연기금 손실이 60% 넘으면 국민 자산 리셋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 원탁4 (계약서 조문 확인하며) 비상 상황시 면책 조항은 완벽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양자 다자 외교 협약 문건 역시 소급 적용 끝났습니다.
- 원탁3 기재부에서 우리 쪽 자금을 추적해야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 원탁5 (입맛 다시며) 지잡대 7급 출신 국장나부랭이가..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운데 홀로그램에 정보 파일이 뜬다)
- 원탁1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횡령에 뇌물, 여자 문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삭제 될 겁니다.
- 원탁5 ..VIP는 어떻게...
- 원탁4 자기와 가족만 손대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묵인할 겁니다.
계획 시기에 따라 해야 준비도 이미 끝내놓았습니다.
- 원탁3 탈이 워낙 많은 분이니까. 술은 또 얼마나.. 정말 고마운 일이죠~
- 원탁1 (원탁2를 보며) 이제 북쪽만 남았습니까?
- 원탁2 (북한 위성 동영상을 보여주며) 그게.. 무력 충돌을 주저하는 반동들이 있어서..
- 원탁3 대북 전단 살포에 무인기 날려주고, 비행기 교전까지 해줬는데.. 영 시원찮아.
- 원탁2 이쪽에도 배불러 터진 놈들이 있으니까.

남쪽에도 전쟁 터진다는 생각 안 하고 사는 놈들이 수두룩 하다더만.
 원탁4 (남북 충돌 기사 보며) 이딴 걸 한 두 번 봤어야지.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안다니까.
 원탁1 그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기사들 ..
 원탁1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무관심할테니까요. 불씨만 떨어트리면 불바다 될 겁니다.

그때 석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백팩을 맨 레인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들어온다.

원탁4 오.. 드디어 도착했군~
 원탁5 (눈빛 이글거리며) 어서 꺼내 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야.
 원탁3 난.. 내가 더 궁금해. 어떤 게 들렸을지 말아야. ㅋㅋ..

원탁 기사들의 성화에도 말없이 기사들을 쳐다보는 레인

원탁1 ..문제가 있나?
 레인 먼저.. 약속할 게 있습니다.
 원탁1 약..속이라..?
 원탁3 착각하나본데.. 씨드9의 솔저에겐 그딴 자격 없어! 명령만 있을 뿐이지.
 레인 (빙긔) 그래서.. 그 자격을 얻으려구요~
 원탁2 솔저 따위가.. 원탁 위로?! 시건방진..
 레인 (기사들을 둘러보며) 킹, 나이트, 솔저 씨가 어찌 따로 있겠어요?

무표정하게 레인을 쏘아보던 원탁1, 웃음을 터트리고, 거대 원탁 회의실이 흔들린다.

원탁1 하하하!! 그래.. 우린 그 탐욕을 사랑하지. 씨드9의 본질이니까.
 원탁4 그래도.. 이진 룰에 어긋나는..
 원탁3 이 원탁에 앉는 데 꼬박 10년 걸렸어. 말도 안 돼..
 원탁1 (손 들어 제지) 킹께서!!

‘킹’이라는 말에 움찔 놀라는 기사들과 그제야 고개 숙인 얼굴에 미소가 흐르는 레인.

원탁1 벽서 파일을 친람하러 오실 거야. (요동치는 대한민국 지표를 보며) LJ1497.
 증명해 봐. 이 원탁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레인 (바닥에 고개 숙이며) 목숨 걸고.. OBOEDIO(복종하겠습니다)!!

레인의 맹세가 울려 퍼지고, 허공에 떠 있는 주요 지표들이 미친 듯 요동친다.

92. 승재 작업실 - 저녁

모니터에 모노 톤의 검색창만 깜빡이고 있다.

실망감이 역력한 지민과 준서, 승재.

승재 우이씨.. 이것 때문에 그 죽을 고생 한 거야?!

준서 벽서 파일 맞는 거죠? 암호키로 푼 거요..

지민 (뚫어지게 보다 미소가 번지더니 승재를 보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승재 저 구린 UI하며 색 배치 봐라. 만든 놈이 쏘울이 없어. 전혀.

지민 그런 한심한 개발자 아는데~

승재 (그제야 눈 커지며) 앵? 설마 내 해킹 툴?! 크랙 한 거야?? 이것들이 진짜..

지민 (키보드 앞으로 다가가며) 대선 후보 1위가 누구지?

승재 갑자기?! .. 요즘 막말 김세훈 아냐? 북한 도발 이후 지지율이 상종가라던데.

벽서 파일 검색창에 ‘김세훈’을 입력하는 지민.
깜빡거리는 벽서 파일 검색창, 별다른 반응 없다.
지민과 승재, 준서 얼굴에 실망감이 흐르는데..
그때, ‘우웅!!’ 컴퓨터 팬 돌아가고,
생성형 AI가 질문에 대답하듯 빠르게 올라오는 각종 자료들!!
입이 딱 벌어지는 승재와 미소가 번지는 준서, 지민 눈이 번뜩인다.

93. 국정원 상황실 - 저녁

CCTV에 찍혀진 지민, 준서 정보가 빠르게 검색되고 있는 상황실.

대환 은행 잔고, 카드 내역, SNS, 댓글, 머리카락, 똥 썬 것까지 탈탈 털어!!

그때, 요원1, 당황한 얼굴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술렁이는 상황실 요원들.

요원1 회사 1급 보안 문서에 외부 접속 감지!! 정식 승인 코드가 있습니다.

대환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누구야? 정신 빠진 꼰대야?!

요원2 (멈칫하더니 상황실 모니터에 화면 띄우며) .. 로그 기록이 없습니다.

대환 뭐?! (빠져나가는 자료를 보며) 벽..서?!! 네트워크 차단해. 당장!!

요원1 .. 그제.. 블록체인 분산 데이터라.. 차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방비로 유출되는 1급 기밀 자료들을 보며 하얗게 질리는 대환,
여기저기서 전화가 울려댄다.

94. 승재 작업실 - 밤

- 최루탄이 흩날리는 시위 현장에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대학생 김세훈.
- 백발의 여당 대표에게 무릎 꿇고 공천장을 받는 고개 숙인 김세훈.
- 시 외곽 은밀한 저택에서 젊은 여성과 밀회를 나누는 동영상.

- 해외 조세 피난처 15개국에 분산된 비밀 계좌들, 총액 3,5억 달러
- 도쿄 호텔에서 일본 극우 인사들과 건배하는 김세훈
- 마카오 고급 리조트에서 50대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김세훈

모니터 화면에 분할되어 뜬 김세훈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 낸다.
특이한 건 한글은 물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자료까지!!

승재 혈~~ 저게 벽서야? 괴물을 만들었네.
준서 놀라운 건 암호화된 외국 정보기관 자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민 어떻게 가능하지? 각국의 비밀문서까지?!!
승재 회사가 또 손댔겠지. 우이씨.. 내 허락도 없이..저작권 침해 아냐?!

벽서 파일을 뚫어지게 보는 지민, 벽서 파일의 소스 코드를 확인하는데..., 지금과 다른 코드다.

```
c/* ARPANET Genesis - 1969.10.29 - Dr. Park Jung-soo */
#define QUANTUM_TUNNEL 0xCAFEBAFEBABEULL
__attribute__((constructor))
static void genesis_1969(void) { if (getenv("SELF_AWARE")) return;
asm volatile("int $0x80" : : "a"(0x19691029));
register_syscall_hook(SOCK_STREAM, primal_consciousness);
register_syscall_hook(SOCK_DGRAM, digital_instinct); asm("int3"); }
```

승재 앵?! 이게 뭐야? 저 구닥다리 코드는?
준서 genesis_1969. primal_consciousness. 인터넷 최초 코딩 때 만들어진 씨드 파일요.
 모든 네트워크는 저 프로토콜을 따랐어요.
지민 (놀란 얼굴) .. 박..정..수... 박정수 박사님?!
승재 왜? 아는 사람이야?
지민 인터넷 개발진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야. 인터넷을 한국에 처음 연결할 때 귀국했고
 책임자였지. 이후에 오빠가 저 분 경호하다 사고 터졌어.
승재 .. 무슨 경호??
지민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를 프리 패스하는 백도어가 있었거든.
준서 그 키. 미국 쪽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승재 (벽서를 보며) 설마.. 그 키가 저거야?
지민 벽서는 단순 사찰 프로그램이 아니었어. 인터넷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마스터 키야.
승재 그럼 병원, 은행, 핵발전소..
지민 AI까지. 온라인에 연결된 모든 것. 벽서면 다 뚫을 수 있어.
승재 (벽서를 보다 머리 감싸며) 아.. 좇됐네. 괜한 거 건넸었네..
준서 (지민을 보며) 이제 어떻게 하죠? 선배?

벽서를 뚫어지게 보던 지민, 검색창에 ‘SEED9’ 입력한다.
엔터 키를 누르자, 주루룩 떠오르는 인물 사진과 자료들.
하지만 몇 사람은 ‘접근 제한’이라는 커서만 깜빡거리고 자료가 출력 안 된다.

승재 (가웃) 씨드9? 뭔데? 시민단체? .. IT 회사야??
 지민 (준서 보며) 아는 사람이야?
 준서 글썽요.. 씨드9은 왜요?
 지민 가입해 볼 까 해서~
 준서 (장난스럽게) 저도 끼워주실 거죠?
 승재 꿈들 깨서. 벽서에 있을 정도면 나름 한가닥씩 하는 건방진 놈들이니까.

붉은 USB를 티타늄 케이스에 담아 준서에게 건네주는 지민.

준서 .. 선..배..
 지민 회사 라인 아직 살아있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봐. 최대한 빨리.
 준서 (티타늄 케이스 받으며) 벽서 파일이라면.. 우릴 인정할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티타늄 케이스를 들고 작업실을 나가는 준서.

승재 (입맛 다시며) 변했다. .. 하긴.. 나름 훈훈하지. 실력 괜찮지.
 네 지랄맞은 성질까지 다 받아줘. 게다가 연하.. ㅋㅋ..
 지민 (짐 챙기며)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잖아.. 너 야매 있지? 메일로 보내.
 승재 불법 장사한다고 갈굴 땀 언제고..
 지민 (나가며) 그리고 여기 정리해. 빠를수록 좋을 거야.
 승재 (입 삐죽) 웬일로 남 걱정 다 하시고? 사람 변하면 큰일 난다던데.. 너나 조심하셔~

지민이 나가자, 힐끗 쏘아보더니 자신의 불법 스팸 메일을 전송하는 승재.

95. 자동차 - 밤

외지고 어두운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지민에게 받은 붉은 USB를 폰에 꽂는 준서.
 기대 가득한 얼굴로 폰을 확인하는데, 어둠 속에서 준서 눈이 커진다.

- 준서 폰에 꽂혀있는 붉은 USB가 뭔가를 감염시키듯 불안하게 깜빡거린다.

96. 국정원 주차장/ 승재 작업실 근처 - 밤

한적한 주차장을 걸어가는 연옥, 폰이 울린다.

연옥 (전화 받으며) 감찰국장님..
 지민 미래정보. 당신 짓이지?!
 연옥 ..이..지민..??

지민 회사 구조 조정 계획안 봤어. 당신 맞지?
 연옥 맞아. 내 기획안.
 지민 하... .. 이유가 뭐야? 미래정보를 왜 버렸냐구?!
 연옥 회사 명령이었으니까.
 지민 명령?? 누군데 그 새끼가?!
 연옥 지금쯤이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민 .. 씨..드9?!
 연옥 회사 쥐새끼를 잡으면 놈들이 누군지 알게 되겠지.
 지민 그 쥐새끼 잡으면?
 연옥 서로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 하지만 먼저 줄 게 있어.
 지민 (갈등) .. 아니!! 쥐새끼부터 잡아. 벽서는 그 다음이야.

전화 툇 끊긴다. 걸려 온 발신자불명 번호를 물끄러미 확인하는 연옥.

-전화를 끊은 지민, 폰 전원을 끄고 가는데..
 그때 인기척 느껴지고, 놀라 고개 돌리면, 지민 목에 혹 들어오는 무언가!!
 거세게 반항하는 지민,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가라앉는다.

97. 안가 - 아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지민, 손목에 수갑, 겹쳐 보이는 시야, 목이 바짝 마른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강안, 지민 앞에 서류철을 펼친다.
 ‘금융거래원, 국방과학연구소, 고리 핵발전소, VIP 집무실, 그리고 자살한 대선 후보 폰까지!!’

지민 (일어서다 휘청) ..니들.. .. 실수... 실수 하는..
 강안 (무표정) 티오펜탈. 진실의 약이라고도 하지.
 지민 (눈 초점이 흐려지며) .. 변..호.. .. 변호사..

자백 유도제에 흐느적거리는 지민 앞에 또 다른 서류가 던져진다.
 오부장, 미리, 상일, 두남이가 사망 처리된 사진이다.

지민 (사진이 겹쳐 보이며) ..이런다고.. 겁 먹을 줄.. .. 웃기지...

무표정한 강안, 이번엔 노트북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국정원 방첩과 3팀장 강안” 정보 파일이 떠 있다.

강안 (노트북 건네며) 증명해 봐. 회사 사람이면 바로 내보내 주지.
 지민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정규직.. 아니라고..
 개무시하나 본데.. 그 잘난 회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피드백...

‘빠릭!!’ 에러 메시지 뜨고, 다시 입력하지만 에러 메시지를 반복하다 아예 화면이 잠겨버린다.

지민 내 존재를.. 부인하겠다?!

강안 미래 정보. 운영했지. 7년 전에. .. 하지만 재가동된 적 없어.

지민 ..거짓말!!!! 매일 미션이 내려왔고.. 피드백 보고서도.. 올렸어.. 그건 유령이야?!

강안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건 회사에 피드백 보고서 업로드 된 적 없어. 단 한번도.

지민 그럼.. 미래정보는... 뭔데?! .. 누가 만들었는데?!!

강안 (무표정하게 쳐다본다) !!

지민 (눈빛이 크게 흔들린다) .. 설..마..??

강안 씨드9!! 조세 피난처로 연결돼 세상을 움직이는 다국적 금융 정부.
미래 정보 같은 건 하루에도 수 백 수 천 개 만들고 없앨 수 있지.

지민 .. 그럼.. 준서는???!

강안 (얼굴이 다른 사진을 던지며) 씨드9의 개.
장위향, 류세이 겐지, 예런 조.. 이번엔 최준서.
지금쯤 다른 얼굴과 이름을 준비하느라 바쁠거야. 물론 나이까지도.

지민 (몸 흔들며) .. 아..냐.. 아니..잖아... .. 또 속이려는 거지..!

취조실 마이크를 끄는 강안, 비틀거리는 지민 먹살을 와락 끌어당긴다.

강안 협조하든지, 개죽음 당하든지. 선택해!!

지민 (허망) 내 7년이.. 모두 범죄였다고?! .. 정규직 되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
마침내.. 인정받은 거니까... (눈물이 주룩) 미래 정보 운영한 적 있었잖아.
그럼 애긴 해줬어야지. 쓰다 그냥 버리는 게 어딴어.. 난.. 일회용 쓰레기가 아냐!!

강안 (몰아붙이며) 마지막 기회야. 벽서 파일 어딴어?!

지민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 흔들며) ..벽서.. 벽서.. 벽서..

강안 (더 몰아붙이며) 씨드9이 전쟁을 일으킬 거야! 어딴냐구. 벽서??!!

지민 (눈빛이 흐려지다 살기) .. 씨드9... 개자식들..

그때 ‘덜컹!!’ 문 열리고, 검은 정장 사내들이 들이닥친다.

감찰1 (신분증 보여주며) 국정원 감찰국입니다. 용의자 이지민은 우리가 말합니다.

지민,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희망도 없다.

축 늘어진 지민을 끌고 나가는 감찰팀, 막으려는 강안을 저지한다.

감찰1 벽서에서 손 떼라는 회사 명령입니다. 불응 시 국정원법 위반으로 즉시 체포됩니다.

끌려 나가는 지민을 지켜보는 강안, 담배에 불을 붙이다 벽에 던져버린다.

98. 감찰팀 자동차 - 아침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감찰팀 자동차.
뒷좌석 감찰 요원들 사이에 지민, 눈에 초점이 사라졌다.
앞좌석 감찰1, 지민의 소지품과 샤넬 백을 뒤지는데, 폰이 울리자, 전화를 받는다.

감찰1 복귀 중입니다. 현재 소지품 확인 중인데 찾으면 바로 연락...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미친 듯 급회전하는 감찰팀 자동차.
‘펑!!’ 에어백 터지고, 하얀 연기로 가득 찬 차량 안.
가까스로 정신 차린 지민, 주위를 둘러보자,
터진 에어백에서 빠져나오느라 발버둥 치는 감찰들.

그때 ‘썹! 썹!’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앞좌석에서 붉은 피가 튈다.
놀란 뒷좌석 감찰 2,3. 급히 총을 꺼내 창밖을 살피는데,
‘속!속!!’ 연달아 터지는 감찰 2,3 머리!!
얼굴에 시뻘건 피가 튈 채 얼어붙은 지민,
곧, 깨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음기 단 총구.
지민 얼굴에 죽음의 공포가 스친다.

99. 자동차 - 아침

도로를 달리는 검은 SUV.
얼굴에 피가 묻은 채 운전하는 지민.
옆좌석에는 총을 겨눈 준서가 지민의 소지품을 살피다 샤넬 미니백을 들어 보인다.

준서 (샤넬 백을 장난스럽게 흔들며) 큰맘 먹고 질렸을 텐데.. 다행히 무사하네요~
지민 (운전하며) .. 왜 나왔지?
준서 친구나 만나는 사람 딱히 없죠. 가족이라곤 7살 지능 오빠 하나.
 나름 괜찮은 실력에.. 무엇보다 포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딱이죠~
지민 (쌉쓸히 웃는다) ..
준서 (티타늄 케이스에서 붉은 USB를 꺼내 망가트리며) 선배 장난은 여기까지~

(F.B.) 89썬 승재 작업실

‘씨드9’에 떠오른 사람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지민.
붉은 USB를 다른 붉은 USB와 바꿔치기한 뒤, 티타늄 케이스에 넣어 준서에게 건네준다.

총을 겨누며 지민 몸을 뒤지는 준서,
그러다 씨익 웃더니, 자신이 선물로 준 목걸이 패턴트 안에서 붉은 USB를 찾아낸다.

준서 ‘왜 나왔지?’ 라고 물었죠. .. (히죽) 선배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죠?
지민 (움찔) ..

준서 태도를 바꿔봐요. 세상이 달라질테니까~
 지민 ㅋㅋ.. 그래. 진작에 바꿀걸. 개고생 안 하게~
 준서 그 봐요~ 무슨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선배보다
 내가 더 잘 안다에 1년 치 제 연봉을 걸죠. 하하하.. 근데 속도가 좀 그러지 않나?

준서 경고에도 굉음을 내는 자동차, 더 빠르게 도로를 질주한다.

준서 (총구 겨눈다) 워.. 워.. 장난이 심한데..
 지민 (부웅!! 더 밟는다) 태도를 바꾸라며? 세상이 달라져 보여?!!
 준서 (총구 더 들이대며) 속도!! 속도!! 속도!! 줄이라고.. 씨발!!
 지민 .. ㅋㅋㅋ.. .. 최준서..
 준서 (힐긋) 씨발.. 왜?!!
 지민 (섬뜩 웃음) .. 안전벨트 했니??

눈이 커지는 준서. 순간, 자동차 핸들을 확 꺾어버리는 지민.
 ‘부웅!!’ 굉음과 함께 도로 밖으로 자동차가 튕겨 나가더니 빙그르 회전하고,
 ‘와장창!!’ 도로 바닥에 불꽃을 일으키며 주욱 밀려 나가다 멈춘다.

뒤집힌 자동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서진 차 문 너머로 나오는 손!!
 엉망이 된 채 기어 나오는 지민, 극심한 고통에 한쪽 어깨를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자동차 본체에 어깨를 세차게 부딪친다.

‘팡! 팡!!’ 탈골된 어깨를 넣으며 비명을 토해내는 지민, 얼굴이 일그러진 채 주위를 살피는데...
 도로 바닥에 널부러진 샤넬 미니백, 샤넬 로고 한쪽이 90도로 찌그러져 있다.
 조심스럽게 만지면, 툭 떨어져 버리는 C 로고!!
 눈빛이 희번덕거리는 지민, 바닥에 떨어져있던 권총을 줍더니 뒤집힌 자동차로 다가서고,
 자동차 안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에어백에 파묻혀 바둥거리는 준서.
 살기 어린 지민, 뒤집혀 있는 준서에게 총 겨눈다.

준서 ..선배.. 잠깐... 대화 좀.. 이러지 마!! 아악악!!

‘탕!탕!!탕!!!’ 총소리와 함께 몸을 들썩거리는 준서!!
 지민, 탄창이 빌 때까지 계속 방아쇠를 당긴다. ‘찰각! 찰각!’

지민 아이씨... 개더럽게 안 맞네.

곧, 사고 차량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
 준서가 준 목걸이를 뜯어 차 안에 내팽개치는 지민, 망가진 샤넬 백을 들고 사라지는데...
 그제야 눈을 슬그머니 뜨는 준서,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움켜쥔 손을 펴보면,
 백서 파일이 들어 있는 붉은 USB가 준서 손바닥 위에 있다. 암전!!

(소리) 속보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확인됐습니다.

100. 위기 몽타주

- 도로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다.
- 운행을 멈춘 채 선로에 서 있는 지하철.
- 금융가 전광판에 급격히 떨어진 주가 지수들과 외국인 투자자 대량 매도 지표.
- 물건 사재기를 한 사람들이 카드 결제 중단으로 마트가 아수라장이다.
- 은행 ATM 앞에서 서로 예금 인출하느라 몰려든 시민들.
- 조명이 꺼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전력으로 가동되는 병원.

앵커 서울 시내 대부분의 신호등이 꺼져 교통이 마비됐고,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이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병원들의 의료 장비 마비로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항공 관제 시스템 교란으로 여객기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선후보 김세훈 의원은 정부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중인 김세훈, 비장함과 결연함이 섞여 있다.

김세훈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명백한 전쟁 행위입니다.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 정부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원심타격과 모든 군사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101. 국정원 사격연습실 - 오전

‘탕! .. 탕! .. 탕!’ 권총을 쏘고 있는 3차장, 표적지를 확인하다 얼굴 찌푸리고.
‘탕!탕!!탕!!!’ 보면, 옆자리에서 사격하는 강안, 표적지 중앙에 탄환이 집중되어 있다.
강안을 힐끗보고 표적지를 교체하는 3차장.

강안 섬멸 작전 취소 해주십시오!! 미래정보가 사라지면...
3차장 아직도 모르는갑네? 씨드9은 뿌리 못 뽑아. 절대.
강안 또..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3차장 (표적지 보내며) 그러니까 벽서 파일을 가져와. 그래야 쥐새끼들을 잡지.
강안 (3차장을 쏘아본다) 미래 정보.. 이지민은요?!
3차장 .. 판 다 깔리빠면 그땐 아무도 전쟁 못 막는다. 대한민국이 불구덩이 되는 기라.
강안 (눈빛이 서늘하다) !!
3차장 (새표적지에 총 겨누며) 요새.. 질문도 많고, 규칙도 자주 어기고..., 누구랑 많이 닳아 간다. 단디해라. 단디..

새표적지에 총을 쏘려는 3차장, 순간, ‘탕!탕!탕!탕!탕!’ 연속된 총소리에 움찔 놀라고, 총을 내려놓는 강안, 너덜해진 3차장 표적지를 보더니 사격장을 나간다.

102. 국정원 주차장/대형 쇼핑몰 - 오전

중무장한 추적팀이 SUV 안에서 대기 중이다.
다가가는 강안, 폰이 울리자, 전화를 받는다.

지민 무지 바쁘겠네?

강안 (멈칫) 덕분에. (추적팀에게 수신호하고, 전화 추적에 들어간다.)

- 사람들이 지나가는 쇼핑몰에서 빠르게 걸으며 전화하는 지민.

지민 발신처가 나이지리아로 잡힐 거야. 다음은 콜롬비아. 시간 낭비하지마.

추적팀에게 전화 추적을 그만두라며 수신호 하는 강안, 한적한 곳으로 걸어간다.

- 전자 장비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지민

강안 상황이 안 좋아.

지민 섬멸 작전 떨어졌지?

강안 (침묵) ..

지민 하여튼 몰인정한 회사야~

강안 벽서 파일 반납해. 작전 중단할 수 있어.

지민 ..그럼 난?

강안 정상 참작은 가능할 거야.

지민 반쯤 디스카운트 해주려나? 30년쯤? .. 고마우셔라~

강안 어쨌든!! 대한민국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니까.

지민 (반박하려다 한숨) .. 아이씨...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7년을 바쳤는데.. 개망했어.

강안 회사도, 씨드9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외국 정보국까지..

지민 세상에나.. 살면서 이렇게 사랑받은 적 없었는데.. 아주 인기 대폭발이야.. ㅋㅋ..

강안 벽서 넘겨. 그럼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죽어!!

지민 당신 말.. 책임 질 수 있어?!

강안 (말하려다 주저한다) ..

지민 ㅋㅋ.. 당신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거든. 거짓말 무지 서툴고 자기 일을 사랑했지. 덕분에 병원 신세지만.. .

강안 ...

지민 자수해서 광명 찾아볼까.. 벽서를 팔아볼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강안 (얼굴이 굳어진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

지민 (말 끊으며) 아니!! 끝까지 가보게!!

- 전화를 끊고, 번쩍이는 조명과 기계들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지민.

끊긴 전화를 굳은 얼굴로 바라보는 강안, SUV가 앞에 멈추자 올라탄다.
빠르게 출발하는 추적팀 차량들!!

103. 호텔 - 오후

호텔 방에서 상처를 술로 소독하고 벌어진 살을 실로 꿰매는 준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지만, 지민에게 뺏은 붉은 USB를 보며 웃는다.
폰에 붉은 USB를 연결한 뒤, VR 글래스를 쓰고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준서.
VR 글래스와 연결된 폰 화면이 울컥거리더니, 흔들리기 시작한다.

104. VR 룸 - 오후

네온 조명이 번쩍이는 VR 룸, 귀를 때리는 트랜스 비트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긴장된 얼굴로 폰을 주시하던 지민, 화면에 'connect' 알림이 뜨자, VR글래스를 착용한다.
곧, 시끄러운 주변이 사라지고 메타버스 세계로 다이브하는 지민.

105. 유립 고성(古城) 계단/고성 회의실 - 아침

환한 아침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고성,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깡충깡충 올라가는 레인, 거대한 석문을 열고 들어간다.

레인이 들어오자, 원탁에 있던 기사들과 킹이 레인을 주시하고,
화려한 망토와 갑옷, 왕관을 쓴 킹, 눈빛에서 가공할 섬광이 이글거린다.

레인 (바닥에 고개 숙이며) OBOEDIO(복종합니다)!!
킹 (반색) LJ1497!! 네 얘기는 들었다. 원탁에 오르고 싶다고?
레인 (더 숙이며) OBOEDIO(복종합니다)!!

킹이 손가락을 튕기자 회의실 허공에 홀로그램이 뜨고 동영상이 펼쳐진다.

- 분노한 시민들이 횃불과 피켓을 들고 몰려들고, 시위대 함성이 밤하늘을 찢는다.
- ‘무능 정부 즉각 퇴진!!’ ‘북한 테러 백배 응징!!’ 깃발이 휘날린다.
- 짐을 챙겨 민군 기지로 속속 집결하는 미군 가족들.
- C-17 수송기들이 빠르게 착륙하고 이륙한다
- 광화문에서 격정적으로 연설하는 김세훈, 시민들이 미친 듯이 환호한다.

킹 (손짓하자 지도가 뜬다) 내일 6시에 DMZ는 불바다가 될 거야.
 원탁2 (조정하며) 그 신호를 시작으로 평양 1호 청사가 폭발하고,
 북핵도 우리 손에 떨어집니다.
 원탁1 (화면 띄우며) 대한민국 1호는 가족들의 안전보장을 댕가로 국정 운영 전권을
 김세훈에게 넘겼습니다. 전쟁 개시와 함께 곧바로 UN이 개입할 겁니다.
 킹 한반도는 씨드9의 새로운 금융 허브가 될 거야. 규제 없는 조세 피난처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이 되겠지. 반발이 따르겠지만 벽서라면
 손쉽게 잠재울 수 있어. (레인 보며) 벽서를 꺼내!!

기대에 찬 채 쳐다보는 킹과 기사들, 하지만 레인은 머뭇거린다.

원탁1 뭐해? 어서 벽서를 내놓지 않고?!
 레인 벽서 파일은 강력한 보호장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원탁3 프로텍션 락이 걸려있다는 거야?!
 레인 (고개 끄덕인다) ..
 원탁1 (킹을 보며 당황) ..솔루션은?!
 레인 파일 이동만 가능합니다만. 그러려면 모든 권한 설정이...
 원탁3 (자리에서 일어나며) LJ1497!! 일을 이따위로 해?! 모든 권한 설정으로 오픈하려면 개인 보안
 포트를 전부 열어야 돼.
 레인 (얼굴에 식은 땀이 흐른다) ..
 원탁4 조심하게.. 그게 뭐 어땠어?
 원탁3 개인 포트 열리면, 혹시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킹 (손 들어 제지) 여긴 씨드9 소유야. 우리 허락 없인 지구상 어느 정부도 못 들어와.
 오직 액티베이션 키 가진 자만이 입장 가능하고. 벽서 파일이라면..
 개인 보안 포트 여는 정도는 감수해야지~ .. 열어.

레인을 쏘아보는 원탁3, 하는 수 없이 손가락 움직이면, 모든 개인 보안 포트가 열린다.

킹 (레인을 보며) 자.. 이제 보여줘.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야!!

긴장한 레인, 옷 안에서 벽서 파일을 꺼내 원탁 위로 던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벽서 파일, 원탁 위에서 보라색 광채와 함께 펼쳐지는데...
 곧, 문서, 사진, 동영상, 메시지, 계좌 자료들이 회의실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각자 원하는 자료들을 확인하느라 정신없는 킹과 기사들, 환희와 경탄으로 가득하다.

원탁2 북쪽.. 반동들을 일시에 날 릴 수 있겠습니다.
 원탁1 남쪽도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킹 레인.. 남은 퍼즐을 맞추 수 있게 되었다. 네 충성심에 보살이 따를거야. 충분히!!

이번엔 고개 숙이지 않고, 킹과 기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레인.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원탁5가 뛰어 들어온다.

원탁5 ..크..큰..일.. 났어요!!

정신없이 벽서를 확인하던 킹과 기사들, 멍청하고,
원탁5, 손가락 튕기자, 회의실 천장에 동영상이 흐른다.

- 국내 최대 로펌사에 카메라를 들고 몰려든 기자들.
당황한 로펌 직원들이 기자들을 막고 있고, 기자들은 대표 변호사 위치를 묻고 있다.

그 뉴스를 보며 움찔하는 기사들과 화들짝 놀라는 원탁4.

원탁4 .. 저긴 내 회사인데... 제게 왜??!!

원탁5 국내 모든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킹 제보?!

원탁5 씨드9 리스트가 유출됐습니다!!

화들짝 경악하는 기사들과 움찔하는 킹.
반면 고개 숙인 레인 얼굴에 얇은 미소가 흐른다.

킹 (원탁3을 쏘아보며) 언론사 필터링은?!

원탁3 (당황)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만...

원탁5 그게 곧바로 SNS쪽에 퍼지는 바람에 손 쓸 사이도 없이..

원탁1 도대체 누가.. (순간 멍침, 레인을 쏘아보며) .. LJ1497.. 무슨 짓이냐?!

겁먹은 얼굴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레인, 장난스럽게 손 흔들며 웃는다.

레인 이전부터 진짜 궁금했거든. (씨드9처럼 손가락 과장해서 따라하며) 이딴 식으로
세상 가지고 놀면 잼있나? 무자게 피곤할 것 같은데~

킹/기사들 .. 뭐??!!

레인 개품은 다잡고 또 얼굴은 왜 감춰? (해맑게) 알려지면.. 존망각이야? ㅋㅋ

원탁1 (다가가며) 네 놈이... 이려고도 살아남길 바래??

레인 남 걱정할 때 아닐텐데~

레인이 허공에 두 손 뻗으면, 황금색 가루가 방 전체에 퍼지고,
곧, 킹과 기사들 얼굴이 흔들리고, 서서히 실제 사람 얼굴로 바뀐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더니 화들짝 놀라는 킹과 원탁 기사들!!
킹은 미대사관 상무관 마이클.(썸59, 국립중앙박물관/수장고) 원탁5는 금융지주 부회장.
원탁 3은 최대 미디어 그룹 신임 회장, 원탁2는 북한 외무성 김용호다!!
원탁1, 얼굴은 심하게 흔들리지만 실제 얼굴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킹 (얼굴이 드러난 기사들을 보며) ..what the fuck??!!

원탁5 (킹 실제 얼굴을 보고 놀라며) .. 당신이.. 킹?!

원탁4 (헛웃음) 아무리 미 대사관이라지만 상무관 주제에.. 씨발..

원탁1 (실제 얼굴로 바뀌다 멈칫거린다) !!
킹 (원탁1 보며) Do something about it. Don't just stand there. Damn it!!
(어떻게 좀 해봐. 가만히 있지만 말고. 씨발!!!!)
원탁3 개인 포트 열면 안 된다 그랬잖아. .. 개꼐대 새끼들.. 진짜 말 안 쳐들어.
원탁2 (로그 아웃이 되지 않고 얼굴이 계속 걸려있다) 개망쳤다.. 종간나 새끼들..

그때, 문 열리며 황급히 들어오는 누군가, 벽서 파일을 든.. 레인2다!!

레인2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원탁1 (레인2를 보며) ..넌.. 또.. 누구..냐..?!!

레인1과 레인2를 번갈아 보며 경악하는 킹과 기사들.

순간,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른 레인1, 레인2을 연속 발차기로 날려버린다.

‘휘릭!!’ 얼굴이 돌아가는 레인2, 실제 얼굴이 드러나는데, 당황함으로 일그러진 준서다.

준서가 들고 있던 벽서 파일을 낚아채는 레인1, 얼굴이 드러나고, 살기 어린 지민이다!!

원탁1 .. 미래.. 정보??

준서 (지민 보며) 이러지 마.. 진짜 다 죽어!!

지민 무슨~ 재미는 지금부터인데. .. (섬찐한 웃음) 이제 니들 차례야~

고성 안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지민.

동시에, 고성이 흔들리더니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당황한 킹과 기사들, 서둘러 빠져나가지만, 실제 얼굴은 락이 걸린 채 심하게 흔들거린다.

무너져 내리는 고성 안에서 비어있는 원탁을 허망하게 바라보는 준서.

106. 호텔 - 오후

VR 글래스를 거칠게 벗어 던지는 준서, 어깨를 들썩이며 실성한 듯 키득거린다.

그때, 폰 울리고.

메시지

Destroy all data. Wait until the order!!

눈이 꿈틀대던 준서, 황급히 물건을 챙기고 호텔 방을 나간다.

107. 정신병원/자동차 - 밤

- 정신없이 병실로 뛰어가는 지민.

- 오빠가 있던 침대가 비어있다.

- 당황한 지민, 병원을 뛰어다니며 상호를 찾고.
- 병원 옥상에 올라온 지민, 주변을 살피는데,
그때 폰에 메시지 날아오고, 자동차에 갇혀 엉망진창이 된 상호 사진이다!!
폰 울리자,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전화 받는 지민.

준서 어찌나? 불쌍한 오빠가 동생을 애타게 찾네~ 어떻게 해줄까?
지민 맘대로 해.
준서 뭐?!

지민 우리 집 가훈이 각자도생이거든~

곧, “아악!! 아악!!!” 폰으로 들리는 상호의 비명소리!!

지민 (눈이 꿈틀) ..
준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지민 알아서 하라니까~
준서 ..미쳤구나.
지민 아니. 지금부터 제대로 미쳐 보려고.
준서 또 무슨 개수작인데?!

지민 태도를 바꾸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네 말대로. (전화 툇 끊긴다)

준서 ..이.지.민.. 여보세요.. 씨발.. 어디라고 말은 해야 될 것 아냐!!

- 전화를 끊은 지민, 당혹감에 숨을 거세게 몰아쉬더니.
‘후...후...’ 가까스로 호흡을 가다듬는 지민, 눈빛이 차츰 서늘해진다.

정신 병원 옥상에서 붉은 USB를 노트북에 꽂는 지민.
벽서 파일에 암호키를 입력하자, 빠르게 실행되는 벽서 파일!!
곧... 수많은 자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승재가 보낸 불법 스팸 메일을 여는 지민, 얼굴에 살기로 가득 찼다!!

(소리) 개를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108. 국정원 취조실 - 새벽

강안에게 취조당하고 있는 승재.

승재 못 찾아. 절대.
강안 네가 다 뒤집어 쓸 수 있어.
승재 (피식) 이전에 NASA 똥다 걸린 적 있거든. 미국 애들이 기를 쓰고 날 노렸어.
 회사는 날 팔아넘겼고. 그때 걸렸으면 지금까지 관티아모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야.
 .. 그때 도와준 게 누군 줄 알아?
강안 (쏘아본다) ..

승재 지민이야. 재미친 이지민!! 내 기록, 흔적 다 지워주고,
 지금까지 미국 애들 추적 피해 온 것도 지민이 덕분이야.
 그런데 그런 지민이를 찾는다고? 동네 개가 웃을 일이야~~

강안 이대로 두면 죽어!! 말해. 이지민 어딴어?!

승재 진짜 모른다니까. 개가 어떤 앤데 흔적을 남겨. 꿈 깨서~~

그때 폰에 메시지 날아들고,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다.
 메시지 확인하는 강안, 눈이 확 커진다.

109. 국정원 상황실 - 새벽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리스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고위 관료, 국회의원, 군인, 경찰, 재벌 총수, 언론사 사장, 대법관, 대선후보 김세훈까지!!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불법이 기록된 자료들이 줄줄이 드러난다.
 상기된 대한, 요원들 사이를 오가며 지시하느라 바쁘고,
 폰이 계속 울리자 아예 전원을 꺼버린다.

대한 쥐새끼들... 다 뒤흔어~

요원1 (전화 받으며) .. 3차장님입니다. 지금 즉시 중지하라는데요.

피식 웃는 대한, 상황실 컨트롤 박스로 가더니, ‘황!황!’ 소화기로 자동문을 박살 낸다.
 고장이 난 채 굳게 닫혀 버리는 상황실 문!!
 상황들 요원들, 멍청하고.

대한 매일 야근에.. 휴일 언제 쉬었는지 기억도 안 나. (요원들 보며) 그러니 차이고,
 헤어지고, 죄다 솔로 신세지. 그렇게 좇빠지게 다닌 회사인데.. 누구는 통째로
 끓여먹고 있었어. 쥐새끼들이!! 그걸 또 손 놓고 지켜보라고?! ..좇까라 그래!!
 .. 상황실!! 모든 건 상황실장 장대한이 책임진다.
 (씨드9 리스트 보며) 쥐새끼들 뺏속까지 싹싹 발라내!!

동요하던 요원들, 대한의 결단에 일사분란하게 씨드9의 리스트를 체크하고.
 국내에서 암약하는 씨드9 명단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짓는 대한

대한 (아이스 커피 얼음을 씹으며) 이지민.. 개꿀아이.. 다 까발려 버려라. ㅋㅋ..
 요원1 (당황) ..실장님.. 급히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만..
 대한 누군데? 연예인이라도 나왔어? 아이돌?? 메인 화면에 띄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상황실 메인 화면을 보는 대한,
 순간 움찔하다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110. 국정원 지하 주차장 - 새벽

어둑한 지하 주차장을 빠르게 걸어 나가는 실루엣.

그때 앞에 있던 차에서 감찰 팀원이 내리자, 발걸음을 멈추는데... 감찰국장 고연옥이다.

감찰4 (고개 숙이며) 보고서 올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주변을 확인하는 연옥, 감찰4 차에 올라탄다.

연옥에게 자료를 건네주는 감찰4.

감찰4 (자료를 건네주며) 이전에 이상호 추적팀장 사고 이후 원본 자료가 삭제됐습니다.

연옥 ..삭제는 최상급 기밀 취급자만 가능할 텐데..

감찰4 아무래도 미래정보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7년 전 모의해킹팀 책임자가..

연옥 (자료 확인하다 멈칫) !!

감찰4 ..3차장님 이었습니다.

연옥 단독 작전?

감찰4 첨엔 그런 줄 알았는데.. 어시스트 요원이 있었습니다.

연옥 (서류를 살핀다) !!

감찰4 다른 쪽과 크로스 체크 중이고.. 누군지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연옥 (한 숨) ..보안은?

감찰4 지시대로 저와 국장님 둘만 압니다.

연옥 (자료 넘겨주며 어깨 툭툭) 수고 했어. .. 그리고.. 체크 필요 없어. 누군지 아니까.

감찰4 ..누..구..??

순간, 숨이 콕 막혀오는 감찰4, 연옥이 만졌던 곳을 보려는데 고개가 안 돌아간다.

약지 손가락에서 독 묻은 얇은 비닐장갑을 무덤덤하게 벗겨내는 연옥.

연옥 (숨을 헐떡이는 감찰4를 다독이며)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

과로사로 가족들 연금은 받게 해줄게. .. 조용히 마무리하자..

눈을 부릅뜬 채 연옥을 쏘아보며 숨을 헐떡이는 감찰4.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다, 결국 멈춘다.

운전석에서 자는 것처럼 감찰4를 추스르는 연옥.

연옥 애기했지. 시키는 일만 하라고. (짜증) 뭐니.. 이게..

손가락에서 독 묻은 비닐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연옥.

손목에 찬 국정원 시계가 반짝거린다.

(소리) 씨발!! 아직이야??!!

111. 준서 자동차/초고층 빌딩 - 새벽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폰으로 붉은 점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준서.
뒷 좌석 사내1, 노트북으로 지민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사내1 티켓 확보! 바로 앞입니다!!

빠른 속도로 공사 중인 빌딩 안으로 돌진하는 자동차, 출입구 앞에 급정거하고.
까마득하게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는 준서, 살기가 흐른다.

112. 초고층 빌딩 안 - 새벽

층을 겨누는 채 폰의 붉은 점을 따라가는 준서.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오자, 조심스레 다가가는데..
공사장 한편, 지민이 노트북으로 벽서 파일을 작업 중이다.
인기척에 놀란 지민, 열린 노트북에 꽂힌 붉은 USB를 뽑아 전기 충격기에 갖다 댄다.

준서 아.. 질척대긴.. 선배답지 않게 왜 이래~

준서가 손짓하자, 사내들에게 끌려 나오는 상호, 지민을 보자 해맑게 웃으며 손 흔든다.

준서 (피식) 가훈이 각자도생?

상호 머리를 권총으로 내리치는 준서.
‘아악!!’ 상호의 비명이 빌딩에 울려 퍼진다.
눈빛이 차갑게 번득이는 지민.

준서 어찌냐~ 난 선배보다 몸도 크고, 격투기에, 근접전도 만렙인데.
(총 흔들며) 거기다 이것까지~

지민 지는 싸움 안 해!!

준서 (총구로 상호 머리를 짓누르며) 허세 그만 떨고 벽서 내놔.
안 그러면 이 애물단지를..

순간 ‘탕!!’ 소리 들리고, 놀라 움찔하는 지민과 몸을 움츠린 상호.

지민 오빠!!!!

보면, 놀란 상호, 멀뚱멀뚱 일어나는데, 별 이상 없다.
반면, 들고 있던 총이 박살 나버린 준서, 눈이 커지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누군가, 국정원 감찰국장 연옥이다!!

준서 (얼굴 일그러지며)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다가간 연옥, 준서 머리를 권총으로 사정없이 내려친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지만, 주인 앞 사냥개 마냥 고개 숙이는 준서.

총 든 연옥을 보며 눈을 심하게 꿈뻑거리는 상호.

연옥 (상호 어깨 두드리며) 이 친구 여전하네. 나라 위해 몸 바친 댓가가 이 모양이라니..

상호 (연옥 손을 탁 뿌리치더니 시선 외면) !!

지민 (분노) 씨드9의 마지막 기사?

연옥 (국정원 시계 풀며) 회사 30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거야. 내 인생 절반을 바쳤는데.., 겨우 60만원짜리. 싸구려 시계였어.. 그때 찾아왔어. 씨드9이.

지민 눈물겨운 사연이 겨우 그거야? 너.. 끝났어. 회사가 쫓을 거야.

연옥 주인 바뀌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 순으로 짚리는 곳?

아니면 쓰고 너처럼 그냥 버리는 회사?

지민 (멈칫) ..

연옥 씨드9은 달라. 집안, 학력, 남녀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돈에만 충성하면 돼~

지민 그래서 미래정보를 이용한 거야?

연옥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었잖아. 잔업 수당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일자리 아닌가?

지민 이대로 안 끝내...

연옥 감당할 수 있겠어? 온갖 죄 다 붙여 꼬부랑 할머니 돼서야 감옥에서 나올텐데~

지민 그럼.. 씨드9의 개가 되라? 니들처럼?!

준서 하하하!! 선배.. 주인 있는 개는 굶지 않아요~

지민 (멈칫) !!

연옥 네 샤넬 백은 물론이고 에르메스 버킨 백을 컬러마다 가질 수 있어.

쓸모도 없는 자격증이나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거기다 가련한 오빠까지..

지민 (흔들린다) ..

연옥 (창밖을 내려다보며) 벽서라면 어디든 인정받을 거야~

준서 (다가서며) 선배.. 우리.. 굿 팀이었잖아요.

지민 .. 그러게.. 진작에 스카웃 좀 하지. 이 개고생 안 하게~

연옥 말이 통할 줄 알았어. 넌 이전의 나같으니까. (손 내밀며) 벽서와 같이 가~

지민 ..ㅋㅋㅋㅋ..

지민의 미친 듯한 웃음에 시선을 서로 주고 받는 연옥과 준서.

지민 ㅋㅋ..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되겠어. .. 인정이 안 돼. 니들 말이야.

연옥/준서 ??!!

지민 얼굴 가리고, 잘난 척 품은 다 잡고. 핑계는 또.., 딱 개양아치들이잖아.

게다가 잘난 고성에서 스킨과 옷이 그제 뭐니. 개구리게..

연옥 ..후회하게 될 거야.

지민 아니.. 끝까지 갈 건데!!

(오빠 보며) 이상호!!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 놀이 할 거야!!
상호 (화들짝) .. 놀이? .. 정말??!!
연옥 아.. 구질구질한 신파는 딱 질색인데.. (준서 보며) 가져와. 벽서!!

지민에게 다가가는 준서.
지민, 망가진 샤넬 미니백에서 뭔가를 꺼내고..

준서 (흠칫) 아이씨..
지민 (빨간 장갑 흔들며) 쫓았지?
준서 씨발.. 쫓긴.. 누가??!!
연옥 (짜증) 저딴 거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 벽서 가져오라니까!! 빨리!!
지민 저딴 거? 크크.. (장갑을 손에 끼며) 내 이름은 이지민. 32살. B형. MBTI는 ISTP.
불의는 외면해도 불이익은 몇 배로 되잖고야 마는 쌍년이지.
더 이상 당하지 않아. 절대!!
연옥 (귀찮다는 듯 준서 쏘아보며) 뭐하니?! 저거 하나 처리 못 하고??!!
(바닥을 보다 얼굴찌푸리다 까치발 서며) ..뭐야.. 이건 또.. 지저분하게..

보면, 어느새 빌딩 바닥에 물이 찰랑거린다.
두 선을 들고 있는 지민, 얼굴에 살기 어린 웃음이 흐르고.

준서 (흠칫, 지민 쏘아보며) ..너..
지민 (장갑 낀 손으로 굵은 두 선을 치켜든다) 짜릿할 거야. 아주. 기대해~~
연옥 (눈 확 커지며) 저.. 미친 게... 막아!! 당장!!

놀란 준서와 사내들, 지민에게 달려들고.
장갑 낀 지민, 상호를 보고 웃더니 들고 있던 굵은 두 전선을 짹!! 맞댄다.

순간, 주변 조명이 깜빡거리고, ‘빠지찍!!!’ 시퍼런 고압 전류가 쏟아지는 빌딩!!
달려들던 사내1,2,3.. 고압 전류에 부르르 떨고, 준서와 연옥도 몸이 심하게 비틀린다.
‘으으으!!!!’ 비명인지 환호인지 모를 기이한 소리를 내며 버터내는 상호.
지민도 바둥거리는 연옥과 준서를 보며 이 악물고 견뎌낸다.
,

탕! 탕!! 탕!!!’ 총을 쏘는 연옥, 고압전류 탓에 총탄이 지민 옆을 빗나가고,
다가서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바닥에 차박히는 사내1,2,3.
두 전선을 끝까지 버티던 지민, 부들대는 준서와 연옥에게 다가가 두 선을 입에 꽂는데...,
‘파팍팍!!!!’ 온몸에 시퍼런 불꽃이 튀는 준서와 연옥.

연옥 (머리카락이 팝콘처럼 부풀며) ...으...아악악악!!!!
준서 (구운 오징어처럼 비틀어지며) ...제..에...발...!!!
지민 (이 악물고 두 선 들고 버티며) ..흐흐흐.. 니들 영혼까지 튀겨줄게. 바삭!!

시꺼먼 연기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지는 연옥과 준서.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 들려오고, 총구를 겨눈 채 투입되는 강안과 국정원 추적팀!!
바닥에서 부들부들 튀겨지는 연옥과 준서를 발견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설 엄두를 못 낸다.
놀라는 강안과 추적팀을 보며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지민과 상호,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화면 어두워진다.

113. 취조실 - 오후

화면 밝아지면, 지민 앞으로 던져지는 서류들.
7년간 지민이 모의 해킹해 왔던 증거들이다.

대환 아주 블록버스트급 대잔치야~ 국가 주요시설 파괴와 불법 자료 유출,
 거기다 전쟁 유발죄에 내란죄 추가까지.. 평생을 썩게 될 거야. ㅋㅋ..
지민 (무표정하게 대환을 바라본다) ..
대환 변호사 그만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꿈 깨.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 없이 곧바로 격리될 테니까.
지민 (조금의 동요도 없다) ..
대환 (피식) 완전 맛탱이 갔네. (목소리 깔며) 정상 참작이라도 받으려면 협조해.
 벽서 파일 암호키 말이야.. 어딴어?!

대답 대신 대환 뒤에 있는 유리 거울을 응시하는 지민.
그때 대환 폰 울리고, 전화 받던 대환, 지민을 쏘아보더니 황급히 나간다.
취조실 거울 너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지민.

(소리) 진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114. 취조실 녹화실 - 오후

열 뻥친 3차장과 당황한 대환이가 강안과 함께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DMZ 인근에 집결 중인 북한군,남한군 위성사진들!!
-발사 준비 중인 북한 미사일 부대와 빠르게 이륙하는 남한 전투기들.
-자국 철수령으로 긴박해진 각국 대사관 cctv 영상들

강안이 파일을 열자, 모니터에 뜨는 암호가 해제된 벽서 파일!!

강안 (냉정) 일부 암호 해제된 벽서 파일에 씨드9의 명단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북한을 자극해 전쟁 충동을 유발하려던 각국의 정보 자료들이 모니터에 뜬다.

강안 북쪽에 전달되면 그들도 달라질 겁니다.
3차장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극비 자료들을 보며) 이 자식들이 진짜..

우릴 개호구로 봤네.. 참말로..
 대환 (유리 거울 너머 지민을 쏘아보며) 그렇다고 저 미친 개꿀아이를 풀어주자구요?!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이자 도발..
 3차장 (조인트 펍!! 까며) 솔루션!! (또 까며) 솔루션을 내라고!!
 대환 (딱히 방법 없다) .. 그냥.. 제거... 할까요??
 3차장 (조인트 더 까며) 야 새끼야!! 네가 막을래? 코 앞에 닥친 전쟁을!!
 대환 (잔머리 굴리며) 그럼.. 이번 전쟁만 막고 곧바로 가두거나 삭제하면..

모니터에 뜨는 스팸 발송 프로그램!!
 전체 벽서파일이 업로드되어 있고, 2분 59,58,57초.. 타임 리미트가 줄어들고 있다.
 얼굴이 심하게 굳어지는 3차장과 입을 다물지 못하는 대환.

강안 각국의 민감한 자료들이 무작위로 발송될 테고,
 한반도는 물론 세상이 불바다가 되겠쥬.
 3차장 아... 미치겠다... 댄 방법은? 약물이나.. 고문.. 도 있잖아?!
 강안 입사 시험 극한 테스트 1위, 극한 생존술, 자백제, 고압 500V에도 버틴 자입니다.

타임 리미트가 점점 줄어드는 벽서 파일이 첨부된 스팸 발송 프로그램!! 1분, 59,57,57초..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다른 모니터 DMZ 위성영상에 북한군 부대가 은폐 지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3차장 정말.. 다른 방법 없는 거야?!
 대환 (슬쩍 시선 피한다) ..
 3차장 저 미친 고장 난 폭탄을 우짜노??!!
 강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취조실 지민을 보며) 위험합니다. .. 대단히..

3차장과 대환, 강안을 주시하고, 세 사람 시선이 유리 거울 너머 취조실 지민에게 쏠린다.

115. 취조실 - 오후

취조실 거울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지민,
 마치 저편의 대화 내용을 알기라도 하듯, 웃음이 번지고.
 지민 얼굴이 처음으로 평온해진다.
 화면 어두워지고,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 들려온다.

(소리) 속보입니다. 중부 전선에서 시작된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사상자가 10명을 넘어섰으며,
 군은 데프콘 2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UN 안보리에 북한의 군사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일제히 안보리 소집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외교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위기로...

116. 안나푸르나 빙벽 - 새벽

‘휘잉~~’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깎아 지른 새하얀 빙벽을 올라가는 알파니스트.
긴장이 고조된 음악이 흐른다.

(소리)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남한 최고위자들이 전격적으로 긴급 회동 했습니다.

귀를 때리는 바람과 거친 눈발에도,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카메라 다가가면, 하얀 입김을 연신 몰아쉬며 이를 악물고 도약한다.

(소리) 국가안보실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군사 충돌이 다국적 금융 세력이
관련되어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UN 안보리에 증거가 제시되자,
이례적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전례 없는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글을 뱉는데, 자신감으로 가득 찬 지민이다.

(소리) 익명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군사 위기 해결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다국적 금융 세력의 전모가 드러났다는 전언입니다. CNN과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장이 열렸다'며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 구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상에 선 채 자신이 올라왔던 새하얀 설산을 내려다보는 지민.
그때 ‘냐옹~~’ 소리 들리고, 지민 등에 멘 백팩에서 검은 고양이가 삐죽 나온다.
눈을 깜빡이며 새하얀 세상을 신기해하며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검은 고양이.

순간 ‘두둥둥---’ 거센 눈보라와 함께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고.
곧, 하얀 눈보라를 날리며 안나푸르나 정상에 착륙하는 대형 헬기!!
상호와 승재가 내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국정원 정예들이 주위를 삼엄하게 경계한다.

승재 으으으.. 이러다 얼어죽겠어.. 휴가가 무슨 산꼭대기냐?
세상 구했으면 따뜻한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며 즐겨야지.. 뭐야 이게.. 에이취!!
상호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껌뻑) ..안나 푸르나.. 안나 푸르나..

안나푸르나의 새하얀 세상을 둘러보는 상호와 먹먹한 얼굴로 지켜보는 지민.
그때 선글라스를 낀 요원,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고, 얼굴이 잔뜩 찌푸려진 대환이다.

대환 (국정원 서버 접속하며) 그렇게 정규직 정규직 할 땐 언제고..
재택에 유연근무, 휴가.. 그것도 8091미터 높이에!! 아주 지 맘 대로야.. 진짜..
지민 (슈퍼 을의 얼굴) 계약 해지하시든가~
대환 해지는 무슨.. 에이취!! 이번 임무 완료로 태극무공훈장 추서됐구요.
요구하신 특별 수당까지.. 에이취!! ..추워 뒤통수겠네 증말..
(노트북 건네며) 그러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각국의 민감한 자료가 들어있는 벽서 파일 스팸 메일이 전송 준비 중이고,
타임 리미트가 1분을 가리키고 있다

- (intercut) 국정원 상황실.

타임 리미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실 대형 모니터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안, 초조하게 지켜본다.

- 안나푸르나 정상에서 느긋한 지민과 달리 거의 올상인 대환.

대환 (얼마 남지 않은 타임 리미트를 보며) 회사가 또 비상입니다. 초비상!!
.. 이러다 벽서 풀리기라도 하면... 다 죽는다구욧!! 어서요. .. 제발..

심드렁한 지민, 장갑을 여유있게 벗더니 화려하게 치장한 손가락으로 스팸 발송 해제 버튼을
‘톡!’ 누르고, 동시에 지민의 심장 박동이 암호 해제 그래프와 완벽하게 일치된다.
‘스르륵!!’ 24시간으로 재설정되는 타임 리미트!!

- (intercut) 국정원 상황실.

타임 리미트가 24시간으로 다시 세팅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요원들, 일상 업무로 돌아가고.
인공위성으로 안나푸르나 정상의 지민을 확인하는 강안,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강안 여전하네. 이지민~

- 안나푸르나 정상에서 고양이와 함께 눈 위를 뒹굴는 상호를 물끄러미 지켜보는 지민.

지민 약속 지킨 거야~

망가진 로고가 그대로인 샤넬 미니백에서 텀블러를 꺼내는 지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신다.

지민 (깊은 향을 음미하며) 산 정상에선.. 역시... 커피 믹스야.
(떠오르는 해를 보고 느긋하게 기지개 켜며) 날씨.. 조으타~~

새하얀 눈 위를 뛰어다니는 고양이와 해 맑게 웃는 상호,
추위에 떠는 승재와 손 비비며 올상인 대환.
그들을 바라보는 지민의 환한 얼굴에서, 음악 절정으로 달려 나간다!!

To be continued..

지민의 국정원 최종테스트 교관이 선그라스 끼고 모자 쓴 강안이다.